격월간·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중국어문선교회 서울·서초구 방배본동 756-7
전화 : 594-8038 • 533-5497 발행인·박성주 발행일 : 1993.11.20.

격월간

1993.11/12

중국을 주께로

중국어문선교회
통권25호

특집/한 • 중 선교협정의 명암

협정문(한국어 • 중국어)

한국 • 중국 교회간의 선교를 위한 친선 및 관계증진에 대한 제안

삼자원칙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

한 • 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

중국선교, 과연 물꼬가 트였는가

한 • 중 교회협의회 「협정문」의 주역들

제1회

선교헌신자 언어 훈련을 위한

전 문 인 선 교 중 국 어 훈 련 세 미 나

중국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이제 입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합시다.
선교중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워봅시다.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실제 선교에 쓰여질
중국어를 배워봅시다.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하시면
놀라운 발전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대 상 : 전국의 크리스천 대학생,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회원, 중국선교훈련원 수료생

기 간 : 3박 4일 (2월 2일 ~ 2월 5일)
AM 9:00 - PM 6:00 숙박 희망자 가능

수 준 : 중급반, 초급(발음 • 기본문법)과정 이상

장 소 : 중국선교훈련원

참 가 비 : 3만원 (중식 • 간식제공)

참가인원 : 50명(조별10명씩)

시 간 표 :

<table>
<tr><th></th><th>수 (2/2)</th><th>목(2/3)</th><th>금(2/4)</th><th>토(2/5)</th></tr>
<tr><td>9:00 AM</td><td rowspan="4"></td><td colspan="3">중 국 어 찬 양</td></tr>
<tr><td>10:00 AM</td><td colspan="3">중 국 어 설 교</td></tr>
<tr><td>10:30 AM</td><td colspan="3">중 국 어 기 도</td></tr>
<tr><td>12:00 AM</td><td colspan="3">점 심 및 휴 식</td></tr>
<tr><td>1:00 PM</td><td>접수 및 등록</td><td colspan="3" rowspan="2">전 도 중 국 어</td></tr>
<tr><td>2:00 PM</td><td>개 회 예 배</td><td rowspan="2">선 교 영 화
(조별발표)
- 시 상 -</td></tr>
<tr><td>2:30 PM</td><td colspan="2">성 경 암 송
(OHP 이용)</td></tr>
<tr><td>4:00 PM</td><td colspan="2">중 국 어 찬 양</td><td>수 료 예 배</td></tr>
<tr><td>4:30 PM</td><td colspan="2">중국어전도실제
(매직, 글 없는 책, 싱글이 벙글이) 手. --- (실제표현)</td><td>선교
헌신의 시간</td><td rowspan="2"></td></tr>
<tr><td>6:00 PM</td><td colspan="2">집으로</td></tr>
</table>

장승원 그림

격월간

중국을 주깨로

1993.11/12 통권25호

운남 회족의 모습

발행인 칼럼
오병이어가 된 기쁨。**박성주 장로**/ *2*

말씀
예수에 미친 사람。 **김광덕 목사**/ *3*

특집/한。중 선교협정의 명암
협정문(協議書)/ *8*
한국。중국 교회간의 선교를 위한 친선 및 관계증진에 대한 제안。
강병훈 목사/ *10*
삼자원칙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한문조 박사**/ *13*
한。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김영주 집사**/ *17*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유관지 목사**/ *22*
중국선교, 과연 물꼬가 트였는가?。**왕쓰웨 전도사**/ *27*
한。중 교회협의회「협정문」의 주역들/ *32*

탐방, 스케치
만남과 이해。**석은혜 간사**/ *37*
선교의 대장정을 꿈꾸는 부산북교회/ *39*

세미나。연구
중국 이슬람을 말한다./ *42*
현대 지식인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 *50*
종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58*
儒家思想의 理解(1)。**조경현 박사**/ *64*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신앙/ *67*

현지소식
최근 중국의 농촌 현실과 문제。**강성광 선교사**/ *73*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돌아갑니다."。**주성지 선교사**/ *79*

인물。간증
중국기독교 인물소전。蔣中正/ *83*
중국에서 미국까지。李可/ *90*

선교상식
중국어로 찬양을。野地的花/ *95*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주님의 기도문/ *96*
중국선교 참고도서/ *98*
중국여행 상식。메뉴 읽는 법/ *100*

소식。기도
중국선교훈련원 소식/ *102*
최근중국동향/ *105*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11*
알림/ *113*
선교도서안내/ *114*

오병이어가 된 기쁨

중국어문선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린 지 어느새 4년이 되었다.

5년 전 중국학을 공부한 형제·자매 몇이 모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일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한 가지씩 떠올랐다.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임을 모두가 동감하였다. 사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렇게 몇 사람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할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셨다. 새로운 일을 하나씩 더해나갈 때마다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밀고 나가곤 하였다.

이제 만 4년이 지나면서 중국어문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온다. 사역이 확장될 때마다 그에 적합한 일꾼을 때맞춰 보내주셨다. 월말 결산을 끝내고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는 으레 빈손이 되곤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월말이 다가왔을 때는 어김없이 사역에 필요한 만큼 물질을 공급해주신 것을 확인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감격과 함께 때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 나같은 사람은 원래 남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하여 많은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격려해주시며 오늘까지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셔서 오천 명을 충족히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또 사용하셔서 중국의 12억(15억) 생명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기에 중국어문선교회의 동역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 중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오병이어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슴에 안고…….

박성주 장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예수에 미친 사람

김광덕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행 26:24~29)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허락하신 실로암 약수터 선교관에 오갈 때면 그 오가는 다섯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 10월 3일 개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자에 이런 글을 써 붙이고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자 뒤에는 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미쳤느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미쳐 사는지도 모릅니다. 요사이 현대인들의 언어 속에는 "미치겠네", "미쳤다"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미친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미친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이고 미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미친 세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갸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사납게 횡포를 부림으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돼지 떼 속에 군대 귀신을 넣어 쫓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덤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귀신들려 고통을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막 16:17)

세상은 우리를 교회에 미쳤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외칩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면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지 아니하냐? 스승과 주인되는 나 예수를 귀신의 집 주인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라."(마 10:25)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 즉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와 같지 않으면 미쳤다고 하기 일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의 죽음 앞에서 필사적으로 합심 기도하던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바울입니까? 그를 핍박하는 베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미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렵니다."하고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찬송부르는 이들이 예수께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값으로 산 내가 그 분을 위해 미치지 않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이보다 더 배은망덕한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쳤다고 조롱받을 뿐 아니라 또 미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3)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미친듯이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전 9:3)

예수 없는 자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무엇에 미친 자들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충만한 것이니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일이요 자신을 살필 일이지 주먹을 쥐고 돌을 던질 일은 아닌 것입니다.

1)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렘 50:38)

2) 세상 사람들은 금 잔에 담겨진 포도주에

미쳤습니다. (렘 51:7)

3)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미쳤습니다. (나훔 2:40)

4) 거짓 선지자들은 황금에 미쳤습니다. (벧후 2:16)

5) 살인에 미쳤습니다. (잠언 26:18)

세상은 온통 미쳐서 돌아갑니다. 돈에 미치고, 투기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기만 한 여가선용에 미치고. . . .

그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미쳐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안이요, 유일한 낙이 됩니다. 그러다가 건전치 못한 곳에 미친 사람들은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하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다른 데 미치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은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친 한 사람의 힘은 정상적인 사람 몇 배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예수에 미친 바울이 한 일은 몇천, 몇만 명의 크리스천이 한 일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친 세상을 고치려면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미치게 될 때 미친 세상을 고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즐기기 위해서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나무와 식물을 심는 데 사용되는 씨받이용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씨받이용 열매, 즉 예수를 닮고 자기 자신을 닮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나, 자신이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되는 일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향하여 "예수에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정신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울처럼 미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인정한 대로 학문이 깊은 사람이며 가말리엘 교법사의 수제자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12지파 중 양반에 속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언제나 양심적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도 열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3번 그의 확실한 "간증"이 나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 주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3: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모두가 그에게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0문도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장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전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씨종자"들이며 "금메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광덕/과천은파선교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역할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선교의 전문가들이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을 모든 족속, 방언과 민족에게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가는 선교사들은 보내는 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오늘 날 세상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철의 장막을 철거하셨고, 그 영향은 무신주의 국가로 유명한 알바니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은 중국, 남미와 아프리카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운동을 통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Youth With A Mission의 총무인 로렌 커닝햄은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은 연간 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1%씩의 성장만 있으면 세계의 모든 부족들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50여 개국의 1,3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선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시아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대위임령의 성취를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신도들을 보내는 자나 가는 자로 양육하고 동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 마지막 과업을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고통과 땀과 죽음까지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1890년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현재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복음의 증거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면 책 한 권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합1:5)

당신은 이 말씀을 믿는가? 오늘날 우리 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70,000명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 족속들이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 대위임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이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

니일 파일로/『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중에서

특집/ 한중 선교협정의 명암

지난 1993년 9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가
역사적인 선교협정문을 조인했다.
이 협정문 조인은 중국선교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교회와 헌신자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어떤이들은 앞으로의 중국선교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에서,
어떤이들은 우려어린 심정으로
각각 이를 환영하거나 염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한국어, 중국어 「협정문」과
양국 교회협의회의 대표 발제문을 싣고,
한국측 실무자인 KNCC 일치협력통일국 국장 김영주 목사의 글과
아세아방송국 이사 유관지 목사의 논찬의 글,
중국복음선교회 왕쓰웨 전도사의 「협정문」 분석문을 함께 실었다.
이 글들을 중심으로 「협정문」 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전망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건설적인 중국선교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특집을 구성했다.
아울러 양측의 주체인 KNCC와 CCC가 어떠한 단체인가를 함께 소개하였다.

협 정 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는 1993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남경에서 「한중교회의 연대와 선교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차 한중교회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양교회의 29명 대표가 참석한 협의회는 기독교공동체의 형제애와 우호적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성만찬으로 폐회되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에큐메니칼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1세기를 향한 선교를 위한 양교회 사이의 첫번째 협정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1.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의 과제이며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는 같은 동양문화의 유산 안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가운데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2. 양국교회는 지난 3년 간 발전시켜온 형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에큐메니칼 자원교류 학술교류활동, 목회자, 평신도, 여성, 청년, 학자, 학생, 기독교 사회활동가 등의 교류를 통해 좀 더 밀접한 관계와 협력을 모색한다.

3. 양국교회는 세계의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양국교회는 양국민의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에 있어서의 평화적 과정들을 지지한다. 양국교회는 친교, 평화, 화합의 증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인간, 모든 창조물 사이의 충만한 교통을 지향한다.

4. 일부 사이비 기독교 집단, 또는 개인들이 양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고, 더욱이 이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사이비 교리를 전파해온 것에 대해 양국교회는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양국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행위가 중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이 협정문의 원칙에 따라 정보교환,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양국교회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양국민과 국가의 우호증진,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과 번영, 그리고 양국교회의 일치와 세계교회의 일치의 증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다.

1993년 9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최희섭(崔禧燮) 목사	회장 정광훈(丁光訓) 주교
총무 권호경(權皓景) 목사	부회장 총무 심이번(沈以藩)주교
국제위원장 김준영 목사	부회장총무(국제)한문조(韓文藻)박사

協　議　書

中韓兩國教會合作事奉研討會於1993年9月7日至9日在中國南京舉行，取得圓滿成果. 雙方有29位代表參加。會議充滿了基督徒團契交通的友好氣氛，結束時舉行了聖餐禮拜。全體與會者都爲這次有歷史意義的教會之間的會議而深深感謝上帝。並一致通過了關於雙方教會走向二十一世紀的宣教工作的第一份協議書。

一. 宣教工作是上帝賦於我們雙方教會的共同使命，中韓兩國宣教工作的首要責任屬於各該國的教會。中國基督教協會和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都認爲，我們完全必須在共同的東方文化傳統中，以互相理解與尊重的精神，提倡伙伴關系，開拓合作領域。

二. 基於過去三年來已發展的友好關系，雙方教會期望在以下方面推進更爲親密的團契與合作，如教會之間的資源分享，學術交流活動，牧師，平信徒，婦女，青年，學者，學生和基層教會工作者的互相訪問等。

三. 雙方教會應努力推進世界和平，正義事業和維護上帝的創造；雙方應致力並支持兩國人民爲追求民主，人權和自決的和平進程。爲了提倡團契，和平與和諧，雙方教會爲朝鮮半島的重新統一獻上了祈禱，從而指向了在上帝國度的榮耀中，與上帝，人類以及全部創造相交通的應有的完善。

四. 雙方教會遺憾地注意到，某些基督教團體或個人正在從事於分裂雙方教會的活動，甚至發展到散布異端邪說,使一些基督徒走上了歧途的地步。雙方認爲這些活動是不正當的，應當予以制止。

根據本協議的這些原則，中國基督教協會與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應每年舉行會議，以互通信息，對相互之間的事工進行計劃與總結。雙方教會應仰靠我主的恩惠. 致力與教會，人民與民族之間的團結，也應致力與各自國家的持續發展與繁榮。

一九九三年九月九日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中國基督教協會

한국·중국 교회간의 선교를 위한 친선 및 관계증진에 대한 제안

- 동양문화권 안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

강병훈

중국의 명소 남경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한·중 교회의 협의회를 개최하게 됨을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광훈 주교님(丁光訓 主教) 그리고 경애하는 중국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가 문안을 드리며 유서 깊은 이곳 중국의 명소 남경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한·중교회의 협의회를 개최하게 됨을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한국교회측을 대표하여 주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고도 운명적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 한국동란의 발발로 오랜 세월 양국의 관계는 피차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던 어리석음이었음을 역사의 교훈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탈 냉전시대를 맞아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므로 공생공존하는 새시대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난날의 과거에만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말미암아 전세계는 한국과 가까워졌고 한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수립은 양국가와 국민간에 축하할 21세기였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기뻐할 거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크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1년 2월 호주 캔버러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7차 총회에서 중국교회가 WCC의 정식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본인은 감격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연유였든지간에 중국교회들과의 유대관계가 소원했던 일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이제 중국교회가 WCC에 가입하게 되어 중국교회는 세계교회에 큰 비중으로 공헌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한·중교회 관계는 1991년도 5월 20일~30일까지 한국의 6개교단 교회 대표들이 중국교회를 공식 방문하여, 선교협력과 연대관계를 협의한 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중국교회지도자 초청(1992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의 공식방문)으로 거의 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양국교회 관계가 타개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교회간의 상호관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합의문에 서명했음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1. 중국기독교협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깊이하기 위해 양측의 목회자, 평신도, 청년, 여성 등의 상호 방문을 공동으로 추진합

니다.

2. 중국기독교협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상호 협력 사업에 관한 계획과 평가를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의 장소는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여 1993년의 첫 모임은 중국에서 열릴 것입니다.

3.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는 양교회가 처한 특정상황에서 지닌 선교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서로 존중하고 양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발전하도록 함께 일해 갈 것입니다.

1992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호경 목사(서명)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총무 웬이관 주교(서명)
상임 부회장 한웬자오 박사(서명)

이상의 가합의문에 따라, 1993년 오늘 이곳 중국의 남경에서 양국의 교회 대표들이 모이게 됨은 큰 진전과 성실한 합의론 이행입니다.이기독교 신앙의 열렬함은 기독교 전파 이래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역사에 유래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급성장으로 현재 남한에 4만의 교회와 1,200만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능력과 선교 열의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선교 사역에 앞장서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는 하나님이 주신 한국 민족과 한국 기독자와 교회의 지상의 사명으로 확신합니다.

2천년대와 2천년 이후에 한·중교회가 선교를 위해 공동연대, 협력할 때 기독교의 이상이 아시아와 온 세계에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독자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우리들의 '절대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이상 입니다. 곧『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류사회, 곧 신앙과 사랑의 생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에게는 희생적 사랑을 실현하므로 정의와 자유, 사랑과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리라 여겨 기쁠 따름입니다.

이제 7년 후에는 서기 2000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세계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중국과 12억의 중국 국민들, 더욱이 중국 교회는 지난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대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계인구의 2/3가 아시아에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영토적 광활함과 12억(15억)의 무한한 인구, 그리고 근면성실함, 인내와 지구성, 대국의 아량과 과감한 개혁과 변화는 세계역사의 주역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비록 반도의 남북인구가 7,000여 만에 불과하나 한국민의 근면성, 자주성, 인내성, 그리고 독창적 노력이 어우러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중과 평등한 삶을 누리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건전한 이상사회란 인간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정치세계와 인간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제적 정의실현과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만인이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창조적이고 생동적이며 희망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문화차원이 균형잡힌 사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양국의 기독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인류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학자의 말에 의하면 환태평양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습

광대한 영토적 광활함과 12억(15억)의 무한한 인구, 그리고 근면 성실함, 인내와 지구성, 대국의 아량과 과감한 개혁과 변화는 세계역사의 주역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적 토대 위에 양교회는 굳게 서야 할 것이며 오랜 우리의 유산과 전통적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불변의 신앙고백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니다. 한국과 중국은 환태평양 시대에 주역의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양국교회는 그 도래하는 새시대에 정신적, 영적 주축을 이룩해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양교회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 증진과 친교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들의 공동적 신앙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천년 기독교회 역사에서 만인의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ONE), 거룩한 교회(HOLY), 공동의 교회(CATHOLIC) 그리고 사도계승적 교회(APOSTOLIC)이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토대 위에 양교회는 굳게 서야 할 것이며 오랜 우리의 유산과 전통적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불변의 신앙고백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WCC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의 교회의 선교는 1. 복음선포(KERYGMA), 2. 친교(KOINONIA), 3. 봉사(DIAKONIA)라고 정의했습니다. 양교회는 이와같은 공통의 선교의 터전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2천년 간의 긴 교회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그 때, 그 시대에 따라 교회상이 변천된 것을 보게 됩니다.

- 기독교 박해시대였던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 기독교가 공인되어 종교개혁시대까지는 중세 기독교시대로 기독교 문화 창달로서 '기독교 왕국건설'에 전력했습니다.
- 종교개혁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과 '교회갱신'에 전력했습니다.
- 19세기에 이르러 '기독교 복음의 지상확장'을 교회의 지상과업으로 전력해서 세계 도처에 복음선교를 주력했습니다.
- 오늘 20세기에 이르러는, 인간의 구원과 사회구원 즉 '총체적 전인 구원'을 중심으로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지상 과업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시대에는 모든 교회가 개인의 영적 구원과 함께 사회구원으로 총체적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참 인간화, 사회의 개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 중국이 현재 중국의 역사적 상황에 적절한 3자 교회정책(자치, 자양, 자전)을 선교정책의 주제로 삼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중교회 협의회는 첫번째 협의회입니다. 한 걸음으로 멀리 뛸 수는 없습니다. 불변하고 원대한 양국교회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선교 동역자로서 동양이라는 같은 문화권에서 금번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다가오는 2천년대에 양교회는 세계선교에 공동 노력함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
2. 적극적인 선교정책으로 양교회간에 이해 증진, 친교,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합시다.
3. 세계교회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개발에 최선으로 협력합시다.
4. 중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위해 양교회는 서로 적극 지원하며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양국민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킵시다.
5.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양교회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합시다.

금번 회기 동안에 인간의 지각에 넘치는 성령의 지혜로 역사적인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병훈/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삼자원칙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중국교회 한문조 박사 연설

중국교회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중국교회를 건립하려면 독립 자주는 하나의 필연적인 조건이 됩니다.

저는 이번 중·한 양국교회 연구토론회에 참가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 집행장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중한 양국교회 협력 봉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표하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유산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교훈과 말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라. 또 내가 너희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수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역시 심각하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이며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3:7~8)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려면 사도 몇 사람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각지방 교회가 일치하여 합심협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이 사명을 떠맡았습니다.

초대 교회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현재도 의연히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기독교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요 특징입니다. 더 말할 필요없이 중한 양국교회는 이 관점에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다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립과 독립자주

중국교회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중국교회를 건립하려면 독립 자주는 하나의 필연적인 조건이 됩니다. 중국 기독교인은 중국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어 들어온 동시에 서방 식민주의 침략세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

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문을 시종 열 수 없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여러 차례 반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족자존심이 있는 중국인민들은 교회가 "양교(洋教)"인 것을 보았고 이런 기독교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긴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에서는 서방선교사들이 파견을 받고 경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봉사하는 중국 사람은 그 숫자가 특이하게 적었습니다. 백여 년 남짓하는 노력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에 중국에 교인은 70만밖에 안되었습니다.

독립자주가 우리 중국 기독교회에 나타나는 형식은 "3자(三自)" 즉, 자치, 자양, 자전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중국교회가 생존하고 뿌리를 조국대지에 내리고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3자 원칙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각국, 각지방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상호 지체가 되며 피차 연결되어 평등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나 교회는 저절로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위에 놓여서 다른 교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빌립보 신학박사는 인도와 기타 제3세계 국가 교회역사 경험을 총괄한 후 말하기를 "하나의 국가 교회는 절대로 외국교회 선교지도사상의 한 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50,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서방교회가 알게 된 것은 모교회, 자교회의 관계는 마땅히 같은 동료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자"는 선교운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방선교사들이 복음을 중국에 전하여 들어온 것은 그들이 중국에 행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후 예전에 중국선교를 하신 선교사들 가운데 다시금 중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교회의 부흥을 보고 "3자"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고무와 격려가 됩니다.

3자를 준수하는 것은 절대로 자아고립이 아닙니다. 한 개의 자기고립적인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몸을 떠난 지체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으며 건실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간 상호의지 한다는 것은 매개지체가 독립적인 조건하에서만 이룩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한 양국교회는 아주 많은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필수적으로 因地制宜(인지제의)되어야 한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곧 바로 인지제의, 다시 말해 자기 땅에 주체적으로 알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교회가 근 40여 년의 경험으로 얻은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일체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각 사람의 수효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역시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각

독립자주가 우리 중국 기독교회에 나타나는 형식은 "3자" 즉, 자치, 자양, 자전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중국교회가 생존하고, 뿌리를 조국대지에 내리고 발전하려면 필연적으로 3자 원칙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湖北省 武漢에 있는 기독교 무창당교회

"한국의 교회는 현대화 선진기술의 조건이 있음으로 이것을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회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습니다."

각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근 20-30년 이래 한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은 아주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매우 빠름으로 어느 국가도 비할 바 못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현대화 선진기술의 조건이 있음으로 이것을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회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 의거하여 그들이 사업을 하는 곳 어디에서나 인근 동네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면서 더욱 널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방문오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미국에서는 우리들 마음대로 광장에서 몇만 명 규모의 부흥집회를 하지만 당신들은 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방송국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국이 두 개 있고 전자 교회가 있지만 너희들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말씀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다만 나로 하여금 조금 부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중국교회에 맡겨진 주님의 일에 대하여 자포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서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중국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당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문화대혁명(1966~1976)때라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교회당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저의 믿음이 일시적으로 연약해졌습니다. 제가 착각하기를 이후로는 중국에 다시금 유형의 교회가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은 단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979년부터 중국에서는 두 달마다 3개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중국의 남경에 현대화 설비를 갖춘 애덕 인쇄공장을 하나 세우고 우선적으로 성경과 기타 종교 간행물을 출판합니다. 한 달 후가 되면 단 한 개의 인쇄공장에서 600만 권의 성경을 인쇄해 냅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 100만 권이고 금년 성경인쇄 계획은 160만 권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성령이 친히 이 땅위에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합심협력하여 서로 존중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서 어떠한 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전 3:1~7, 고후 4:5).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호 공격한다면 복음전파에 큰 치욕으로 됩니다. 교회 역사상 발생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찰해야 합

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중국 교회에서 종파(교파)는 이미 지나간 시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종파(교파) 배경이 있는 신도들이 합심협력하여 복음을 증만케하고 우리는 신앙과 예의에서 피차 존중하는 원칙을 찬양합니다.

무릇 이런 원칙이 잘 관찰되는 지방의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고 무릇 이 원칙이 잘 관찰되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교회 내에 곧 분쟁이 일고 심지어 갈라집니다.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해외교회와 교회단체가 중국교회와 관계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것과 합당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WCC의 1987년 실행위원회가 결의한 "...WCC의 중국교회에 대한 일은 필수적으로 중국기독교협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신이종(信以宗) 세계연맹 IWF 1986년의 집행위원회가 결의한 "...중국기독교의 3자원칙을 존중하고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 등입니다.

편집자주: 앞에 실린 중국측 주제발표와 위 한국측 주제발표는 1993년 9월 9일 한중 양국교회의 대표 발제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출판물인 『교회와 세계』(1993.9·10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허락을 얻고 실었다.

한•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

김영주

제1차 한•중 교회협의회가 지난 9월 6일~16일까지 중국 난징에 있는 금릉신학교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문을 조인하였다.

「협정문」 조인

제1차 한•중교회협의회가 지난 9월 6~16일까지 중국 난징에 있는 금릉신학교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문을 조인하였다. 본래 이 협정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 협정문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번역되어 채택되었으므로 번역상의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일부 중국 삼자회나 중국기독교협회를 사시로 보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는 몸부림의 노력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점을 그들의 간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동서독 교회가 분단 전보다 분단 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수용해 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한•중 양교회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자라온 만큼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우선 협정문은 모두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국의 선교책임
(2) 교류
(3) 정의, 평화, 창조, 질서보존
(4) 사이비 교리 반대

양국교회는 이런 원칙하에서 서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문」 조인 경위

이 협정문을 합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간의 상호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2월 중국교회의 WCC복귀를 신호로 중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교회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 교단 대표를 공식초청하였고, 1992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중국교회대표가 한국교회를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 곧이어 1993년 2월 NCC회장단이 중국방문이후 4월 정광훈 주교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련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신뢰를 쌓게 되고 중국교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시(1992.8.15)한중교회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근거에 의해 제1차 한중교회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협정문」조인의 역사적 의의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사이에 맺어진 이 협정문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의 한중양국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바요, 양국교회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양국교회간의 협정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 맺은 교회간의

협정은 자본주의권의 한국교회와 사회주의권의 중국교회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없다고 말해질 만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 선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중국도 이런 선교의 관심지역으로 많은 교회나 개인이 선교에 종사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

양국 교회간의 협정은 자본주의권의 한국교회와 사회주의권의 중국교회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교회의 입장

한중교회협의회시 중국기독교협회의 부회장인 한웬자오(韓文藻) 박사의 발제를 살펴보면 중국교회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1)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2) 불행히도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어 올 때 서방 식민주의 침략세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관계로 19세기와 20세기에 여러차례 반종교운동이 있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 중국에 교인은 70만밖에 안되었다. 역사적인 경험은 중국교회에 독립자주(자치, 자양, 자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3자 운동(자치, 자양, 자전)은 선교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인지제의(因地制宜), 즉 자기땅에 주체적으로 알맞아야 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4) 복음을 전할 때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교회에서 교파(종파)는 이제 지나간 시기의 일이다. 수많은 교파(종파)배경이 있는 신도들이 합심, 협력하여 복음을 충만케하고 신앙과 예의에서 피차 존중하는 원칙들을 찬양한다.

국제 관계에서 많은 해외 교회와 교회단체가 중국교회와 관계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것(고전3:1~7, 고후4:5)과 합당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5) 한중교회 협력봉사는 무척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신뢰를

중국 어느 삼자신학교에서 기독교인 및 신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성경책과 신앙서적.

오랫동안 멀리 있던 중국에서 같은 민족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화 해야겠다는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 조선족들도 엄연히 중국민이며, 조선족 교회 역시 중국교회의 하나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지고 일종의 특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동북신학원의 건립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생명력이 있고 목회경험이 풍부한 한국교회는 배울 바이다.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한 것에도 배울것이 많다. 한국교회는 이단교파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단교파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만연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로 인하여 갈라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방식

이상에서 중국교회의 입장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입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간 우리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 방식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주의권에서 성장해 온 중국교회의 존재를 인정해 왔는가?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라는 렛델을 붙혀 놓고 엄연히 존재하는 교회의 실체를 무시하고, 다분히 순교자적(?)으로 우리들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 선교의 방식이 너무나 물량적이지는 않는가?

중국과의 경제적 차이, 환율 등이 경제적 부담이 적다. 이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선교 대상자들의 종속을 불러일으키고,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게 되지는 않을지?

(3) 선교가 조선족에게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오랫동안 멀리 있던 중국에서 같은 민족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화해야겠다는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 조선족들도 엄연히 중국민이며, 조선족 교회 역시 중국교회의 하나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한중교회가 균형잡힌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조선족과 한(漢)족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없는지?

(4) 너무 감상적이지는 않는지?

한국교회는 중국 사회속의 중국교회를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와 관계가 없었던 중국, 그 중국은 얼마나 변하고 있고, 또 이 변화의 관계는 무엇인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이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경쟁적 선교열정은 그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5) 중국선교가 경쟁적이지는 않은지?

교파, 단체, 개교회가 사전 조율없이 행하고 있는 선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경쟁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선교는 조선족 교회를 갈라놓고, 중국교회 당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협력해서 지혜롭게 선교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한다면 건강한 한중교회협력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협정문을 한국교회 모두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차근히 손질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서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1) 이번 협정문을 가지고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교단, 단체, 개인 모두들이 함께 모여 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효과적인 한중교회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3) 한국교회가 서로 성실한 합의와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중교회 협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질의와 응답

문: 중국에서 우선 삼자원칙과 교회 관리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선교협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답: 솔직히 중국의 종교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삼자원칙은 원칙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상과 내면이 다를 수 있으나, 나의 소견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논쟁 자체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교회가 갖고 있는 현상의 어떤 것이 옳을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한다.

문: 한국의 KNCC와 중국의 CCC가 선교협력을 어떻게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답: 보이는 중국교회와 성실하게 노력하며 교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혹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잘못된 점은 피해 가면서 중국사회에서 중국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영향력을 가지고 중국교회를 자리잡아 가게 하는데 보완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교회는 정말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어한다. 그들의 신학교 수준은 너무도 낮은 현실이다. 신학교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고 중국인 2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위해 신학자를 파송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생이나 목회자 등의 교류를 통해 중국교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문: 협정문 가운데 '사이비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용어가 중국측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아울러 처소교회와의 교류에 대해서 KNCC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들과 어떻게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답: 사실 이 항은 협정체결에 있어 우리측이 난색을 표명했다. 반면에 중국측은 이 항의 채택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이비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 다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점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중국측의 요청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채택했다. 바라기는 이 조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주기 바라며 확대해석을 말아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해석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느낀다.

또 처소교회에 관해서는 처소교회가 중국에서 점차 발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또 중국측과 합의만 된다면 서로 분담해서 처소교회와 교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교회가 지금까지의 비공식적 접촉과 개별적 접근만을 고집할 것이 아

한국교회는 협정문을 한국교회 모두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차근히 손질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서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니라 종합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교회가 협력보완하는 자세로 교류의 합법적 공간을 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고 개방돼 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며 선교에 제한이 있는 나라임을 기억해 달라. 여기에 필요하다면 KNCC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 협정문에는 상호교류, 협력하며 정보교환을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다. 아직도 현실적으로 선교에 보안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선교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 아닌가? 그 보완책은?

답: KNCC를 잘못 이해하는 듯 싶다. KNCC는 독재정권과 싸운 경험이 있는 단체다. 우리가 중국기독교협회와 논의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정보를 절대 팔아넘기지는 않는다. 믿어달라.

김영주 목사/KNCC, 일치협력통일국 국장

* 이 글은 1993년 11월 1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최한 "한 • 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이라는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과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

유관지

제가 오늘 이 논찬 순서를 맡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KNCC가 중국 교회와 맺은 협정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인데 KNCC라고 하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도전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단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KNCC가 하고 있는 북방 관계 일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인사들을 '아직도 반공신학(反共神學) 차원에 머물어 있는 유치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김영주 목사님은 저와 같은 교단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강성(强性)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면 잘못하다가는 제가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겠기에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저는 중국 선교의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는 뒤편에서 묵묵히 일할 때 제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논전(論戰)같은 데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 대로 피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한 실무자의 처신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한중 수교가 이뤄진 다음에 한국에 상주하거나 왕래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국 선교 종사자나 단체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던 긴장을 이제는 한국의 중국 선교 종사자들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 4조를 보면 "일부 사이비 기독교 집단, 또는 개인들이 양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고 더욱이 일부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사이비 교리를 전파해 온 것에 대해 양국 교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이비 기독교 집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이단 종파들, 예를 들면 최근에 '시월복음파(十月福音派)'라는 이름으로 중국에도 많은 피해를 준 다미선교회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일까, 혹시 중국의 삼자교회보다는 비공인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중 수교가 이뤄진 다음에 한국에 상주하거나 왕래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국 선교 종사자나 단체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번째는 KNCC가 굉장히 수고를 해서 이같은 협정을 맺었는데 이러쿵 저

KNCC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KNCC를 통일된 창구로 해서 중국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러쿵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어문선교회의 첫번째 연락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사양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수고에 대해, 중국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깊은 경의와 부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두번째 부탁을 해 왔을 때도 사양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협약을 맺기 위해 KNCC에서 많은 수고를 한 가운데 특별히 김영주 목사님께서 실무를 맡아 노심초사하신 일을 치하드립니다. '엔쭈 엔쭈 만만디'(研究研究慢慢的 : 생각해 보며 천천히 합시다)의 중국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같은 협정을 맺기까지는 애로가 적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번 협약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면 중국 복음화의 진보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김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나와 겸손한 자세로 좋은 발표를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 자신 사실 좀 강한 내용의 논찬 원고를 준비했었습니다만 김목사님의 겸손한 발표를 들으면서 부지런히 수정을 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왔으니까 가는 말도 고와야 했기에 말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영어를 공용어로 해서 회담을 하고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협정문은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 세 언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항의 '민주주의, 인권'이런 용어들을 중국 교회가 과연 거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먼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이번 협약은 한국 교회 전체와 중국 교회 전체의 협약이 아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영문 약칭으로 KNCC와 CCC간의 협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협약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김 목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KNCC가 한국 교회의 대표권을 주장할 자격도, 의사도 없다고 밝히셨습니다만 협정문 제1항에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KNCC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KNCC를 통일된 창구로 해서 중국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KNCC가 과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CCC가 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공식 교회기구들은 외부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둘째는 어용이고 사이비이며 전시용 기구라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둘을 종합하여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지만 성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진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CCC나 북한의 기독교도연맹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통성에서, 그리고 숫자면에서 중국의 CCC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너무나 큽니다.

중국의 공인교회 지도자들은 중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600만 내지 700만 내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문의 서명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인 CCC 총무 한문조(韓文藻) 박사는 몇 해 전에 중국 공인교회 간행물인 『天風』에 "중국의 개신교인 숫자는 분명히 300만 명인데 - 당시는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 일부 해외의 무책임한 인사들은 무슨 근거로 5천만이다, 6천만이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강경한 내용의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수천만 명인 것은 이제 거의 공인된 사실입니다. 공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국가통계국도 중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1억이라는 자료를 흘린 일이 있습니다. 중국기독교협회에서 주장하는 6,7백만 명과 실제 숫자 5,6천만 내지 1억은 등록교인과 비등록교인의 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CC는 겨우 몇십 분의 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주일날 중국 삼자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국 크리스천들.

이런 논리에 대해서 KNCC는 몹시 화를 낼줄로 압니다. KNCC의 대표성 문제가 나올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KNCC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 숫자나 그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NCC는 역사성과 우수한 인재들과 인권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공헌과 국제적인 유대를 가지고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정광훈(丁光訓) 주교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기는 하지만 CCC에 그런 역사성이나 공신력이 있는가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협정은 한국 교회 전체와 중국 교회 전체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고 KNCC와 CCC간에 맺어진 것이라면 1항의 전반부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의 실효성(實效性)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협정문의 문안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양국 교

중국의 CCC나 북한의 기독교도연맹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통성에서, 그리고 숫자면에서 중국의 CCC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너무나 큽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WCC를 통로로 한 KNCC와 CCC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때문에 비공식인 교회쪽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있습니다.

회'라는 말은 마땅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국기독교협회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 또는 개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4항의 '일부 사이비 기독교 집단, 또는 개인들이...'에서 '사이비 집단, 또는 개인'의 성격과 범위를 중국 교회와 협의해서 추가로라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교회에서 발표한 각종 문건을 참조해 보면 이 말은 오히려 양심적으로 중국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왔기 때문입니다.

일제 말기에 교회 공식 기구 - 예를 들면 장로교 28차 총회에서 - 신사참배를 가결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교회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지탄받은 일이 기억나는 것은, 글쎄요 과민(過敏)일까요?

유익한 협정이지만 비공인교회의 소외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협정은 많은 유익을 한국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공인교회와 비등록교회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NCC가 배포하는 중국 관계 보도 자료에는 중국의 비등록교회를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지하 교회는 없다. 지하 교회라는 말은 선교비를 우려 내려는 인사들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서 중국 선교 실무자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한 일까지 있는데 그것이 KNCC의 진심이고 중국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라면 우선 이 논찬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는 내용은 복잡하지만 분명히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권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곤혹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인교회와 유대를 가지면서 비공인교회를 지원한다". 이 공식은 공인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인교회의 공헌과 효용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KNCC가 중국 공인교회를 대표하는 양회(兩會: 삼자와 기협) 가운데 하나와 이같은 공식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유대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이 협정은 우려되는 점들도 안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가 이뤄졌을 때 한중수교와 중국 선교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한중 수교가 중국 선교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들과 함께 역기능도 검토되었는데 예견되는 대표적인 역기능이 공식 채널이 마련되었으니 공인 기구들에 의한 공식적인 접촉, 구체적으로 말해 WCC를 통로로 한 KNCC와 CCC의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때문에 비공인교회쪽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오는 중국 신자들의 편지 가운데는 그같은 소외감이 표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협정이 그같은 일을 확대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CCC의 지위 향상, KNCC의 신뢰성과 중국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

특별히 이 협정의 3항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CCC가 이같은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젊은이들의 모습.

다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협력 문제가 우회적으로라도 표현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교회의 대표단이 북한 교회를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

3항에 명시된 평화, 정의, 창조질서 보존, 민주주의, 인권 등이 KNCC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실제라는 점에서 이런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이 협정의 2항 내용 역시 대단히 반가운 것입니다만 중국의 기본적 종교정책인 삼자(三自)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산만한대로 말을 맺어야겠습니다. KNCC는 이 협정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영주 목사님께서도 중국 교회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이 그저 사명감을 가지고 이 협정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KNCC 관계자들의 중국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정말로 빈약합니다. 한 예로 KNCC가 배포하는 중국 교회 관계 보도 자료에는 인명이 틀리게 나오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기자들이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하고서 보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KNCC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혹 협정의 자세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례가 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NCC는 이 협정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지 목사/아세아방송 이사, 제주본부장

* 이 글은 1993년 11월 1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최한 "한 • 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대해 논찬한 것이다.

중국선교, 과연 물꼬가 트였는가?

한·중 교회협의회의 「협정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왕쓰웨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 하여 각국에서 진행되는 선교 행위와 활동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책임이라 하고 있다.

「협정문」에 대한 엇갈린 반응

1993. 9. 7 ~ 9일까지 중국의 남경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가 「한중교회의 연대와 선교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차 한·중교회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한·중 양교회의 협력문제, 동북신학원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 중국 내에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협정문」이 체결돼, 중국선교를 하는 이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게 하였다.

이 「협정문」의 체결에 대해 한국의 많은 기독교 언론매체들은 "교회교류 '물꼬'텄다," "선교 가속화 기대", "한·중교회-동반자시대" 등의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부 중국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협정문」의 체결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갖다줄 영향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KNCC와 중국의 CCC 사이에 맺은 「협정문」은 그 구성에 있어 서론, 네 개의 협정사항, 맺음말, 협정날짜, 그리고 양측의 대표자 각 세 명의 이름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협정문」은 어떤 내용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선교의 개별적 책임 문제

1.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의 과제이며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는 같은 동양문화의 유산 아래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가운데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제1항에서 KNCC와 CCC는 선교란 하나님께서 양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의 과제라 하여 선교가 교회의 과제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것임을 확신한다"하여 각국에서 진행되는 선교행위와 활동은 각국의 교회협의회에 속한 책임이라 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선교 책임과 선교에 관한 모든 일은 KNCC에 속한 것이요, 중국의 경우는 CCC에 속한 것이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논조는 중국의 삼자교회 지도자들의 일관된 입장으로서 새삼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다.

1980년 10월 6일 남경에서 열린 중국기독교 제3차 전국대회에서 삼자회의 주석 정광훈은 "우리는 전세계에게 선포한다. 중국 국내의 교회사업과 선교사업은 우리 중국 교회의 주권과 직책이며, 국외의 사람, 어떠한 피부색깔을 지녔드라도 중국 기독교 당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누구도 함부로 국내에 대한 어떠한 선교성격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교회"와 "중국

기독교 당국"은 삼자회측(CCC 포함)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CCC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서의 선교의 개별적 책임"이라 할 때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선교행위의 "주권" "주체" "직책" "세부활동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로서 중국에서의 선교적 주권 직책과 책임은 CCC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KNCC가 한국에서의 선교의 주권, 책임을 지닌다 라고 하게 된 셈인데 이는 과분한 주장이며 KNCC가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다.

"공식"교류 활동으로서의 선교

2. 양국교회는 지난 3년 간 발전시켜 온 형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에큐메니칼 자원교류, 학술교류활동, 목회자, 평신도, 여성, 청년, 학자, 학생, 기독교 사회활동가 등의 교류를 통해 좀 더 밀접한 관계와 협력을 모색한다.

KNCC와 CCC와의 공식교류의 시작은 1991년 2월 호주 켄버러에서 개최된 제7차 WCC대회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간 양측의 대표단들의 공식방문이 이루어졌고, "공식" 교류와 활동도 여러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제2항에서 양국의 교회는 여러 교류를 통해 "좀 더 밀접한 관계와 협력을 모색한다."라 하고 있다. 이는 즉 "공식적"교류를 말하고 있는데 CCC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선교"란 CCC와의 "공식적" 교류로서의 활동만을 가리키고 있으며 "공식적" 교류만이 "합법적" 선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이런 "공식적" "합법적"교류도 KNCC와 CCC의 채널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를 "공식적", "합법적"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교류"에 국한시켜 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2항의 협정문을 통해 이 이후 KNCC와 CCC와의 공식교류는 더욱 빈번하고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며, CCC는 한국교회가 KNCC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방식을 모색하길 원하고 있다. 결국 이는 중국선교의 창구의 "단일화"를 은연 중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의 역할문제

3. 양국교회는 세계의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존의 증진을 위해 노력

제2항의 협정문을 통해 이 이후 KNCC와 CCC와의 공식교류는 더욱 빈번하고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며, CCC는 한국교회가 KNCC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방식을 모색하길 원하고 있다.

임헌고 선생이 목회하고 있는 광주의 대마참교회 (가정교회) 들어가는 입구

일반적으로 삼자교회가 중국 내의 어느 기독교 집단에 대해 "이단"이라고, 판정할 때 "신앙적", "교리적" 판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한다. 양국교회는 양국민의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에 있어서의 평화적 과정들을 지지한다. 양국교회는 친교, 평화, 화합의 증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인간, 모든 창조물 사이의 충만한 교통을 지향한다.

제3항에서 "세계의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함은 KNCC와 CCC가 WCC의 회원으로서 제7차 WCC대회 때 제시된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의 보존" 실현에 대한 의지와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KNCC가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에 대한 노력과 공로는 지대했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모색과 행동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C의 지도자인 삼자교회 인사는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 등에 대해 늘 당의 노선과 지도를 따라야 하므로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의사표명과 행동은 제한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9년 「6.4 유혈진압」 전, 정광훈 등 일부지도자들이 학생운동, 반부패, 민주요구에 대한 일련의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6월 4일의 유혈진압과 정부의 강경입장, 노선에 대해 6월 27일 지지표명을 했다. 이는 CCC지도자들의 민주주의 인권, 자주실현에 대한 실천행동의 국한성,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 부분에서 KNCC는 CCC가 북한교회와의 교류와 그에 따른 여러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협정문」은 단순한 한국과 중국교회의 교류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남,북한 교회의 교류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이번 「협정문」 체결에서 보여준 KNCC의 일치협력통일국 국장 김영주 목사의 숨은 노력에서 그런 의지와 지향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사이비 집단"의 행위와 이에 대한 중지 노력

4. 일부 사이비 집단, 또는 개인들이 양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고 더욱이 이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사이비 교리를 전파해온 것에 대해 양국교회는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양국교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행위가 중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중 적지 않은 선교활동이 중국정부와 삼자교회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92년에 한국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 집단이 중국의 연변, 상해, 광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수재림」 소동을 일으켰고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도 낳았다.

제4항에서 언급된 소위 "사이비 기독교 집단"은 한국의 사이비 기독교 집단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들이 양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 집단이 사이비였으며, 무엇이 "사이비"이며 "사이비"와 "이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일반적으로 삼자교회가 중국 내의 어느 기독교 집단에 대해 "이단"이라고, 판정할 때 "신앙적", "교리적" 판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삼자측에서 어느 기독교 집단이 "기독교를 빌미로 반혁명 선전", "당, 정부를 반대하는 언론", "신도를 선동하여 삼자를 반대하는 행위"(예를 들어 "삼자는 대음부(大淫婦)" "삼자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다" 등에 대한 선전)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래서 CCC가 "이단"을 판정할 때 그 집단의 "반신앙적" 요소뿐만 아니라 "반당", "반국가", "반삼자"적 요소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호함파와 중생파에 대한 이단 판정이 그러하다)

사실 협정문 제4항에는 "사이비가 곧

이단이다"라는 말도 없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CCC측이 이단과 사이비를 동일시 하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힘들다. 만약 CCC측에서 사이비 판단을 이단 판단과 같이 한다면 즉 "사이비"를 "신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의 하나인 "삼자를 반대"하는 이유에서 판단한다면 그 문제는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CCC는 자의(自意)적인 판단에 의해 어느 기독교 단체가 "삼자운동에 참여치 않고", "삼자지도자를 반대한다" 하여 사이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항에는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행위"인 사이비 기독교 집단의 행위가 중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CCC와 더불어 KNCC는 중국선교를 하는 소위 "사이비 기독교 집단"에 대해 제재, 대처, 타격 등의 행동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KNCC와 CCC의 연례회의

협정문의 결론부분에 KNCC와 CCC는 "이 협정문의 원칙에 따라 정보교환, 상호협력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한다"라 하였다. 이 연례회의는 KNCC와 CCC 사이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협력 확대라는 면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의라 여겨진다. 그러나 "협정문 원칙"에 따라 "정보교환"에 대한 계획과 평가도 함께 진행되기에 이 "정보교환"이 지니는 여러 의미와 실제 업무에 대해 사뭇 궁금한 점이 있다. 사실 KNCC는 CCC의 요청을 받아 한국기독교의 여러 상황과 소위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특히 중국선교에 관련된)을 "정보교환"의 명목으로 CCC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협정문」에 대한 평가

한·중수교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선교의 가능성에서 볼 때 KNCC와 CCC 사이에 맺은 「협정문」은 적지 않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협정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첫째, 한, 중수교로 말미암아 점차 확대화, 다원화, 다양화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행위에 대해 「협정문」은 중국선교를 "공식적인", "합법적인" 선교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 즉 중국선교를 KNCC와 CCC를 통해 하는 "공식적인" 선교쪽으로 지향하고 있고, 선교창구의 '단일화'를 암암리에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중국선교가 잘못됐고, "합법적인" 중국선교를 지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CCC 당국을 통해서 전개되는 "공식적인" 선교만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것은 안된다는 논리와, CCC를 통해서 하는 선교만이 "합법적인"선교라고 규정한 점이다. 이 점은 「협정문」 제1항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중국의 CCC는 중국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그들의 전유물로 여겨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기독교 선교의 주권과 주체는 성령이기에 그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의 선교의 주권과 주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성령의 주권과 주체를 빼앗는 행동인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행위이다.

둘째, 막을 수 없는 한국교회의 대 중국선교에 대해 「협정문」은 공식적인 "교류활동"으로 못박음으로써 선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협정문」 제2항은 공식적인 "교류활동"이외의 어떤 선교행위와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교회의 소위 "공식적인" 중국선교는 CCC를 통한 교류와, 지역(특히 북경과 조선족 거주지역) 삼자교회와의 협의를 통한 물질후원과, "제한된 범위"에서의 설교, 지도자 훈련 사역, 그리고 의료, 교육, 사회사업을 통한 사역 등이 있다. 이런 "공식적인" 사역은 지속되야 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류활동"과 "공식활동"만이 중국선교의 모두라 해서는 안되고 그런 범주 속으로 중국선교를 국한시켜서도 안된다.

현실적인 중국은 대다수의 한족과 조선족을 제외하고라도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동북지역과 대도시가 아닌 기

"협정문 원칙"에 따라 "정보교환"에 대한 계획과 평가도 함께 진행되기에 이 "정보교환"이 지니는 여러 의미와 실제업무에 대해 사뭇 궁금한 점이 있다.

중국선교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든 "비공식적인" 루트로 진행이 되든지, 또는 삼자교회 혹은 독립적 가정교회와 관계를 맺든지 간에 중국교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고, 중국인 자주적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타지역과 농촌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기독교의 주류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 삼자관리"의 독립적 가정교회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선교를 하는데 이런 지역과 대상을 무시, 간과하고 단지 "공식교류"와 "공식사역"만으로 선교범위를 축소시키는 「협정문」은 그 자체로서의 제한성과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협정문」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표성 문제이다. 즉, KNCC와 CCC가 맺은 「협정문」이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중국교회를 대신해서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KNCC 당국은 감히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CCC 당국은 그렇다라고 할 것이다.

KNCC는 하나의 "교회협의회"로서 권력기관이 아니며 그 산하, 기장을 비롯한 6개 교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KNCC는 모든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모든 한국교회가 그에게 대표권을 주지도 않았다. 그 반면 중국의 CCC는 1980년 10월 13일 남경에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더불어 조직된 교무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이다.

CCC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조직으로, 구성원은 모두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이다. CCC가 중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은 그 실제에 있어, 모든 중국의 기독교인과 교회로부터 민주적 방식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기보다 중국정부(통전부와 종교사무국)에 의한 임명과 위임이라고 볼 수 있다. CCC가 삼자교회(7천 개 교회와 6백만 신도)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모든 중국교회(삼자교회에 관리되어 있지만 독립적 가정교회의 6천만 이상의 신도)를 대표할 수는 없다.

KNCC와 CCC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없기에 KNCC와 CCC 사이에 맺은 「협정문」은 두 단체 사이에 맺은 「협정문」으로서, 두 단체간의 교류와 선교활동의 규칙, 준거, 약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에게도 다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하기에 「협정문」의 내용을 갖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제재하고 제한할 수도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KNCC와 CCC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넷째, 급변하는 한•중관계와 오늘날의 중국,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선교현실에서 KNCC와 CCC 사이에 맺은 「협정문」은 한국교회에게 중국선교를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의 각성과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협정문」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호이해와 존중", "동반자 관계", "협력", "공동노력" 등의 용어들이 보여 주고 있는 "자주적인 협력 선교"의 측면이다.

과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교파분열적", "조선족 위주의 경쟁적", "물량주의적" 선교가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정문」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KNCC 대표자들이 중국교회를 존중하고, 중국교회가 자주적으로 선교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든 "비공식적인" 루트로 진행이 되든지, 또는 삼자교회 혹은 독립적 가정교회와 관계를 맺든지 간에 중국교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고, 중국인 자주적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이렇게 지향되고, 전개될 때 비로소 중국교회에게 유익이 되며,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왕쓰웨 전도사/중국복음선교회

한·중 교회협의회 「협정문」의 주역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 한국기독교교회협회(KNCC)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회의 연합사업과 교회일치운동을 에큐메니칼정신에 따라 한국교회 입장에서 협의하고 있다.

역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선교와 친교, 봉사, 연구, 협의, 훈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회들의 협의체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그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재한복음주의 선교단체통합공의회로 1905년에 시작된 연합운동은 1918년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로 발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이 기구는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 교단들 사이의 일치와 선교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나아가 세계교회 형제 교단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실천하였다.

오늘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회의 연합사업과 교회일치운동을 에큐메니칼정신에 따라 한국교회 입장에서 협의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특별히 남북 기독교의 영적일치와 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기독교의 평화통일선교협의회를 계속하며, 중국, 소련 등의 한민족 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국내 및 세계교회 자매형제들과 협력하며 실천하고 있다.

회원교단 및 국제 협력 교회들

1970년 제23회 총회 이후로 한국 개신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여섯 교단이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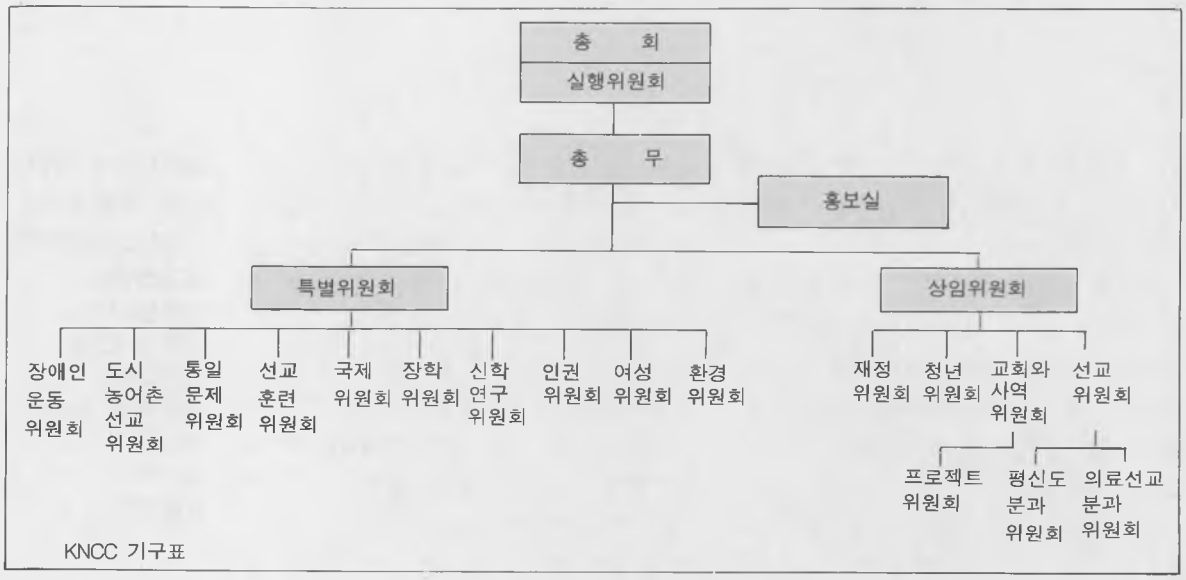
국제적으로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의 세계교회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 각국의 교회협의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사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선교, 교육, 훈련에 관한일과 교회 일치와 민족의 통일에 관한 일, 교회와 사회, 인권에 관한 일, 여성과 청년에 관한 일, 재정 자립을 위한 활동에 관한 일, 연대활동에 관한 일로 나누어 진다.

선교, 교육, 훈련에 관한 일은 국내외 선교에 있어서 회원 교단들 간의 협의를 거쳐 연합적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여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의 민족적, 세계적 모습을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교회 일치와 민족의 통일에 관한 일은



KNCC 기구표

남북의 교회가 서로 가진 영적, 물질적 자산을 나누고 공유하는 「남북나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희년 준비위원회 활동과 교회일치를 위한 범교단적인 사회주의권(공산권) 성경, 찬송가 보내기 운동 본부, 동북신학원 후원사업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평화통일사업, 교회일치 사업, 해외교회와의 연대사업, 한국기독청년협의회를 통한 청년운동사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교회와 사회, 인권에 관한 일은 오늘날 이땅에 엄존하는 권위적 정치로 말미암은 억압과 인권침해, 경제적 부조리로 인한 고난과 굶주림, 사회, 문화적 소외, 남녀간의 불평등, 환경파괴 등을 개선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다.

이에는 교회와 사회선교, 인권선교, 장애인선교, 환경운동, 언론문제 대책 및 홍보활동 등이 있다.

여성에 관한 일이란 에큐메니칼 여성 10년(1988~1998)을 통해 제시된 교회와 사회공동체 전역에 걸친 여성의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청년에 관한 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맹 6개 교단 청년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에큐메니칼운동을 확산해 나가며 연합운동의 기초인 지역 청년활동을 지원,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다.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은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자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자립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다.

연대활동에 관한 일이란, 한국교회 일치 운동과 세계교회들과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대사업을 추진, 세계에큐메니칼운동 단체들과 협력해 추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장은 최희섭 목사, 총무는 권호경 목사이며, 한·중 교회협의회「협정문」조인의 실무자는 일치협력통일국 국장인 김영주 목사이다.

2. 중국기독교협회(CCC)

중국의 종교정책

문화혁명 동안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강제적으로 종교를 근절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

방의 몰락은,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전환을 보일 것을 예고해주었다.

등소평 정권이 주도권을 잡는 동안 종교신자들은 좀 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집에서 자유롭게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2년 3월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종교정책을 재평가하고 "사회주의 시기 동안의 종교문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과 정책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붙은 19호 문건을 공표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정책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의 현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종교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밝혔다. "당의 지도력 강화는 종교적인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데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준다. 즉 당이 그 지도력을 강화해 갈수록 종교적인 문제를 확실히 처리해 나갈 수 있다. 당의 종교사업은 당의 통일전선사업과 인민 대중의 과업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며, 동시에 그것 자체는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양상 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호 문건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하겠다.

중국공산당이 신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교분리(政教分離)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애국적인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독립을 힘주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은 "인민단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들은 통일전선공작부의 산하기관인 종교사무국의 지시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

애국종교단체

공식적으로 인정된 애국종교단체들은 중국공산당이 종교인들을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중국공산당이 승인한 종교단체로는 8개가 있다.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그리고 중국기독교협회가 바로 그것이다(1992년부터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가 없어져 현재는 7개의 종교단체가 있다).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조직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종교에 대한 자유정책을 시행하는 당과 정부를 원조하는 일, 방대한 수의 신자들을 돕고 그러한 종교단체들의 인사행정을 돌아보며, 애국심과 사회주의 의식을 계속적으로 함양시키는 일, 신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관심을 대변하는 일, 종교인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화하고 이끄는 일 등..... 모든 애국종교단체들은 당과 정부의 지도력에 복종해야 한다.

종교사무에 대한 규정 제36조에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정부는 애국종교단체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종교활동만을 합법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정부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 정부의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1980년 이래로 삼자회는 가정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통제를 그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이러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 몇몇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통해 핍박을 입기도 했다. 삼자회의 통제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집회를 해산하고, 특히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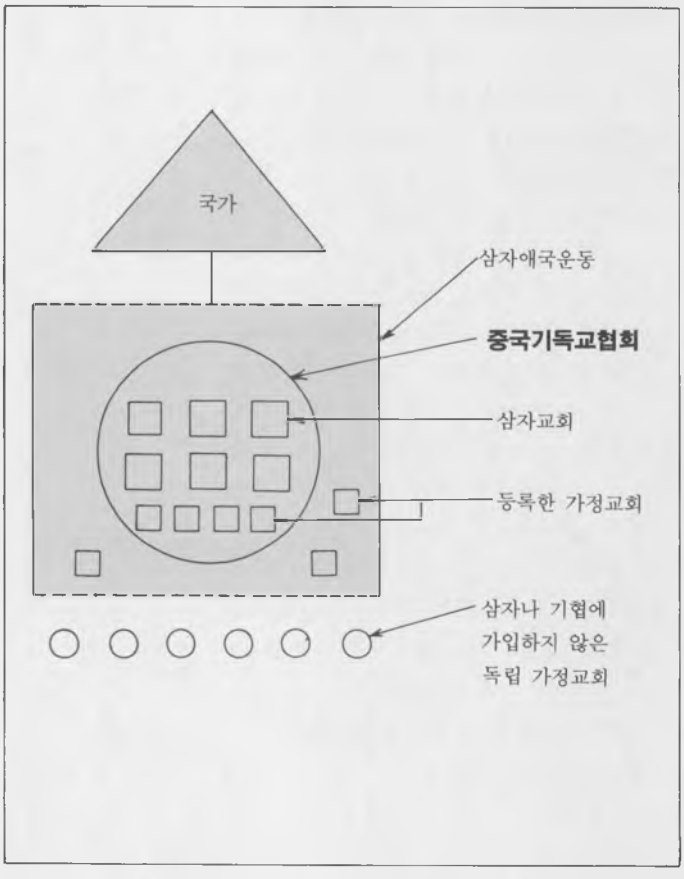
종교사무에 대한 규정 제36조에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 죄목을 붙여 해당교회 지도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삼자애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

삼자회가 '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정치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게 되자 1980년 10월 남경에서 개최된 전국기독인대회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로 중국기독교협회(China Christian Council)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삼자회가 교회의 정치적인 면을 다루는 반면 중국기독교협회는 교회의 순수신앙 사역에 역점을 둘 의도로 발족되었다. 정광훈 주교는 삼자회의 주석이라는 그의 위치와 더불어 중국기독교협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심이번, 한문조 등 현재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국기독교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삼자회와 중국기독협의회는 자신들이 중국의 개신교 교회의 참다운 유일한 대표자이므로 모든 가정교회들이 자신들의 조직에 등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979년 이래 정부에 의해 몰수되어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수많은 옛 교회건물들이 다시금 삼자애국운동(TSPM)과 중국기독교협회(CCC) 산하로 되돌아왔다.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권위하에서만이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93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정광훈 주교는 7천여 개소의 삼자교회가 있다고 말했다.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지도하에서 남경신학교는 1981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1993년 현재까지 중국에 총 13개의 신학교가 있다.

1984년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에 의해서 애덕기금회가 창설되었다. 정광훈 주교가 주석으로 선임되었다. 애덕기금회의 목적은 중국 내의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을 위해 해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 외에도 애덕기금회는 삼자회의 후원하에 중국 내에서 일할 외국인 교사들을 모집한다. 이 단체는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와서 전도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이 단체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결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1993년 7월에 파송된 우리 나라의 중국공식 첫 선교사인 김종구 전도사(기독교대한감리교회 소속)가 사역할 곳이 바로 이 애덕기금회이다.

대외관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중국공산당은 종교가 정치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매일매일 우리의 국제교역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 나라의 종교단체들이 외부세력과 접촉하는 것 역시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을 이유로해서 "애국적인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가의 종교단체들과 상호방문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대표단은 유사한 노선의 서구 교회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해외로 파견되었다. 첫 대표단 중 한 팀은 1981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린 중국프로그램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 후 중국기독교협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를 방문했으며, 중국도 상당수의 대표단들을 차례로 초청해왔다.

1982년 영국복음주의선교협회의 회원의 중국방문을 기화로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점차 복음주의 진영에 대해서도 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7년 10월 삼자회는 "통일전선"전술의 시행이 정통복음주의자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전술을 지지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공식잡지를 통해 단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빌리 그래함 목사를 여러 차례 초청하여 중국을 공식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이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991년 2월 호주 켄버러에서 개최된 제7차 WCC대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는 WCC에 복귀했다. 이것을 신호로 중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공식교류를 시작하였다. 중국기독교협회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 교단 대표를 중국에 공식초청하였고, 1992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총무 등 9명의 대표단이 한국교회를 공식 방문했다. 곧이어 1993년 2월 KNCC회장단의 중국방문이후, 1993년 4월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인 정광훈 주교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졌다.

1993년 9월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국기독교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때 두 단체의 대표들이 중국 남경에서 「협정문」에 조인을 했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해외의 복음주의 관측통들은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이러한 진보적 태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만약 삼자회가 세계 전역의 복음주의협회들로부터 자신들만이 유일한 중국의 합법적인 교회요 기독교의 대변자라는 지지와 인정을 획득하게 되면 가정교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이로 인해 가정교회는 동료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서적, 라디오 등 물질적인 후원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육적 지원과 기도의 도움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관측통들은 삼자회가 그러한 절대적인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삼자회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비타협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려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91년 2월 호주 켄버러에서 개최된 제7차 WCC대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는 WCC에 복귀했다. 이것을 신호로 중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공식교류를 시작하였다.

만남과 이해

석은혜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영문 약칭으로 KNCC라고 한다. 이하 KNCC라 함.)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한중교회 협력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중국선교 세미나에서 KNCC의 일치협력 통일국 국장 김영주 목사가 한 말이다. "KNCC가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지 김 목사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다.

1993년 11월 1일(월) 오후 7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에서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지난 9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국기독교협회가 조인한 「협정문」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는 「협정문」 조인 실무자였던 KNCC의 김영주 목사가, 논찬은 아세아방송국 이사인 유관지 목사가 맡았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복음선교회 왕쓰웨 전도사가 쓴 "한·중 교회협의회의 협정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그 분석문에는 「협정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중국선교 관련자들로 구성된 참석자 70여명들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된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모세 전도사의 인도로 중국찬양과 한국찬양을 곁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양 교회협의회가 맺은 이 「협정문」은 중국선교 관련자들에게 "한국교회의 대 중국선교활동을 공식적인 '교류활동'으로 못박음으로써 중국선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 「협정문」이 그 동안 삼자교회보다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암암리 활동을 해온 중국선교단체나 중국선교 사명자들의 선교를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격이 되어 버렸기에 관련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선교회는 지혜를 모아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KNCC의 김영주 목사는 이 세미나에서 「협정문」을 조인할 때 중국측과 우리측이 모두 외국어인 영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전후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 「협정문」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말했다.

"양국 교회간의 협정으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 협정은 자본주의권의 한국교회와 사회주의권의 중국교회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중국선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중국선교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 어느 정도는 중국선교 관계자들의 수긍을 얻어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중국선교 전문단체 및 중국선교 관련자들과 KNCC 사에에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를 씻을 수 있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협력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나마 불빛이 보였다.

이어서 유관지 목사는 논찬을 통해 이 「협정문」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KNCC의 공을 치하하면서 김 목사의 겸손한 발표를 들으면서 논찬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고 말했다(원래는 강한 내용의 논찬 원고를 준비했지만).

유 목사는 영어를 공용어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 「협정문」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나중에 이 「협력문」의 중문과 한글을 비교해 보니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곳이 실제로 몇 곳 있었다).

그리고 이 협정이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안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것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중국의 비공인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찬 후에 참석자 중 몇 분은 김영주 목사에게 지면을 통해 질문을 했고, 몇 분은 구두로 직접 질문을 했다. 이미 마쳐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진지한 질문과 응답이 오고갔다.

이 세미나가 중국선교 전문단체와 KNCC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 주었다고 본다. 이 만남을 통해 KNCC의 입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선교 전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이 KNCC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전문성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국선교 전문단체보다 약간 부족한 것 같았다. 김 목사는 이 점에 대해 겸손히 인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같이 만나서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약속을 했다.

약간 어렵게(?) 시작한 세미나였지만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중국선교 전문단체 및 중국선교 관련자들과 KNCC 사이에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를 씻을 수 있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협력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나마 불빛이 보였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져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석은혜/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선교의 대장정을 꿈꾸는 부산북교회

김길자 집사님과 김영산 담임목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부산북교회.

우리의 이번 탐방은 서울권이 아닌 지방에서의 첫 탐방이어서 자못 기대가 컸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빈번치 못한 지방교회들의 선교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머릿속에 그려보며 11월 11일 밤 10시 30분 기차를 타고 6시간에 걸친 긴 기차여행 끝에 도착한 시각은 12일 새벽 4시 30분. 우리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이자 부산북교회의 집사인 김길자 집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 김 집사댁에 염치불구, 고맙게도 신세를 지게 되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을 먹자마자 약속시간 9시를 맞추기 위해 김 집사와 함께 서둘러 집을 떠나 교회로 직행, 이 교회 담임 김영산 목사와의 첫 대면으로 탐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북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매월 정기적으로 본선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고, 「神愛世人」이라는 중국어 전도책자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우리의 좋은 중국선교의 동역 교회인 것이다.

교회역사 29년의 청년교회인 부산북교회는 출석교인 500여명 정도의 교세로 연 6,000만원의 별도 선교재정으로 1명의 파송선교사와 5명의 협력선교사를 지원하고 중국어문선교회를 비롯한 CMLTC, 고신선교훈련원 등 선교단체와 국내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

하며, 학원선교 및 특수선교에 역점을 두어 사역하는 등 그 선교의 역량을 짐작할 만했다.

우리는 김 목사에게서 말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과묵한 인상을 받았지만 선교에 대한 질문에 이르러서는 누구 못지 않은 열정과 철학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부산북교회의 선교가 퍽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부임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김 목사가 이 교회의 선교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임 김윤하 목사와 이승직 강도사가 선교의 체계를 잘 세운 덕분이기도 하겠거니와, 김 목사 자신에게 해외선교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인 듯 싶었다.

김 목사는 선교는 느낌에 의지하거나 충동적인 사역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무한정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보다도 선교의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인의 인식과 기도 그리고 물질 자원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철학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것이 없는 상태로 선교한다면 몇 번 하다가 사그라들고 말 것인데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 신학교에서의 선교신학의 확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래서 김 목사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선교지속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다. 설교시간을 통해서, 혹은 선교헌신예배나 선교회보 등의 지면 교육, 선교세미나 특강 등을 활용해서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열정을 불어넣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호응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김 목사는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다. 적어도 기도에는 전 교인이 호응하고 있을 것이라는 김 목사의 대답은 결코 빈 말이 아니었다. 구역예배 때마다 담당 선교사를 배정해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이 그 구체적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

또 다달이 선교기도제목 카드가 제작되어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이 개교인과 공적모임마다 활용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 교회의 선교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또 선교의 예산이 성도들의 별도의 작정헌금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점 역시 교인들의 선교열의를 읽게 해 주는 부분이었다.

이 교회의 선교의 특징은 선교의 다양화와, 철저한 교단중심의 선교사역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김 목사의 생각은 분명했다. 선교가 해외에만 쏠릴 때, 그것은 마치 구심력 없는 끈이 원심력만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국내의 기반이 튼튼할 때 해외선교의 내실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 선교사 파송, 지원 등을 개교회가 담당할 때 오는 불안정을 교단중심으로 하면 안정성 있게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교단(고신)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점은 아마도 선교에 있어 한국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모든 선교하는 교회가 그러하듯 이 교회의 청년자원들은 귀중한 선교자산이다. 이 교회는 수련회를 통해 선교헌신자를 발굴해 내고 지원하는 등 선교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 목사의 선교관은 분명했다. 모든 목회자는 선교사요, 모든 평신도는 사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선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부산북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온 것처럼 중국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더욱 중국선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배가 상해에서 부산으로 왕래케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때 이 교회가 중국선교를 위해 무언가 쓰임을 받게 되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중국배를 부산으로 오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주님은 준비된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보며 기도로 우리의 만남을 마무리지었다.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또 다달이 선교기도제목 카드가 제작되어 요일별로 기도의 제목이 개교인과 공적모임마다 활용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 교회의 선교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또 선교의 예산이 성도들의 별도의 작정헌금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점 역시 교인들의 선교열의를 읽게 해 주는 부분이었다.

중국 이슬람을 말한다

Leo Bruce 선교사
(AOI홍콩 지역대표)

중국인인가? 모슬렘인가?

회교도들은 모하메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지치지 않는다. 또한 코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100번을 거듭해서 얘기한다 해도, 한 번 얘기하는 것처럼 지치지 않고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슬람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슬람에 대해 공부할 때 상당히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개론적인 이야기만 전할 수 있다. 그것은 거대한 회교도라는 바다에 던진 하나의 작은 씨앗과 같지만 보다 쉽게 회교도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의 회교도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1989년 처음으로 중국 내에 있는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때 나는 중동에서 4년 간의 경험을 막 끝낸 상태였다. 그 당시 나는 중동에 있는 회교도들을 막 이해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내가 배운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묶어서 만들어진 System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은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도하고 지침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론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에 관한 문서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게 큰 혼선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내에 있는 아무 모스크에 들어가보면 중국에 있는 이슬람은 전국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안(西安)에 있는 회교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교사원의 모든 문자들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코란도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한다. 물론 그들은 어느 정도는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얘기할 때의 언어는 역시 아랍어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들어가 회교도를 만나게 된다면 많은 회교도들이 자기 이름을 중국이름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다른 이름을 소개할 것이다. 많은 중국의 회족들은 이슬람 회교이름을 갖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이름은'모하메드'란 이름이다. 그리고 그들은 코란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책으로 여긴다.

여러분은 중국 내에 있는 이슬람이 중국 밖에 있는 이슬람과 똑같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내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회교도"라고 생각할

자신들이 믿는 알라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회족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 정확치 않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볼때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인이다. 여러분이 중국 회교들에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모슬렘(회교도)입니까? " 하고 질문해 보면, 그들은 먼저 "나는 모슬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러나 나는 중국에 살고 있으니 중국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회족들은 아주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회교도들의 겉모습이 중국인 같다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중국 내 회족의 역사적 배경

이제 중국 내의 회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자 한다. 중국에 회교가 처음으로 소개된 시기는 주후 600년경 아랍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다.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652년에 최초의 회교도가 중국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652년은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간 해와 같은 해이다.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간 기독교가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사실은 중국 기독교 역사상 불행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별로 정확하지 않은 교리들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와 회교가 동시에 西安과 長安으로 들어갔다(장안은 옛날 중국 수도). 네스토리우스파가 한 일은 커다란 돌에다 자기네들의 읽는 것을 새겨넣는 것이었다.

회교도들은 그때 1만평방미터나 되는 회교사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 지난 봄 라마단(회교금식 기간) 기간에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마침 점심 기도시간이었다. 2~3천 명의 회족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스크로 막 들어가고 있었다. 회족들은 그 금식기간

을 아주 진지하고 철저하게 지킨다. 내가 말하는 '회족'은 중국의 북서부와 중앙북부 쪽에 위치하는 회족들을 일컫는 것이다.

단지 회족이라고만 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라마단을 지키지 않는 회족들이 있는 도시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회교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회교가 아니다라고 정의해서는 안된다.

7세기에 회교도가 중국에 들어왔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회교도들은 벌써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에는 많은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반역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황제는 회교군대를 불러들여서 반군을 진압하고자 했다. 이 당시 원군으로 왔던 회교도들은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쪽에 있던 회교도들이었다. 그때 회교도들이 중국의 바깥쪽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 많은 회교도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교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것이다.

몽고족이 지배했던 원(元) 시대에는 이와 다른 커다란 회교운동이 일어났었다.

징기스칸은 이 당시 회교세력을 이용해서 중국의 북서부와 북쪽 지방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했다. 신강, 감숙, 청해 , 산서, 영하 등의 지역이 바로 징기스칸이 회교도들을 이용해서 다스리던 지역이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들이 중국 내 회교도들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주로 회족과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중국 내의 전체 회교도 60%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13세기에 들어서 元朝가 망하고 明朝가 들어서게 되자 회교도들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명조가 들어서자 명조는 중국 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교를 믿고 있던 많은 중국인들이 회교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다.

이 당시 그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부터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아랍어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명조의 혹독한 탄압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에도 회족을 만나거나 그들과 얘기하다보면 자기네들의 겉모습이 중국인 같지만 속에는 아직도 아랍계통의 문화가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겉모습과 행동은 중국인이지만 내면은 회교도이다.

그 변화의 와중에서 이름까지도 변화가 일어났다. 모하메드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마하'라는 중국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스타파는 중국식으로 '무'라고 바뀌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꿨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슬렘이라는 것을 잊어 본적이 없다. 明代에 비로소 이 회교도들이 오늘날 중국 내에서 우리가 부르는 回族이라는 족속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 내에 있든 중국 밖에 있든 모든 회교도들을 회족이라 부르게 되었다.

13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회족들이 중국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초기 역사 가운데 중국 안에 있던 회교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 내에서 순니파 모슬렘과 시아파 모슬렘 사이에 여러 번 종교전쟁이 있었다. 1862년~1878년 이들 사이의 전쟁이 너무 심해서 수백만의 회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회교도들의 역사가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회족,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날에도 중국 내의 회교도들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역적

이고 대항하는 세력으로 되어 있다. 회교도들의 밑바탕에는 중국 공산주의 제도에 대해서 기꺼이 싸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1989년 회교도들의 중국 대장정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회족사회에서 조직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때 '천안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회교도들은 자기네들 사회에서 조용한 혁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1989년 드디어 중국 내 회교권 사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시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전세계에 있는 회교국가들이 루시디의 '악마의 시'에 대해 투쟁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이 중국에서는 어떤 性的인 행위의 의미를 담은 책 제목으로 출간 되었다. 이 책에서 회족들이 마치 짐승처럼 행동한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회족들은 전중국을 휩쓰는 커다란 시위를 조직했다.

바로 이 사건이 중국 내에 있는 회족(모슬렘)에 대해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 회족들이 비록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모 결과 그 책들이 수거되었고 출판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 회교도들은 중국 내에서 계속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다. 위구르족도 신강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위구르 족은 신강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혈통의 범위 안에서 정치적 연계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 부족은 회족이다.

1900년대에 이미 회족들은 이미 자치적인 군대를 조직했다. 상당히 긴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북서부와 중북부 지방에서 회족들이 이 군대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회족에게 있어서 1966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혁명 기간은 상당한 암흑기였다. 모스크들이 파괴되고, 문을 닫아야 했으며, 코란이 불태워졌다. 또 회교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다. 그들에게 있어 이 기간은 매우 엄청난 핍박 시기였다.

가장 최악의 사건은 1975년 운남성에서 일어났다. 홍위병들에 의해 1600명의 모슬렘들이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회족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부족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찾아왔다. 모택동이 죽고 새로운 지도자들로 바뀜에 따라 중국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문화혁명 당시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던 탄압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아마 가장 강력한 표시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자기 지역으로부터 쫓겨난 회족들이 원래 자기들의 고향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중국 남부지방에 회족 자치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회족들에게 자치구를 허락했다. 또한 특별한 교육제도를 허락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회족 학생들이 계속 공립학교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고 회족 학교에 다닌다. 회족들은 교육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는 회족들에게 반드시 10~15%의 가산점을 주고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회족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족으로 동화되길 원하지만 회족들은 이것에 저항 한다.

중국 회교도가 경영하는 음식점.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자치적인 학교를 세웠다. 최근에 어떤 자료에 의하면 회족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슬람 역사와 문화, 교육 등을 배우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중국 전체 대학인구 중 회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밖에 안된다.

중국의 깊숙한 시골에 들어가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회족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 하면 그들은 중국 학교에 다니길 원치 않고 오직 이슬람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는 모스크 이슬람 학교가 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이슬람 식의 교육을 받는다. 회족들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해서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족, 그들은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의 한족들에게 한족과 회족과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회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회족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개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회교 신앙이 철저할수록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증을 느낀다.

여러분, 회교도가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 그들은 중국전통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족관계도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 내에 있는 규범보다는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회교도의 형제애에 더 깊은 뿌리를 박고 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인의 혈통이 아니라 아랍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조상이 중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은 중동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중국의 회족 청년들 가운데 회교붐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아랍어를 배우는데 4년이 걸렸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많은 회교도들과 이 아랍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한다. 그들은 아랍어의 액센트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아랍어를 잘하는 편이다. 회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이슬람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가르친다.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회족은 중국 내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바깥에 있는 회교국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중국 회족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중국 내에 있는 회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회교 선교사들에게 중국 내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것은 중국 정부가 중동지역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동지역의 무기 시장에서 대단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란에 300메가와트 급의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평화적 협정이라고 얘기한다.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내에 존재했던 모스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모스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예측되기로는 중국에 약 4만 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숫자 보다 많다.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에 모스크가 없는 곳이 없다. 중국 내에서 회교는 현재 아주 강력한 세력이다. 중국에서 위구르인들이 아주 강력한 방법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회족들은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중국 내에서 자신들의 회교혁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들이 중동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회족들이 이 같은 회교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묵인하는 형편이다.

중국은 기독교에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회교에게는 상당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을 통제하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이미 세워 놓았다. 바로 '이슬람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족 중 상당수는 이런 협회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북서쪽에 있는 회족들에게 이슬람협회를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들은 "이슬람협회는 정부 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하교회의 형태로 회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로는 중국정부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너무 강하게 회족을 억압한다면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와의 유대관계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럼 회교도들 가운데 기독교 운동은 있는지 알아보자.

"수백의 크리스천들이 회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족 가운데 들어가 사역하고자 하는 크리스천을 찾아내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10년에 어느 선교 단체의 지도자가 "중국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회족 중에 들어가 일할 사역자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가 씌어진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주 극소수의 Christian만이 회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보든 비어라는 사람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강소성의 회족 중에 들어가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보든은 자기가 받은 모든 교육을 그 목표를 위해 사용했고 그 부족의 교육을 받았다.

보든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25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결국 그는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어가기는 커녕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4월 8일은 '보든 기념일'이었다. 1916년 다른 한 부부가 회족에 대한 부름을 들었다. 그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의 생애를 감숙성 안에서 보내기로 결정했고, 회족 가운데로 들어가 여러 해 동안 일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공동체도 형성하지 못했다.

그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다. 회족지역에 지금까지 단 하나의 신앙 공동체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회족들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는 오늘날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신강성에서는 50여명의 선교사가 위구르족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으나, 회족지역 안에서는 단지 5명이 사역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의 이슬람교인 숫자는 공식적으로 860만 명이라고 발표되었다.

중국정부는 실제로 중국 내의 회족 숫자가 다른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다른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에 2천만의 회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회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알기로는 7명-20명 정도이다. 그들의 영적 필요는 엄청나다.

여러분이 여기서 회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회족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다. 그들은 만다린으로 말하지만, 중국인이 아니라 모슬렘이다. 내가 짐작컨대, 10년 이내에 그들은 만다린보다 아랍어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부분의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회족도 대부분 30대 이하의 사람들이다. 또 많은 회족 중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족보다도 나이가 젊다. 그들은 젊은 모슬렘이다. 그들은 중국이 중동지방과 같은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족에게 들어가야 할 때이다. 문이 열리고 있으며 이슬람은 지금 변하고 있다. '내가 이슬람을 택할 것인가 다른 종교를 택할 것인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결정적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는가? 작년 우리는 모슬렘 청년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나는 내 인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나는 모슬렘이 되야 할지 기독교인이 되야 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나를 도와 주십시오."

이 말은 내 마음을 깨뜨렸다. 왜냐 하면 나는 그곳에서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교회는 회족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서구 선교사도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회교도에게 들어가길 원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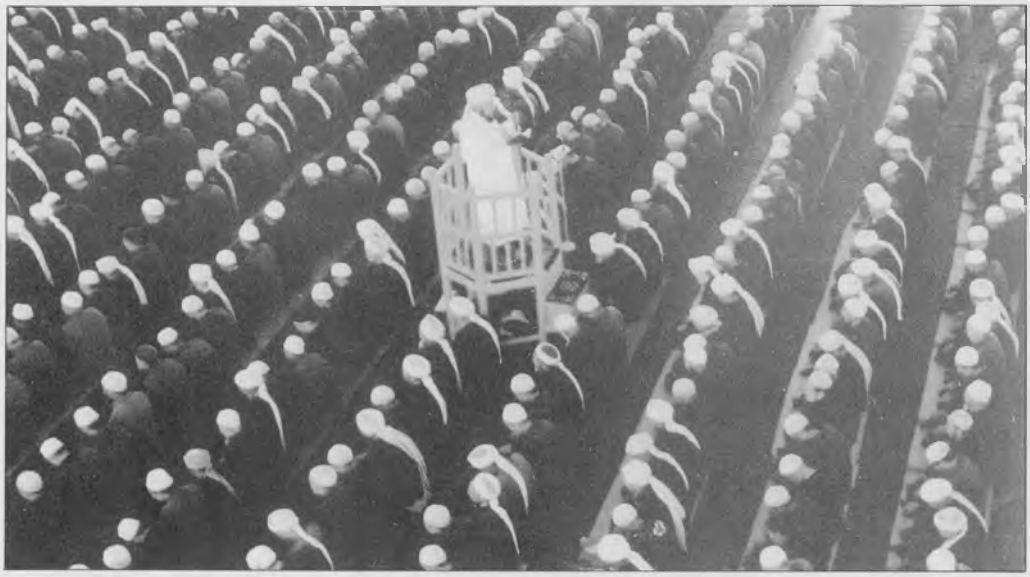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슬람은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이며, 그곳은 어두움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다. 나는 기도의 권능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에 정진할 때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슬람인들의 희망은 그 이슬람 세계 자체를 두꺼운 벽으로 막아놓고 기독교 세력을 그곳에서 몰아 내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나보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 하면 한국 교회는 기도의 권능을 잘 알고 있고,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화 된 나라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슬람을 잡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교도들은 시간시간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성경과 코란이 그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족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중국 내에 있는 회교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다. 젊은 회교도들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다. 그



회교도들이 청진사 안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중국 내에 있는 모슬렘들에 대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슬람에 대해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중국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형태의 이슬람이 다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중국 내에 있는 다양한 이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중국 내 이슬람에게 들어간다면 그들은 제각기 다른 42개의 그룹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그 중 37개의 그룹은 수피파이고, 5개의 그룹은 전통적인 수니파이다. 물론 수피족파가 가장 커다란 그룹이다. 35%~45%가 수피파이다.

중국에서 회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종교이다. 중국의 모슬렘 특히 회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는 아주 약한 상태이다. 자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중국 내의 회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정리/**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회원)

편집자 주:

이 글은 1993년 11월 12일 부산에서 있었던 중국이슬람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대 지식인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기독교의 발전과 퇴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지난 백년 동안의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대할 때마다, 정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대화와 인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지식인들이 냉정하고도 이지적인 태도로 기독교를 인식하게 된 때는 아마 5·4시대와 80년대의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두 시기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사회에서 줄곧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사회, 문화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기독교의 발전과 퇴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五·四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

1916년 康有爲는 재차 글을 올려 孔教를 설립하여 국교로 삼아 문화 및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그의 제의는 즉시 蔡元培, 陳獨秀, 易白沙, 吳虞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아울러 孔教를 토론하고 기타 종교를 토론하는 데까지 발전되어, 당시의 지식인들이 기타 종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胡適은 不朽로서 종교를 대신하였고, 蔡元培는 美育으로서 종교를 대신할 것을 제의하였고, 吳稚暉는 사회주의로써 종교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朱執信은 심지어 선동적인 "耶穌是什麼東西?" 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1920~21년 사이에 소년중국학회에서는 "종교와 현대사회는 서로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최고 인품 중 하나이다."
(운남대학 안에서...)

중국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택동 동상

를 가지고 한 차례 광범위한 토론을 전개하였고, 아울러 관계된 내용을 연속 삼 회로 <少年中國>에 연재하였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는 불합리성, 비과학성, 미신을 고취하는 것이 무지몽매한 시대의 산물이며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울러 그들은 종교가 과학, 예술 그리고 인문정신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식인들은 종교가 "사상을 억압하고, 개성을 속박하며, 진취성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에 대해서 오직 해로움만 주고 이익이 없으며, 도리어 사회진보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 아니며 인류의 미래에는 종교가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1923년 과학과 인생관 논쟁이 전개되었을 때, 종교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토론되었는데, 논쟁결과 몇몇 지식인들이 마음 속으로 과학을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기 쉽다; 기독교는 군함, 포화, 불평등조약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중국으로 들어왔으며, 기독교가 중국에서 향유한 특권과 官民 사이에서 야기한 충돌은 청말 이래의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와 문화주의에 기초하여 기독교를 반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5.4 시기의 지식인들은 민족감정을 벗어던지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써 기독교를 평가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두 가지 표준으로 기독교를 평가하였다.

1. 이성, 과학에 합당한가?
2. 중국이 부강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기독교 교리가 과학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도적인 면에서 볼 때도 중국의 부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단지 과학과 민주만이 중국을 흑암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신문화운동의 지도자들, 가령 진독수, 호적, 오추휘, 소년중국학회 구성원들은 모두 과학주의자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한 가지 모순된 사실은 기독교 문명의 산물인 과학과 민주는 옹호하면서도 기독교는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현대 지식인들이 보는 기독교

49년 신중국이 성립되자 공산당의 지도 아래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중국인들 가운데 당원은 종교신앙을 가질 수 없었고, 지식인들은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우주, 인생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였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사회진보와 계급투쟁에 대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혁명정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79년 이후의 개혁개방 물결에 따라서, 서방사상이 물밀듯이 휩쓸려 들어와 점차 개방되면서 80년대의 지식인들은 5·4 시기의 지식인들에 비하여 종교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들이 종교에 대해 갖는 태도에 있어, 몇 가지 방면의 현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종교의 가치를 인정

80년대의 지식인들은 종교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인정하였고, 종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구호는 더이상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종교의 윤리도덕 내용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1985년 상해사회과학원의 蕭志恬은 "試論我國宗教同社會主義社會相協調問題"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종교와 사회주의를 서로 대립시키려는 논조를 극력 반대하면서 말했다. "어떤 신자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잘 지키고, 매우 진취적이며, 당의 교육 외에도 동일한 종교신앙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와 역사문화의 연관성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종교가 사회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민족의 문학, 시가, 미술, 음악... 심지어 철학, 도덕, 사회풍속, 생활방식의 발전적 역사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시작부터 종교와 혼연일체이며, 이후에도 상호 침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종교를 문화연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거부한다면 이는 자기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경제로써 사회발전의 유일한 동력을 삼았던 경제결정론 관점에서 벗어나 종교가 세계를 구성하는 세 층면(문명의 물질생산, 조직제도와 사상관념)과 상호보완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려고 한다면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각색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러한 정신적인 내세관념이 포함되어 있고, 자아를 초월하여 초월자와 화해일치하려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의 공헌을 인정

지식인들은 개방적인 태도로써 종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과 연구를 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의 완화된 분위기 아래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된 국면은 점차 완화되었고, 기독교도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침략 무기라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십여 년 간 지식층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인식에 다방면의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國務院이 간부들의 기독교 이해를 위해 개설한 교육반 외에도, 일부 省市 자치구의 사회과학원과 고등 교육기관에서 종교 연구기구(즉, 상해, 사천, 운남, 신강 등)를 건립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생부에서는 각각 1978년과 1983년

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의 기독교 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북경대학 철학과에서도 1982년부터 기독교 연구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연구 논저와 역서가 출판되어, 서방 문화 사조를 소개할 때 그 내용 속에 기독교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 때문에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정이나 주관에 의한 평론에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중국 기독교사를 평가하는 가운데,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해주는 것은, 이전에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한 것은 문화침략이거나 혹은 자본주의적 식민활동이라는 지식인들의 인식이 강렬했으나, 최근 십년 간 지식인들의 기독교 선교활동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耶穌會의 전도사가 중국에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보아도, "당시 자본주의 식민지 활동의 한 조직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서양 사이에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역사상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회의 전도자가 中西문화 교류에 중대한 작용 즉 "중국을 위하여 많은 과학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예수회 전도자가 중국에서 선교한 공로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신앙 범위가 정당한 선교활동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초기 식민주의 침략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利瑪竇>의 작자들은 利瑪竇이 중국에서 선교한 것에 대해서, 과거 상당 기간 동안 그를 "서방문화 침략의 도구"로 취급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에 지겸(인명)이나 구마라십(인명)과 같은 인도 전도자에 대해서는 높은 지위를 내려주면서 어째서 이러한 "西方高僧"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두번째 외래문화의 충격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과거 漢唐과 같은 기상과 아량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선교사의 중국 선교활동에 대해서 과거 학술계에서는, 그들이 종사한 활동을 총칭하여 문화침략으로 보았는데, 최근 학자들은 선교사의 구성원이 매우 복잡하고 배경 또한 달라서, 문화침략이라는 단어로 선교사의 모든 활동을 개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게다가 문화, 사상과 학술 영역 가운데 본래 침략과 반침략이라는 말은 없으며, 문화침략이라는 용어를 제기한 저변에는 중국문화에 대한 國粹思想과 中體西用의 보수경향이 깔려 있는 것으로, 중서문화 교류와 세계조류를 무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선교사가 서양학문을 전파한 것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선교사의 공헌을 긍정하고 있는 점도 있다. 선교활동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근대과학을 알게 하고, 특별히

민주를 부르짖으며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 지식인들.(1989년 6월 4일).

북경 천안문 앞에 있는 중국 역사박물관

교회학생들이 중국 근대 역사 전진을 추진하는 사회역량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선교사의 문화활동의 추진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중국은 최초의 근대과학체계, 근대신문 출판체계, 근대 교육체계의 모형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촉진하고, 봉건적인 중국이 자본주의의 발전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보는 태도와 평가는 개혁개방 이전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가 서방문화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다

5·4 시대 지식인들이 서양사상을 옹호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하였다면, 80년대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서양문화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서양문화는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사상이 유럽의 문화, 철학 그리고 심리의 각 방면에 침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양문명의 변천과 진수를 광범위하게 또한 다양하게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劉小楓과 許紀霖은 서양학문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고대희랍이고, 하나는 히브리로서, 서양학문은 이 두 종류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근대 사상가들이 서양학문을 연구함에 있어 오랫동안 히브리의 전통을(기독교정신의 전통)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의 심각한 편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결과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 않더라도 역시 애석한 일이다.

<宗教與世界>총서의 편집자인 何光滬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고 있는데, <現代基督教思想>의 역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上書가 몇년 전에 번역되었을 때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한 마디가 떠올랐다. "이처럼 풍성하고도 깊은 사상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는 또한 <紅樓夢> 가운데 賈府의 연회의 풍성함으로써 기독교 사상의 풍성함을 거지가 연회의 자리에 앉아서 "단지 고개를 숙이고 씹어 먹느라고, 어디 말할 여유가 있겠는가?"라고 비유하고 있다.

즉, 기독교가 唐대부터 중국에 전파된 이래로 평민들이 성대한 연회에 자리하지 못하고 줄곧 보잘 것 없는 식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개탄하면서, 이 때문에 기독교의 진미는 결코 내보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송에서 청에 이르기까지 사상통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환경하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유스럽게 진리를 드러낼 수 없었고, 이후에는 서방 식민지 확장의 의미가 섞이고, 또한 태평천국 지도자의 봉기적 명분이라는 외투를 쓰기도 하였으나, 민국 이래로 그 본래의 맛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여전

히 많지 않았다.

何光滬는 <基督教與文化>의 중역본 서문에서 기독교는 서양 문화의 神이라고 평가하면서 "만일 서양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속의 기독교를 무시한다면, 이는 그 모양은 알지만 그 정신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자들이 반드시 종교를 믿지는 않을지라도 종교가 문화 속에 끼친 영향과 작용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며, 종교가 문화를 이해하는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기독교를 참조하여 중국 전통 문화를 비판하다

현대의 지식인들은 기독교가 서양사회의 제도, 문화의 근원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화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무시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참조로 하여, 중국 전통 문화의 심층으로 파고들어가, 비판과 반성을 시도하고, 중국 전통 문화의 결점과 약점을 도출해 내었다.

山東大學 중문과 강사인 高旭東은 <生命之樹與知識之樹>, <孔子精神與基督教精神>에서 중서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서양문화를 참고로 하여 중국문화를 반성하고 중국문화 운명의 미래를 예견하였다. 서양은 희랍과 기독교 정신의 영향 아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고, 과학기술과 개척정신을 육성하였다. 반대로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 아래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여, 안락을 향유하고 지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인내를 포기함으로써, 과학이 낙후되고,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생존의 위협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굴의 인내정신으로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민족 정신의 결핍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十年浩劫」(문화대혁명에 의한 10년 간의 대재난)이 생겼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봉건 전통에 힘을 쏟아 '全盤西化'를 주장한 지식인 劉曉波와 서방 문예이론, 미학, 신학의 연구에 힘을 쏟았던 지식인 劉小楓은 모두 기독교 사상을 참조로 하여 중국 유가 전통의 인생관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人格萬能主義」, 「人性自足」 전통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이 수천 년 봉건통치를 유지하긴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유, 민주적 정신을 펼쳐내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劉曉波는 89년에 <中國知識分子與政治>, <狂妄必遭天責>의 두 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중국 봉건·독단 통치가 유지되어 온 원인은, 주로 중국 전통 문화가 人格萬能 의식을 표방한 것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는 '人格狂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격의 無所不知, 無所不能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통치자의 自我無限化를 형성하였고, 도덕인격으로서 정치제도를 대신하고 제도상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게 되었다. 유효파는 서방 사상의 참조 아래, 도덕인격 만능론의 치명적 문제는 사람들에게 착오에 대해서 반성능력을 결핍하게 하고, 자아비판 정신을 무디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중국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혼자 남아있는 중국의 젊은 크리스천.
(6·4사태 이후 공산주의에 회의를 느낀 많은 지식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중국인은 고난 후에도 여전히 둔감해 있는데 반해, 서방인의 원죄감은 그들로 하여금 항상 내면 세계의 죄악, 연약함, 죄책감을 직면하게 한다. 중국인의 '樂感'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여, 중국 지식인들은 여태껏 인류나 자신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서양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참회나 속죄를 할 수 있으나, 중국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참회나 속죄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유효파는 서양사상의 참조 아래 크게 잘못하고도 자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동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국문화의 치명상이라고 지적하였다. 劉小楓은 <拯救與逍遙>, <走上十字架上的眞理>라는 책에서, 儒家 人性觀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 가지 방면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1) 유가의 人性自足, 천인합일사상, 무턱대고 거만하게 행동하게 하며, 天命을 자처하여 天行道를 대신하고 인간의 죄악을 무시함으로써 역사상의 모든 재난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2) 인간의 존재근거에 대해 집과 국가를 가치본위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개체 인격을 박탈하였다.

(3) 초경험의 가치를 배제한 후에, 반성과 비판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상 세 방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중국 봉건사회가 길어진 원인이 되었다. 유소풍은, 기독교의 인성관이 비로소 사람에게 합리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잘난체하게 하지 않으며, 개체인격의 독립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가치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할 수 있다.

게다가 유소풍은 인간의 독립가치와 존엄을 인정하고, 현존 제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민주정치 건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인류의 계약이 비로소 진정한 약속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직 기독교 정신만이 민주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89년 학생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식인들은 기독교가 민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遠志明은 T.V 드라마인 <河殤>의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89년 학생운동에 참여한 바가 있고, 후에 해외로 망명하였다. 미국국회 조찬회의에 한 차례 참가한 후에, 그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는 "人治와 法治, 專制와 민주" 사이의 정치제도의 배후에는 다른 문화 연원이 숨겨져 있으며, 민주와 기독교 신앙은 和諧一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민주제도와 인권이념의 성립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정의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으며, 민주, 인권, 평등의 힘의 원천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람에 대한 罪性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독단의 뿌리이고, 사람의 죄성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민주의 기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중국 지식인들이 민주제도를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만약 기독교의 초월적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또 이런 깊고 방대한 종교 정서가 없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민주로부터는 더 멀리 떠나 있게 된다". 그는 현재 중국의 민주화 과정과 기독교의 대대적인 발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

다.

革眞海도 민주정치와 기독교 신앙의 밀접한 관계를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는 89년 중국 학생 민주운동을 지켜본 후, 학생 지도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민주운동이 현재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운동권 인사들은 민주정치와 기독교의 내재 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외 민주운동의 곤경은 주로 인간성의 약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민주운동의 지도자들이 아직 진정한 민주풍토를 양성하지 못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

동진해는 민주운동의 달성은 삼권분립의 민주정치 제도를 건립하는 것 외에도, 민주정치가 지니고 있는 심오한 정신기초를 깊이 연구해야 하며, 인간성의 기본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방법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진해는 기독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서양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 민주운동의 지도자들이 만약 서양문화와 정치 주류의 초석이요 골간인 기독교(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대륙 백성들에게 서양사상을 전할 자격이 있겠으며, 또 중공의 봉건독재주의를 비판할 정신 역량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6·4사태 때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

맺음말

이상의 소개를 통하여 현대 지식인들이 객관적인 태도로써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의 서양문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했으며 선교활동이 중국사회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심층구조를 해부하면서 그 결점과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기독교는 중국문화 변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문화인 크리스천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싹트지 않고 있는 능력이 장래 중국 본토의 복음화와 중국문화의 재건에 끼칠 영향은 짐작하기 곤란할 정도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모리슨(1807) 이전에 기독교는 이미 세 차례 중국에 전해졌으나, 모두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바람과 구름처럼 흩어졌으니, 이 모든 게 중국문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원인이다. 현재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문화가 새로이 출구를 찾으려고 할 때에, 중국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체험을 하고 있다. 크리스천과 지식인들, 특히 신자인 지식인들이 역사의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의 중국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독교가 중국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中國與教會, 97기』 중에서)

번역/안거안(중국어문선교회 협력간사)

종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광훈 주교의 발언

정광훈 주교

이붕 총리가 정치 사업보고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근 5년 이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에 주력해 왔으며 그로 인해 생산력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 생활향상과 국력 증강도 한 층 더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의 정의 구현과 우리 나라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을 권장해 왔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영도하에 경제건설을 중심으로한 개방개혁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상은,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이며 근검 정신의 국가건설계획과 우수한 전통사업추진을 위해 몇 대에 걸쳐 노력을 한다면 몇십 년이 지나 반드시 지금의 낙후된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아울러 국민은 한층 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중국의 종교사업이 과연 어떻게 국가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경제건설 및 개방개혁에 좋은 환경조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종교신앙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은 시기 이후부터 우리 나라의 종교는 여러 면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종교계의 억울함과 불의를 씻어주었으며, 다수의 종교계 인사들은 부당한 죄명을 씻고 해방되어 새로운 종교단체 설립과 활동을 펴 나갔으며 신자들의 정서안정을 도모하며 애국주의 깃발 아래 더욱더 단합되었다.

△ 종교계의 교단 재산을 회수하게 하며, 소규모의 종교활동의 거점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종교신앙 자유정책 확립을 위해 물질적 기초를 제공 하는 등 신도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되며 사회주의에 공

헌하게 되고, 사회안정도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출판사의 종교 경전, 서적등 발행 권장.

△ 종교계의 국제교류 및 종교 학술교류 등 지지.

△ 각 교단들의 신세대 종교인사 양성을 도와 종교계 급진 좌(左)경 세력에 의한 인력, 재력 물자의 공백상태를 해소했음.

△ 종교를 빙자한 정치, 경제적 사기행위를 자행하던 극소수 범법자들을 소탕했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각급 간부들의 노력은 물론 중공 중앙에서 1982년 발표된 문건, 또 1991년 6호 문서는 19호 문건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문서의 특성이라면 장기적인 소련 종교통치 사업이 우리 나라 종교사업의 반교 멸교 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에 반하여, "雅片" 두 글자에 집착하지 않으며 "同宗教作鬪爭"(같은 종교끼리의 투쟁)을 외치지 않고, 종교사업을 신도수 억제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종교의 "五性"즉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장기성, 복잡성을 잘 포착하여, 해방 이후의 "우리 나라 종교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 되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종교계 인사들은 "절대다수가 애국적이고, 준법적이며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종교의 국민 단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신도들과 비신도들간의 신앙사상의 차이는 비교적 그리 중요치 않는 것이다" 라고 역설해 주고 있다.

또한 "모든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종교신앙 자유정책이며 또한 이는 종교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19호 문건에서는 또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위법범죄활동간의 범위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당한 종교활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즉 종교를 빙자한 모든 범죄활동 및 반혁명의 파괴활동 또는 종교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이익 손상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를 끼치는 모든 미신활동을 타파하는 것이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듯이 이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건설의 가속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개방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종교신앙 자유정책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안정과 단결로 개혁개방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면, 만일 19호 문건의 정신을 위반하며, 군중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한 종교탄압 저지 등을 강행하며, 또한 일부에서는 지양하는 기세가 보이고, 또 이를 소홀히하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를 한 예로 보면,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즉, 전국양회) 앞으로 매년 도움을 청하는 서신이 어찌 천 여건에 그치겠는가? 비록 우리들은 저들이 반영한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할 수 없지만, 각성, 각지역에서 들려오는 대량의 호소들을 대하면서, 이 문제들은 결코 허위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받은 호소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활동에 대한 불허용 및 비보호 등이며, 또한 불법적으로 대거 강제 해산을 당하며, 교회지도자, 목사, 위원, 비서실장, 사무실주

북경 기독교회의 최근 모습

임 등의 선임에 있어서도 간부의 일방적 선임이 행해져 교회는 발언권이 전혀 없다. 때로는 종교의 수양조차 없는 사람이나 또는 명성이 나쁜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뽑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전국 양회와 중앙통전부 그리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연합조사팀을 두 성에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적지 않게 발견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듣는 것은 간부들의 보도인데 이런 호소문들은 대부분 종교정책 집행자들이 친히 겪는 일들로 사건 전말의 보충 또는 대조를 해주고 있어 이 또한 마땅이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모택동 주석이 연구조사를 한다면 간부층에서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군중 속에 깊숙히 파고들어 갈 것이다.

서신을 보내온 사람 역시 중국 국민으로 종교신앙자유를 누릴 권리가 마땅히 있는 것이다. 본인은 전국양회 회장으로서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나 마음만 있고 힘은 모자라서 내심 크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중앙의 종교사업 지도사상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점점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심한 제재와 충격을 받고 있다.

어떤이들은 지금까지 종교의 장기성과 복합성을 믿고 있지 않으며, 종교사업의 중요성도 믿지 않고 있다. 당 중앙에서 결코 저들에게 종교를 숙청하는 임무를 주지 않았음도 믿지 않고, 모택동 주석의 행정명령으로 군중의 신앙 문제를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다. 저들은 종교와 투쟁하는 것을 스스로 용사가 된 것 같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쾌락으로 삼는다. 종교의 근원이 얼마만큼 심원한지 모르고 있어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종교를 지하로 몰아 넣는 저질형태로 전락시킨다. 그리하여 악당들에게 군중을 제공하는 격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취미와 습관이 있어 어떤이는 음악을 즐기고 또 어떤이는 낚시, 또 어떤이는 음주, 어떤이는 공치는 것을 즐긴다. 그런 것처럼 종교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불허할 필요가 있는가? 하물며 이들 모두는 동시에 국가도 사랑할 수 있는데 말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역대 이래 종교는 국민의 행실을 규범짓는 작용을 한다고 다들 믿고 있다.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한다."이로 보아 비신도들도 결코 종교에 대해 나쁜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호감을 갖기까지 한다. 이런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종교의 소리는 선진적인 도덕과 상호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소 있다. 가치의 기준의 혼란으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종교적 윤리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이익을 도모해 주고 있고 도덕문명을 고취시키는 데도 적지 않는 작용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선도할 때 "이상이 있고, 도덕적이고, 문화가 있고, 규율이 있고"하며 말한다. 이렇듯 종교는 사실상 얼마나 큰 공헌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데도 종교를 말살시킬 필요가 있는가? 나아가서 종

산동성의 어느 농촌에서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다.

교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외도 세세토록 심령 깊숙한 곳에 생과 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동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장기성의 장기란 실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인류가 궁극적인 추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한 종교 쇠망을 운운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종교에 대해 자기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규합하고, 제재하고, 금지하고 조절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일이 겠는가?

어떤이들은 종교에 충격을 가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이는 이런 행위를 무시하고, 구태여 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상은 주관주의 일종으로 그 해로움이란 적지 않을 것이다.

대약진시기에는 극심하게 종교탄압을 가했으며 溫州시는 무종교시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수가 전도시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홍콩의 5%보다 더 높다.

과학적으로 종교를 대하고, 오직 존중하고 자극을 가하지 않으며, 원리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망령되이 조정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교를 반대하고 또는 강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광적인 반응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또한 국가의 복이 아니며 아울러 교회의 복도 아니다. 이런 점에 경험과 교훈을 이미 많이 얻었기에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극소수에 사람들은 종교의 외모를 빙자하여 위법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또는 봉건적인 미신운동을 벌이고 외부의 적과 합하여 침투를 시도하니 이를 강력히 타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불과하다. 우리는 그 많은 신자들을 대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극소수의 범행을 통해 판단 또는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모든 종교활동의 장소는 19호 문건에 의거 응당 절대적으로 확고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며, 허락해 주고 또 금지를 해서는 안된다. 그 중 적지않은 부분이 현대 흐름에 맞추어 문화형, 서비스형, 윤리형의 종교적 양상을 좇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들을 더욱더 장려해 주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구별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정책수립이 된다" 중국 신도들은 적은 수에 달하여

저들의 신앙자유권리와 합법적인 권익 보장도 매우 경시되기 쉽다. 그러므로 종교신앙자유 정책의 선전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오십년대 주 총리는 종교사업에 대한 절실한 관심 속에서 종교신앙자유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창하여 교육의 과제로 삼기도 하였다. 당시 <<인민일보>>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의 부흥을 위해 사설을 발표하였으며 삼자(자치, 자양, 자전)를 옹호한 서명자들의 성명을 일일이 공개하였다. 주 총리는 몇 차례 인민대회와 정협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종교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그 후로는 중국의 각급 간부들은 이미 수차례 자리가 바뀌어서 신앙은 응당 자유롭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점점 사라져 갔다. 종교 사업을 중요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전국의 간부(정부종교사무부 간부)들에게 종교정책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李鵬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철저하게 종교정책을 이행시키고 법에 근거하여 종교사무를 관리할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아울러 종교적인 문제가 단순히 소수민족단합과 관련된 우호문제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족이 거처하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종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의 종교사업은 3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드시 당의 영도하에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이며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1. 정부 종교사무부 2. 각 종교단체 3. 사회과학 종교이론연구부.

정부 종교사무부의 많은 간부들은 능히 종교신앙자유정책의 실현과 완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발 문제에도 유력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부분은 정부개발의 풍랑 속에 있다. 개념이나 기능, 깨끗한 정치 등에 관해서도 자아 개혁문제가 남아 있다. 개념상에 있어서는 종교를 하나의 "평화의 온상" 또는 "사회주의 이기의 힘(畏己力)"이라고 보는 그릇된 관념을 고쳐야 한다는 것과 종교 제재, 제한, 내지는 소멸 등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상에 있어서도 정부종교사무부가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정치 지도이지 업무지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또한 정치를 관여하는 것이지 결코 종교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불법을 처단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것을 처단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사무부의 주요 임무는 종교 신앙자유정책의 선전과 구현을 위한 것에 있다. 직책상에 있어서도 그들은 각교의 종교단체들과 제한 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정치와 종교를 엄밀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자들의 단결은 물론이고 국내, 국제적으로 당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 깨끗한 정치에 있어서도 침략을 하지 않는 기본방침하에서, 종교단체와 신도들의 경제이익을 보장해 주며 "벌금"이라는 수단으로써 종교단체와 신도들의 자금을 빼내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각 종교단체들은 응당 전력을 다해 자신들의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건설을 중요시 여겨, 신자들의 애국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고취시키고 최대한으로 새로운 역량을 배양하여 급진좌경 노선으로 인한 심각한 공백상태의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종교활동, 교육사업, 국제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운영하여 과감하게 본종교의 합법적인 권리를 찾아 교우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어 당과 군간의 정당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종교적 사회과학을 연구한 鄧小平 동지는 "실천은 진리탐구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창한 바 있다.

그 후 제지구역을 철폐하고 사실규명의 정신과 마르크스 종교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제 종교상황에 깊이 들어가 연구조사를 거쳐 종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종교문화와 사회주의는 정치적, 도덕적인 것과 조화를 잘 이룰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것과 또는 종교의 "오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은 사실상 종교신앙자유 확립에 견고한 이론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국제종교문화의 변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으로 주시하여 자신의 관점제시를 통해 국내국제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권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이 3팀에 속한 사람들은 응당 자신들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또 군중의 맥박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군중을 먼저 생각하고 군중을 화해시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도록 한다. 각 분야의 간부와 사회 인사들로 하여금 종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고, 우리 국민만이 지니는 특성을 살려, 사회주의와 상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종교사업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1993년 3월 22일

(『橋』 60期(1993.7)중에서)

번역/박성란(중국어문선교회 회원)

편집자 주: 이 글은 전국정협 제8기 1차 회의에서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 주교가 말한 내용으로, 삼자교회 이해를 돕기 번역해서 실었다.

儒家思想의 理解(1)

조경현

儒家思想의 位相

중국에서 儒家는 漢 以後 淸代까지 정통사상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道家와 더불어 양대사상의 지주를 형성시켜왔다. 따라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유가사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유가는 공자에서 창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儒는 직업적 禮生에서 연변되어온 사회집단으로서 殷士와의 관계에서 보기도 한다. (勞思光 說)

유가는 공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禮를 中心으로 周 文化를 계승하는 사상적 경향성을 지니며 시대에 따라 원시유학, 한당유학, 송명이학, 청대실학으로 변천하며 발전해왔다.

최근 중국에서는 현대화의 주체로서의 新儒學논쟁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실로 유가사상이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儒家思想의 특징과 변천

먼저, 유가사상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가의 학문목표는 '修己治人'의 大人君子의 함양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주된 학문방법으로 '下學而上達'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성인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가사상의 시대에 따라 변천하면서 발전되는 양상을 지니는데, 공자와 맹자 및 순자의 사상에 근거한 '원시유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한당유학'은 유가사상이 동중서 이후 국교가 되어서 經學으로 체계화되고 사장학과 훈고에 집중된 모습을 띈다.

그리고 송대에 와서는 불교와 도교를 극복하고자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가미한 '주자학'이 탄생된다. 주자학은 성리학이나 신유학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는 四書를 중심으로 유가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老佛을 대항하기 위한 形而上學化된 모습의 유학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주자의 居敬窮理는 학문의 정밀함은 있으나 사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비판하는 '양명학'이 육상산과 왕영명에 의해 주창되어진다. 주자의 性卽理가 아닌 心卽理에 근거하여 致良知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그 후에 왕선겸, 고염무, 황

종회 등의 이론에 힘입어 '청대실학'으로 유가사상은 변천되어 간다.

孔子의 思想

1. 공자의 생애 (B.C.551 ~ 479)

공자는 오늘날의 산동성 부근에서 태어났다. 공자의 이름은 丘이며, 자는 仲尼이다. 공자의 조상은 宋人이다. 송나라는 은의 후예이기에 공자의 혈통은 殷人이다. (而丘也殷人也)

殷人중에 지식인 그룹은 周나라에서 禮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공자의 선조들도 이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빈곤하게 성장하였지만 15세에 이미 학문에 뜻을 두었다. 成人이 된 후에 노나라의 조그만 직책을 얻었지만, 35세때에 노나라의 군주가 제나라로 붙들려 가자, 공자도 제나라에서 8년간의 유학생활을 보낸다. 43세때에 노나라로 돌아와 門人을 얻기 시작한다. 51세때에 관직에 초청되고 56세가 되어서는 大司寇의 자격으로 재상의 일까지 관할하였다. 그후 실각하여 12년간의 유랑의 세월을 보낸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양성에 힘쓰다가 73세로 마친다.

2. 공자의 사상

공자의 중심사상은 仁이다. 仁이 무엇을 뜻하는지 논어에 나온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논어』속에 仁을 논한 장은 58장 (492장)이고, 仁은 105번 나타난다.

대체로 仁이란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을 달성케 하는 것이다.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 雍也 -

안연이 仁을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
(顔淵問仁, 曰, 克己復禮爲仁。)

- 顔淵 -

중궁이 仁에 대해 물으니, 자기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仲弓問仁, 己所不欲, 勿施於人。)

- 顔淵 -

번지가 인에 대해 물으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라 하였다.
(樊遲問仁, 子曰愛人。)

- 顔淵 -

오직 어진 이만이 남을 좋아 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子曰, 惟仁者能好人, 能惡人。)

- 里仁 -

위에서 나오는 귀절에 의하여 생각해 볼 때 仁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아서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즉 사사로운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仁'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사랑'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 사랑이 어떠한 구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사랑인가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하여『논어』에서는 중요한 암시가 되는 귀절이 적혀있다.

子曰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唯라 子出커늘 門人이 門曰 何謂也있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

-里仁-

위의 귀절에서 공자는 나의 도가 '하나로 꿰뚫었다.'(一以貫之)고 했는데, 그 내용을 증자는 '忠恕'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자의 중심사상이 仁이라면, 忠恕가 仁을 풀어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忠恕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주자는 '盡己之謂忠'이요 '推己之謂恕'라고 주를 달고 있다. 즉 자기를 다하는 것이 '忠'이요. 나로부터 미루어 나가는 것이 '恕'이다.

이는 忠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自己完成의 뜻을 지닌다면, 恕는 내마음에 미루어 남에게 까지 시행해 나가는 他人完成의 뜻이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孟子가 말한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라고한 귀절이 反求諸己에 의한 忠의 원리에 입각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大學』의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는 推己及人의 원리에 의한 恕의 원리임을 볼수 있다.

따라서 忠恕가 유가의 핵심논리이며 그것이 '仁'에 압축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인간 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조경현/철학 박사,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 소수민족의 종교신앙

한족

한족(漢族)

한족은 옛부터 각종 종교를 수렴하여 병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天命 숭배와 조상 숭배는 한족의 종교관념의 주된 전통 사상이었다. 그 중 도교는 한족에게서 형성된 종교로서, 고대의 무속과 秦, 漢대의 신선방술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본 신앙과 교리는 "道"로 요약된다. 우주, 음양, 만물은 모두 "道"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로 숭배하는 신은 "道"로 말미암아 인격화된 삼청존신(三淸尊神)이다. 그 중의 도덕천존(道德天尊)은 바로 노자로, 한족의 일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다. 한대 이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다수의 외래종교가 전입되자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들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

만주족(滿族)

만주족은 일찍이 다신교적 샤머니즘을 신봉했다. 샤머니즘 중 가장 높이 숭배한 최고신은 천신(天神)이었다. "샤먼"은 퉁구스어로서 한역하면 "무당"의 뜻이다. 초기에는 궁정의 샤먼과 민간의 샤먼으로 양분되었다. 청조의 역대 황제들은 제신, 제천행사 등의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때 궁정의 샤먼들이 만주어로 강신주술을 읊곤 했다.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북지방의 영고탑(지금의 흑룡강성 영안)과 애혼(愛琿) 등지의 만주족들이 여전히 샤머니즘을 신봉해 왔다. 민간의 샤먼은 강신을 주로하는 샤먼과 제사를 관리하는 집단의 샤먼으로 양분되었으나 현재는 소멸된 상태이다.

조선족(朝鮮族)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신앙을 가져왔는데 기독교와 천주교 외에 민족 특유의 천도교, 청림교(靑林敎)등을 믿어왔다. 불교 또한 조선족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만주족

몽고족

회족

혁철족(赫哲族)

혁철족은 원래 샤머니즘을 숭배하였는데 만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어왔다. 샤먼은 보통 반은 신선화된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며, 신모(神帽), 신치마(神裙), 신신발(神鞋), 방울 등의 특수한 복장을 착용하였다. 강신의식을 행할 때는 특별히 많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는 주지 않는다. 중공정권수립 이후 혁철족의 신앙관념 또한 점차로 옅어져 갔다.

몽고족(蒙古族)

몽고족은 원래 샤머니즘을 숭배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라마교를 믿게 되었다. 몽고족의 라마교 신앙은 원대부터 시작된다. 즉 원 세조의 창도로부터 시작되는데 서장의 라마교 영마파를 우선으로 몽고족의 통치계층 내에 포교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명말에 이르러는 내몽고 지방에서 격노파(格魯派) 라마교가 신속히 확장되어, 청말에 이르자 내몽고의 라마교 사원이 약 일천 개에 이르러 그 건물들의 웅장하고 우아함이 마치 불교국 같은 느낌을 주게 할 정도였다.

청 정부는 몽고족의 라마교에 대해 엄격하고 완벽한 제도를 제정케 했다. 당시 몽고족 남자의 반수 이상이 라마승이 되었으므로 결국 몽고족의 사회적 생산력이 약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생활의 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 중공정권 수립 후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폄에 따라 민중들이 라마교에 대한 자유로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우르족(達斡爾族)

다우르족은 과거 주로 샤머니즘을 숭배했다. 후룬빨멍 지방의 다우르족 중 일부 사람들은 라마교를 믿기도 한다. 관우에 대한 신앙숭배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오원커족(鄂溫克族)

오원커족은 과거 다신교적 샤머니즘적 신앙을 숭배했는데 유목지역에 사는 오원커족은 라마교를 함께 신봉하고 있다. 첸발후치지역과 얼꾸내쯔치지역의 오원커족은 아직도 그리스정교를 믿고 있다. 원시사회의 색채가 비교적 농후한 얼꾸내쯔치 지역은 아직도 샤먼이 씨족의 무당으로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씨족의 족장으로서 씨족의 생산과 생활을 영도해 나가고 있다. 1945년 이전에는 동물숭배, 토테미즘과 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일부 씨족에서는 새나 곰 등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오르쭌족(鄂倫春族)

오르쭌족은 다신적 샤머니즘인데 그 중 자연숭배, 조상숭배와 무속 등이 서로 함께 얽혀 있다. 이 민족은 일찍이 만물에 정령이 있다는 종교관을 갖고 있어서 수렵경제 및 씨족제도의 생산과 발전에 있어서도 토테미즘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조상의 정령을 대표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하

는 전문적 무당 샤먼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병자를 위한 기도, 죽은자를 위한 축원, 수렵생산의 풍부한 수확 등을 기원하는 것 등이다.

회족(回族)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의 주요교리는 유일신 사상,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도, '코란'은 알라의 계시가 담긴 경전, 세상의 모든 일은 알라의 예정이라는 것, 사후부활, 말일심판 등등이다. 교리와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관계로 많은 교파가 생겨났다.

이러한 교파는 크게 사제가 있는 교파와 없는 교파로 양분된다. 사제가 있는 교파는 이슬람교의 비밀결사로 불리워지는데 "참된 주"를 믿으며 "성화(聖火)"를 숭배하는 뿐만 아니라 "성처(聖妻)"와 "성녀(聖女)"를 숭배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교파의 각 지도자들은 깊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띄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슬람교는 회족의 형성, 발전과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향족(東鄕族)

동향족은 보편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이슬람교의 교파는 매우 복잡할 정도로 많은데 동향족 지역의 이슬람교는 주로 "노교(老敎)"와 "신교(新敎)"등의 두 파로 나뉜다. 노교는 사제제도가 있는 교파이고, 신교는 없는 교파이다. 신교는 노교의 종교활동과 예배의식의 대부분이 이슬람교 경전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주문, 예배, 시주, 수업, 참배" 등의 5대 종교행위는 신교, 노교를 막론하고 모두 실행되고 있다.

토족(土族)

주로 라마교의 격노파(황교)를 믿고 있다. 그들이 모여사는 각 촌락에는 라마교 사원이 거의 한개 정도씩 있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는 비교적 큰 사원이 있다. 라마교와 토족은 조상숭배와 다신숭배의 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도교를 믿기도 한다.

살라족(撒拉族)

살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매우 강한 종교 의식을 소유한 살라족은, 종교 교리상 다른 이슬람교도와 같이 "목숨은 버릴지언정 신앙은 버릴 수 없다"는 구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사제제도가 성립되어 출현한 후, 살라족 내의 통치계층은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하는데 유리한 이 종교제도를 받아들였다.

신교가 들어온 후 그로 인해 이익상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인식되어 교파간의 분규가 때때로 발생하곤 하는데 대중들에게 매우 큰 재난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보안족(保安族)

보안족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순니파(遜尼派)에 속하며, 그 내부는 다시 신교, 노교로 양분된다. 근대 이래 신파,노파에서 다시 지명을 따라 명명된 "고조가(高趙家)" "애두(崖頭)"의 두 파가 생겨났다. 중공정권수립 전에는 종교적 억압이 매우 심했다. 혼인, 상제, 절기, 가정생활 및 사회풍속방면에 종교적 영향을 매우 깊이 받았다.

유고족(裕固族)

유고족은 주로 라마교 격노파(黃敎)를 믿으나 원시적 샤머니즘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라마교는 유고족의 경제생활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그르족(維吾爾族)

위그르족은 고대에는 샤머니즘, 마니교, 경교, 배화교, 불교 등을 믿었으나 11세기 이후로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어왔다. 대부분 이슬람교 정통파인 순니파를 믿으며 소수는 이슬람교 중의 의선파(依瑪派)를 믿는다. 중공정권 수립 후 종교지도부 인사들의 사법권 관여(예를 들면 종교재판), 교육에의 관여, 종교헌금 징수 등의 특권 등이 취소되었으나, 정상적인 종교활동

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호 해 주고 있다.

카자흐족(哈薩克族)

이슬람교를 믿는데 교리, 율법 및 기타 신앙은 타 이슬람교 신봉족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교파간의 분쟁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목축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수농업지역의 교당에서 단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유목지역에는 교당이 없으므로 호가 단위로 실내에서 혹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회교승들이 종교방면의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군중들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키르키즈족(柯爾克孜族)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다. 교리, 율법 및 각 종교의식 방식 등이 여타의 이슬람 신봉족과 기본상으로 일치한다. 신강성 액민현(額敏縣), 흑룡강성 부유현(富裕縣)의 일부 키르키즈족들은 라마교를 믿는다. 또 부유현의 일부 키르키즈족들은 샤머니즘을 숭배하기도 한다.

시버족(錫伯族)

신강의 시버족은 아직도 고대 시버족의 풍습상 종교를 갖고 있다. 밭 신, 토지신, 용왕, 벌레왕 등의 다신교를 숭상하는데 이것은 원시 종교의 자연숭배에 속한다. 동북 만주지방의 시버족은 샤머니즘, 혹은 라마교를 믿고 있다.

타지크족(塔吉克族)

보편적으로 이슬람교의 이스마엘파를 믿고 있는데, 신강지역에서는 오직 타지족만이 이 교파를 신봉한다. 이 교파는 종교 교리상 다른 파와 비슷하나 종교수업방식은 자기 파만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종교활동이 비교적 적고 회교사원도 매우 적으며 교도들도 단식이나 참배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일부 노인들이 집안에서 하루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일반인들은 절기에나 예배를 드리는 정도이다. 종교지도자를 "의선(依禪)"이라 부르는데 각 가정의 교도들은 대대로 어떤 한 의선, 혹은 의선의 계승자를 믿고 따르고 있다.

우즈벡족(烏孜別克族)

이슬람교를 믿는다. 신도들은 중요한 종교활동을 주로 회교사원에서 거행하는데 각종 명목의 성직자들은 이슬람교 활동의 구체적 집행자와 조직자이며, 그들은 아훙(회교 교사), 모라(회교승), 카즈, 알람, 이맘(지도자) 등의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각 성직자는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우즈벡족의 종교업무를 맡고 있다. 중공정권 수립 이전까지는 회교의 우즈벡족에 대한 지배가 매우 엄중하였다.

러시아족(俄羅斯族)

대다수가 그리스정교를 믿으며 기독교를 믿기도 한다.

조선족

이족

장족

백족

그리스정교는 동방정교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발전 과정 중 형성된 3대 교파 중 하나로서 다른 교파와 같이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론, 천국과 지옥, 말일심판 및 교리에 순종할 것 등을 제창하고 있다.

천주교와 다른 점은 로마교황을 다른 주교들 보다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진 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교 이외의 다른 성직자들은 혼인이 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리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천주교와 약간의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그리스정교를 믿는 러시아족은 매일 두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4,5시경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저녁 8,9시경에 드리는 예배를 소예배라 하고 있다.

타타르족(塔塔爾族)

이슬람교를 신봉하는데 생활, 문화에 있어 이슬람교의 영향을 매우 깊게 받고 있다. 각 타타르족의 이슬람교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종교의식을 행해야 한다. 매일 다섯 번씩 나마르(이슬람교의 예배, 독경)를 행해야 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주마"라고 한다. 또 해마다 한 달씩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기간에는 해 뜬 이후로부터 해 지기 전까지 먹고 마실 수 없게 되어 있다.

장족(藏族)

보편적으로 라마교를 믿는데 라마교는 장족지구의 불교 즉 장전불교(藏傳佛教)의 속칭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장족은 주로 본교(本教)를 신봉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다신적 원시종교였다. 불교가 전입되자 각 부락의 귀족과 본교의 무당들의 권력세습에 위협이 가해지게 되어 불교와 본교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후에 불교가 다신교적 본교에 양보하여 본교의 많은 신을 자신의 신으로 대량 흡수하였고 본교의 모종의 의식들을 자신의 의식으로 흡수함으로써 일종의 장족화한 불교가 형성되었다. 장전불교에는 영마(寧瑪), 갈거(噶擧), 살가(薩加), 격노(格魯)의 4대 교파가 있다. 그 중 격노파를 속칭 황교(黃教)라 하는데 사원과 집단세력이 가장 크다. 황교에는 살아있는 부처를 세상에 전해오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달라이 라마와 반선(班禪)의 양대 계통으로 전승되었다.

먼빠족(門巴族)

라마교를 주로 믿는데 어떤 곳에서는 원시종교를 믿기도 한다. 먼빠족 지역의 라마교는 장족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사원은 주로 영마파에 속하고 있으며 영마파의 라마는 처자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먼빠족의 라마는 살아있는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독경 집회가 있을 때에만 사원에 가게 된다.

뤄빠족(珞巴族)

만물정령사상의 원시종교를 믿는다. 종교의식의 집전자는 민간의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무당이다. 길흉화복, 의문점의 해석 등은 모두 점괘를 통해 풀이한다. 일체의 의외적인 사건은 모두 마귀의 장난으로 간주, 가축을 죽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재난을 피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혼례, 상제, 집짓기, 씨뿌리기, 수렵 등 모든 일에 길흉을 점치는 일이 보편화되어있다.

강족(羌族)

원시 유물숭배 사상이 강족의 의식 속에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족지역 인근의 강족은 라마교를 믿기도 한다. 기독교가 전파된 후 소수가 믿기도 하였다. 강족이 가장 숭배하는 신은 천신(태양신)으로서 신의 상징으로 조각된 신상은 흰 우유빛의 석영석으로 되어있다.

이족(彝族)

양산(凉山) 이족의 신앙관은 주로 만물정령, 자연숭배, 조상숭배 등이다. 자연숭배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정령과 귀신에 대한 믿음이다. 조상숭배에 있어서 부모의 영을 "안영(安靈)" "송영(送靈)"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부계 씨족혈연 유대관계에 의해 탄생된 일종의 엄격한 조상숭배 사상이다. 운남, 귀주의 이족은 비교적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세기 말, 천주교, 기독교가 이 족지역에 들어왔으나 믿고 있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족(白族)

백족은 상당수가 부락공동체의 신인 본주(本主)를 믿고 있으며 또한 불교도 믿고 있다. 본주에는 자연신도 있고 남소(南詔), 대리국(大理國)의 왕자도 있으며, 어떤 것은 민간의 재앙을 막아낸 영웅적 인물이기도 하다. 불교사원은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나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비교적 원시적인 무속숭배 사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도교를 믿는 이도 있으나 천주교, 기독교의 신자는 극소수이다.

하니족(哈尼族)

다신교와 조상숭배를 갖고 있다. 무당은 "패마(貝瑪)"와 "니마(尼瑪)"로 불리는데 패마는 주로 경을 읽어 마귀를 쫓거나 영혼을 보내는 역할 등 비교적 큰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니마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 주거나 무술을 행하고 약초로 치료를 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서쌍판납(西雙版納), 란창(瀾滄) 등지의 하니족은 매년 울타리 신을 상징하는 용파문(龍巴門)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불교, 기독교가 하니족 거주지역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中國民族指南』 중에서)

번역/ 배다니엘(중국어문선교회 협력간사)

(다음호에 계속)

위그르족 어린이들

최근 중국의 농촌 현실과 문제

강성광

요즘 중국은 지나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 통제 및 조절 정책의 강화, 그리고 반부정, 부패 운동으로 약간 위축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고도성장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불붙는 경제 과열이나 많은 인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구조 깊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아직까지 중국 전체 인구의 75~80%, 약 9억의 인민이 살고 있는 농촌의 문제이다.

14년 전 78년부터 중국이 경제 개방을 실시한 이후로 중국은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더욱이 작년 이후로는 전방위 개방이라는 구호아래 중국 전지역 경제 개방을 시도하여 적지 않은 내륙지역까지 경제 개방의 물결을 타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 개방 지역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중국 전체 면적 중 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이고 339개의 현 몇 시 지역의 3억 2천만의 인구만 실제 경제 개방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역으로 약 9억의 인구는 중국의 경제 개방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다.

중국은 본래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농업 인구가 전세계 농민 3명당 1명이 중국 농민일 정도로 많은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다. 중국 농촌의 변혁은 1980년 집단 농장제에서 승포책임제(承包責任制), 즉 농가호, 노동 능력, 사람 숫자에 따라 분할되어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5~6년간은 엄청난 농산물 증산을 이룩하여 농촌 상황이 대폭 개선되는 듯 했는데 정부의 대책 부족, 가격 불균형, 운송 문제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다시 생산 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총체적으로 생산 증감과 큰 관계없이 대다수의 농촌 지역과 농민의 수입 정체로 농촌 문제의 여러 심각성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1992년말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0여 차례의 농촌 소요 및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그 지역도 동북의 흑룡강성에서부터 남쪽의 광동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고, 또 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 한 해 동안만 천여 건의 농촌 농민 항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올 6월 사천성 인수현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 폭동 사건이다. 그 발단은 그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도로 건설비의 1/3을 그 현 주민들(140만 인구)에게 부담, 적게는 개인당 30원(인민폐) 많게는 50원까지 내게 함으로 인수현 모든 농민들의 반발을 산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사실 농민 1인당 1년 총수입은 3~4백

원, 적게는 2~3백 원 내외인 상황에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많게는 만여 명의 농민이 공안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세무소, 공장, 학교 등이 파괴되고 많은 공산 당원 및 간부들이 집단 구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통적으로 빈곤한 중국의 농촌 상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4년 경제 개방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얼마전 중국의 관방매체인 「인민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의식주 문제가 어려운 인구가 8,0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촌 사람들이다. 즉 절대빈곤층인 이들 빈농들의 1년 수입은 2~300원(한화 2~3만 원)이다. 관방매체의 보수적인 통계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는 1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중국 통계연감과 중국 농촌 통계자료를 보면 1986년까지 9,605만 명의 농민이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고, 약 2.77억 농민의 연수입이 300원(당시 환율 한화 1:160)미만이고, 5천만 인구가 식수난 가운데 있으며, 약 5억의 농촌 사람이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식수를 마시고 있다.

약 7천만 농촌 인구가 매년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 3~5개월을 연료 채취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1.2%의 학령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몇년전의 통계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서 91년까지 농민 연평균 수입 증가가 매년 0.7%로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은 27.1%나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이 감소되었고, 또 92년도에 3.7%의 획기적인 농업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20%이상 되는 공업 성장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치이고, 이 3.7%의 성장도 동부 및 남부 연안지역의 농민들(이 지역 부농들은 토지(농토) 전매 및 여러 상업 활동을 통하여 최근 백 만, 천만 원대 재산 소지자가 적지 않다)의 수입 증가 요인으로 끌어올린 것이지 내륙지역의 농촌 수입 증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 격차와 생활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1992년 농민 1인당 1년 평균 수입이 770원이고, 도시 노동자 수입은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 가격의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면 농민들과 도시민의 생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농촌에 살고 있는 중국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들.

다.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의 부담율도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데 도시는 1인당 부양가족수가 1.71인 것에 비하여 농민 1인당 부양가족수는 1.87인이다.(농민, 노동자 15세 이상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럼 이런 중국의 농촌 현실에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몇가지 이유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속되는 경작지 감소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전체면적 가운데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의 실제 경지 면적의 농토가 있는데, 1957년부터 1977년까지 20년 동안 12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유실 및 건설용지, 폐기 등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매년 경작지 감소 면적이 복건성의 경작지와 맞먹는 엄청난 토지 면적이다. 그리고 근래들어 전국적인 경제 개발구가 8,000여개에 이르러 경작지 감소 면적은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필자가 지난번 장강을 배로 여행하면서 중국의 농촌의 심각한 토지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강 언덕 산골짜기의 경사가 최소한 7~80도의 급경사인 벼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지역은 사천성으로 마침 배에서 광동지역에 돈 벌러가는 농민들을 통하여 토지 부족 등 여러 어려운 농촌 실정을 듣고 실감할 수 있다).

농촌에 있는 이발관.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고 있는 모습.

참고로 중국 농촌인구 1인 평균 경작면적을 82년 통계로 294평밖에 안되는데, 2000년이 되면 농촌인구 1인 평균 경작면적은 240평밖에 안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세계평균 농촌인구 경작지의 약 1/4밖에 안되는 적은 경작 면적이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 및 심각한 문맹

중국의 심각한 교육 환경 및 문제는 곧 농촌의 문제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령아동의 실한 현상이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고, 2억이 넘는 문맹 및 반문맹의 인구군이 대부분 농촌에 편재해 있는 실정이다. 농민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5% 미만이고 대학 졸업자는 0.04% 미만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가속화되어 농촌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같다(성년 농민 3,200명 중 대졸자 1명).

근래 농민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다. 1985년까지는 정부에서 농촌 국민학교 학생 1인당 년 22.5원씩, 중학생 1인당 31.5원씩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역에서 1986년부터 정부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민 부담으로 돌림으로 인하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비 부담이 커지고, 또한 대학 교육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자비 부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농촌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 농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문맹과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물가 하락 현상

근래 몇 년 동안의 풍작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곡물가격 자율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곡물 및 농산품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고있다. 각 성마다 농산품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쌀이 많이 생산되는 호북, 강서, 강소성 등 주요 곡창지대의 쌀값이 1990년에는 50kg당 40원(인민폐)였는데, 1992년에는 정부 수매 가격인 50kg당 24원 밖에 안되는 데다가 자금 부족으로 정부 수매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민은 할 수 없이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가격이 폭락하여 많은 지역에서 50kg당 17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농민의 사기 저하 등으로 92년 여름 어떤 지역에서는 곡식 수확을 포기하는 곳도 있었다. 필자도 어느 지역 시장에 가서 쌀값이 91-92년 사이에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인플레로 인한 수입 감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89~91년 농민 수입 증가가 평균 0.7% 성장에 인플레는 같은 기간에 27%나 상승한 것으로 볼때 내륙지역의 일반 농민들의 상대적 수입 감소는 가속화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커 실제적으로 곡물가 외에 가격 인플레 현상이 농촌가계에 더욱 심각하다.

93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5%가 되어 도시지역의 물가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또한 비료값, 농약 및 농기구 값이 모두 대폭 상승하여 농민 부담을 더하고 있고, 비료 등 일부 품목들은 정부 가격이 아닌 암시장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치루어야 한다. 계속되는 시장 경제 체제의 전환에 따라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과중한 세금 징수

근래 발생한 농민 항의 및 반정부 시위 발달이 대부분 과중한 세금 징수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본래 중국은 법적으로 세금이 전체 수입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에서 이 규정을 훨씬 초월하여 10%이상 어떤 지역에서는 15%이상의 세금 징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항목도 수도 없이 많아 세금 명목이 아닌 여러 구실로 각종 수수료의 항목을 만들어 농민에게 요구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200 항목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빈곤한 지역에서 지방 관리들의 부패 현상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또한 이런 지역의 농민들 스스로 보호 의식 수준이 안되어 극빈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농촌의 과잉 노동력 문제

중국의 인구 문제는 바로 오래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의 불모가 되어 왔다. 그 인구 문제가 바로 농촌 문제이기도 하다. 8억 이상의 농촌인구는 계속해서 빈곤의 재생산을 하는 과잉 노동력을 산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매년 2천만 명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엄격한 인구 통제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2명의 자녀까지 허용하고, 특히 남아선호 현상으로 계속 낳아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1984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성년 노동인구가 3억 1,685만 명인데 매 농업 노동력 1년 평균 작업일이 191일 밖에 안된다고 한다. 즉 엄청난 노동력 잉여 현상인 것이다. 매 노동력 1년 총 작업 일을 270일로 계산할 경우 필요한 노동력은 2억 3,050만 명의 노동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볼때 1984년 중국의 잉여 농업 노동력은 9,488만 명, 약 1억 인구의 잠재

실업군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그 후 10년 가까이 중국의 공업 성장으로 상당한 농업 노동력을 흡수했지만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증가를 초과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농촌은 두 사람이 먹을 밥을 세 사람이 나누어 먹고 있는 실정이다.

백조(白條) 문제

중국 농촌의 또다른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백조(白條)문제이다. 이것은 작년부터 대부분의 돈이 공업, 건설업 등 과열 투자 현상으로 수급이 딸려 곡물이나 농산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돈 대신에 수표와 같은 영수증을 주는데 이것은 몇개월이 지나도 현금으로 찾아 쓰기가 어려운 부도난 수표와 비슷한 현금 대체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몇달씩 지나야 현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이 농촌 지역에서도 유행하고 있고, 필요한 농용 물품들을 구입하지 못한 농민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난 구정 때는 사상 가장 많은 민공(농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직업을 찾아 유랑하는 경우)인파가 연안지역 도시로 밀려 큰 혼란을 빚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버리고 도시지역에 가서 직업을 찾아 유랑하는 수천만 명의 인구군이 항상 전국의 기차 역등에 움집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의 농촌 정책 미흡

본래 중국의 개혁은 농촌부터 실시되었다. 농촌 정책의 최고조기는 70년대말에서 80년대 중반기였다. 당시 농촌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한 지도층은 사천성 공산당 서기인 조자양과 안휘성 서기인 만리(萬里)였다. 그래서 두 성의 그당시 농민 수입은 큰 진전을 이루어서 유행어가 돌기를 "要吃粮找趙紫陽要吃米找萬里"(양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조자양을, 쌀을 제대로 먹으려면 만리를 찾아라)라고 까지 했다.

1980년 두 사람 모두 승격되어 중앙 정부에 가서 조자양은 총리로, 만리는 부총리로 그때부터 농촌 개혁이 더욱 가속화되고 중앙 직속의 전문 농촌 정책 연구실, 농촌 연구원들이 정책 개발을 주도했다. 그래서 농촌 개혁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도층의 변동이후로 농촌 경험 및 정책을 주도할만한 인력 및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 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92년 2월 등소평이 개방 개혁의 가속화를 주창할 때, 90년 큰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농업 문제가 될 것이고, 농업문제가 발생한다면 몇해 동안 안정을 되찾기 어렵고 모든 경제, 사회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등소평의 경고를 듣고 중앙 지도층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대책 회의를 열고,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국회)에서 적지 않게 논의되어 농촌 문제를 주용기 부총리에게 떠맡겼지만 그도 농촌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다시 경제 주관쪽으로 가서 금융 질서 정돈 등의 일에 매달려 정부의 농촌 정책 일관성 및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열거한 여덟 가지 농촌의 문제들 외에도 농민들이 시장경제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므로 빈농에서 부농으로 발전하는데 큰 한계점을 드러내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과 필요한 대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추세로 볼때 2000년에 가면 중국 농촌인구는 10억을 초과하게 되어 최소한 2억의 잉여 노동력을 농촌에

농촌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관광객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

서 빼어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인민폐 2조억원씩 공업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력을 다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쓰지만 엄청난 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투자가 적고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농촌의 3차산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농민의 수입 확대 및 노동력 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농촌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증가와 일관적으로 계속적인 개혁 정책실시, 농촌 관리들의 부패 척결이 암담한 중국의 농촌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관심자들은 더더욱 중국인의 2/3이상이 살고 있는 열악한 현 중국 농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더 깊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중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농촌에 있지만 어떤 농촌 지역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다. 사천성은 인구가 1억 2천만이 되는데 이 사천성의 남부지역은 3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관방교회와 가정 집회소를 포함하여 15개의 예배 처소가 있고, 21명의 사역자 밖에 없다고 한다. 중국 농촌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자!

고기잡는 어망을 만들고 있는 시골 할아버지

강성광/중국어문선교회 파송선교사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돌아갑니다"

주성지

평양의 도시계획은 잘 되었지만 생필수품이 부족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이 지역 감시자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저녁식사 때 듣던 테이프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좀 빌려 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0월 0일

북조선 친구 A가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쇼크"를 읽었는데 30%밖에 접수(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빌려 주었다.

미화 300$이면 평양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데, 하루 세 끼조차 넉넉지 못한 저들의 궁핍한 생활을 어떻게 감싸주어야 할지. 식당에서 그들 옆에 앉아 반찬을 같이 먹자고 권하지만, 나눠먹자는 의도를 이해못하겠다는 눈치다. 그러나 주머니에 찔러 준 약간의 식권은 며칠 후 A의 얼굴에 핀 마름버짐을 없애주었다.

북한 빨갱이는 뿔도 없었고 얼굴도 붉지 않았다. 내 동생들처럼 가난이 부끄럽고, 좋은 옷이 부럽고, 맛난 음식 먹고 싶은, 피부색이 같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내 형제였다.

"저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0월 0일

북조선 친구 K는 내게 자주 놀러 오지만 필요 이상의 경계를 한다. 누님같은 분이 남조선 사람이라는 데 놀랐다는 K. K가 저녁을 먹으면서 녹음기에 무슨 테이프가 들었는지 확인도 않고 Play를 눌렀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두 명의 북조선 친구가 갑자기 엄숙해지면서 식사시간 내내 진지하게 듣는다.

밤 11시 반에 K가 다시 찾아왔다. 공산당원은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본인은 욕심이 많아 당원이 되기를 지금껏 미루어 왔단다.

평양의 도시계획은 잘 되었지만 생필수품이 부족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이 지역 감시자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저녁식사 때 듣던 테이프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좀 빌려 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눈들이 많으니 조심해서 들으라고 소형 카세트와 함께 빌려 주었더니 다음날부터 만

나면 언제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모습이다.

0월 0일

A는 빌려간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읽기 시작하고 보니 책을 놓을 수 없어 다 읽고 나니 정말 새벽이 밝았더란다. 20년 간 종교의 해독성을 공부하고 신약성서도 읽었지만 예수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누이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 설교 테이프를 빌려 주었더니 A는 말씀을 외우며 목사님 흉내를 낼 정도로 말씀에 푹 빠졌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나라, 정치교육의 모순 등, A는 자기 나라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돌아가 조선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다.

북조선에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모순점을 물어볼 데가 없었단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A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일러주었다.

0월 0일

북조선 H가 귀국한다고 해서 갈치 굽고 된장 끓이고 더덕무침으로 아침상을 차렸다. 공교롭게 인사차 찾아온 이웃의 북조선 인민들에게 식사시간을 들켰다. 자기네의 높은 분이 남조선 사람과 식사한다는 호기심에 방문에서 머뭇머뭇하는 이들을 할 수 없이 들어오게 해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게 웬일인가, 나가면 또 오고 나가면 또 오고, 이 아침에 10명이 식사를 하고 갔다.

우리 나라의 신문, 월간 신동아. 한국화보 등이 옆에 많았지만 의식적으로 피하고 식사만 하고 황급히 나가는 이, 운이 좋아 남한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어 보았다며 서로 눈치보는 그들에게 오면 언제든지 맛있는 것 해드리겠노라 약속을 했다. 감기 걸린 분한테 약을 드렸더니 모두 한 가지씩 병 자랑을 해 가지고 있던 상비약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0월 0일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북조선 친구가 빌려간 "성경", "새벽을 깨우리로다", "미래의 쇼크" 등등 전도책자를 싸들고 찾아왔다. 그 시간 나는 S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 불과 8시간 전이었다.

모든 짐을 꾸려놓고 냉장고 코드마저 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안도의 숨을 쉬는 이 친구, 오늘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에 새벽차를 탔단다.

책을 빌려간 이후 바빠서 읽을 틈이 없었는데 병이 나서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으면서 다 읽었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 나라에도 허락이 되면 꼭 이 종교를 믿겠습니다" 찬송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빈 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설교 테이프도 중국에 있는 동안 들으라고 주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의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공산주의를 비교하고 함께 찬양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이 부분을 인민이 다스릴로 그들은 안다)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물론 이사야서를 펴 이 찬양의 근원도 찾아 확인해 주었다.

0월 0일

5개월째 주일 예배를 마당에서 드렸다. 예배시작 한 시간 반 전에 도착해도 이미 본당은 문이 닫혔고 마당에서 간신히 앉을 자리를 찾는다. 아무렇게나 자리를 잡아 걸터앉고 마당에 신발 깔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들. 우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70~80%가 거지 행색이고 교회를 더럽힌다고 쫓아내야 할 이들

자전거를 타고 출근, 등교하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의 모습.

이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당 마당에서 헌 옷가지와 쓰던 성경 찬송을 파는 노점상이 있어도 쫓아내거나 개의치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주일 대목을 잡아 교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목사님의 권위와 노점상인의 권리가 평등한 사회주의 사고는 우리에게 낯설기만 하다. 공산정권은 앞으로 선교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미 열어 놓으신 때인가보다 매주일 믿는 사람의 수가 눈이 띄게 늘어만 간다.

0월 0일

세번째 중국을 방문하신 미국 목사님이 현지 사역자라고 찾아 오셨다. 부족한 일꾼을 위해 올리신 넉넉한 축복기도와 한 시간 남짓의 담화는 나만을 위한 심령부흥회였다. 목사님은 교회가 중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만 하면서 방문하기를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번에 북한을 드나들며 행상하는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나셨단다.

이 아주머니는 성경을 북조선에 나르며 말씀으로 20명을 몰래 양육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명단을 주셨단다. 요즘 북한에서는 믿는 사람이 드러나면 불태워 죽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겨진 그루터기는 보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꼭 필요한 때 준비된 일꾼을 쓰시니 준비하라고 당부하셨다.

0월 0일

XX네 온 가족이 올망졸망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선교를 위해 이민을 왔다. 안정된 생활을 등지고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온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중국에 꼭 필요한 것이며 완벽한 선교전략이지만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해 온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중국의 장기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한다는 업무 중심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역의 첫걸음인 것 같다. 지난 일 년 간 돌아보면 주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빗나가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어 기도만 했을 때 예비해 두신 일을 주셨다.

0월 0일

"우리의 인격과 가정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정체, 건강

을 좀먹고 인격을 파괴하는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라"

H는 불법체류 유학생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언어 장애 등 외국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밤 술을 마시는 한국 학생이다. 오전 내내 복통을 가라앉히고 밤엔 또 술을 마시는 생활의 연속, 알고보니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는데 중국와서 술친구를 잘못 만났단다.

심방을 갔다. 술마시는 습관을 청산하고 싶다고해 같이 중국어 설교집을 읽으며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싸맸다. 우연한 기회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설교테이프를 듣더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쉬지않고 말씀을 찾아 듣는다. 아직은 옛 습관에서 비틀거리는 시간이 많지만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 H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실지 기도하며 지켜보리라.

0월 0일

3개월 입원하라는 중국 의사의 진단에 나는 급히 귀국해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 보니 이 병원도 100여 년 전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작은 학교였다. 나의 사역지인 소학교도 100여 년 후엔 이 병원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대되어 다가온다.

병상에서 소설 "목민심서"를 읽었다. 천주교가 조선시대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읽은 것도 오늘 내가 중국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난 일 년 간 사역지에서 늘 여의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사역은 시작을 못했다. 이 가을부터 시작하리라 계획했는데 질병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앞으로 1년 간 약을 먹으며 더 치료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아직 일을 시작지 말라는 주님의 싸인으로 받으려 한다.

아무 것도 계획지 말고 현지에서 살기만 하라는 원칙을 고수하려 한다. 여러 가지 형편상 자세히 글을 쓰지 못함을 양해 바라면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주성지/중국어문선교회협력선교사

蔣中正

(1887~1975)

절강성 봉화현

『예수 그리스도와 총리의 신도』로 자처한 당대의 뛰어난 인물

故 장중정 선생(1887~1975)은 위대한 애국자요, 탁월한 정치가였으며, 참신한 그리스도 신자였다. 어린 나이에 혁명에 뛰어들어 청나라 왕조의 체제를 뒤엎었고, 중화민국이 세워진 후에는 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중년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신앙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동포들을 이끌어 중국으로 하여금 안정되고 이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분의 일생 동안 쌓은 많은 업적들은 역사에 그 기록을 다 적지 못할 정도지만, 본 글에서는 그의 가문에 관한 내용과, 어린 시절 • 학창시절, 일생 동안 쌓은 업적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려 한다.

장 총통은 족보상의 이름으로 周泰이고 학명은 志清이고 자는 端元이고 호는 介石이다. 혁명운동에 참여한 후 국부 손문 선생이 '中正'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 그 이후로는 '中正'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활동하였다. 서양에서는 그의 호인 '介石'을 음역하여 'Kai-Shek'라고 불렀다.

그는 청나라 광서(光緖)十三年(1887) 9월 15일 (양력으로는 10월 31일)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절강성 봉화현 계구진이었다.

장중정의 조부이신 玉表公께서는 溪口鎭에서 소금사업을 경영하며 玉泰라는 점포를 열었다. 이 점포는 그 지방에서 유일한 소금집이었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玉表公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베풀기 좋아하여 많은 곳에서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의술도 갖추어 남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그는 몸이 건강하여 81세까지 살았다. 장중정의 아버지 肅庵도 조부의 선한 일과 근검 절약하는 가풍을 지켰다. 그는 의숙을 세웠고 남들의 어려운 일과 분쟁을 해결해 줄 만큼 의협심이 강했다.

숙엄공은 광서 21년(1895) 54세의 나이로 갑자기 병사하

였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장중정의 가정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때부터 어머니 왕태부인은 네 자녀를 데리고 의지해 살아가게 되었다. 그 지방 토호와 관아의 서리는 고아와 과부가 된 장중정의 가족을 못살게 굴었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업신여겼다. 갖은 우롱을 당했는데도 친척들은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았다. 장중정은 9세 때 아버지를 여읜 후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점차 성장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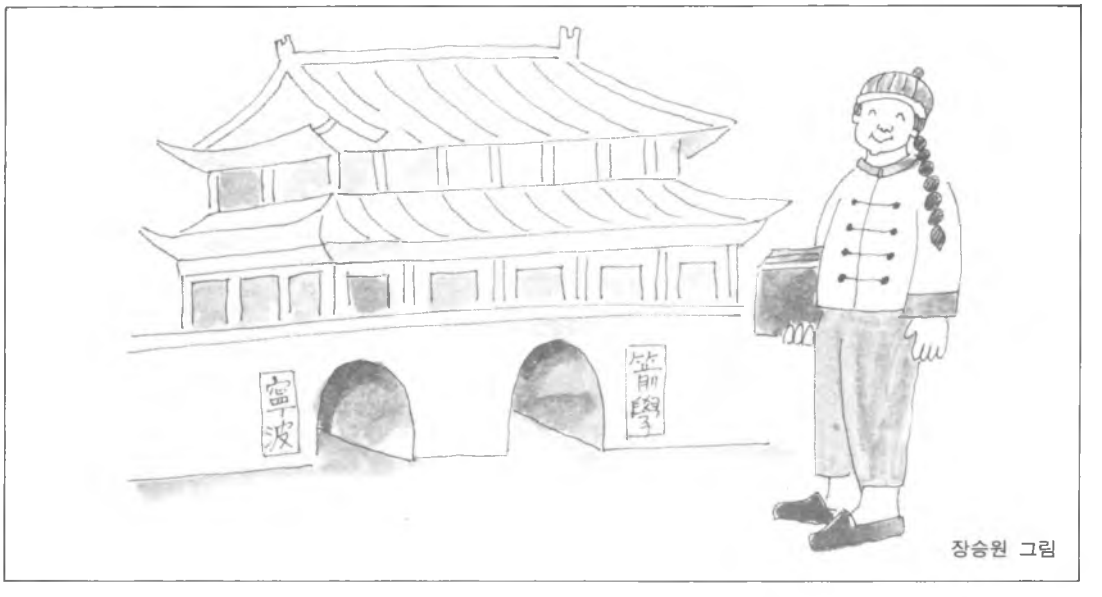
어머니 王太 부인은 아들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장중정은 6살 때 글을 배워 四書를 공부했고 13살 때 집을 떠나 嶧縣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서 蔡宗元선생으로 부터 孝經, 春秋, 唐詩 등의 과목을 배웠다. 또한 毛鳳美, 皇甫, 竺景松, 毛思誠에게서도 배웠다. 하지만 그가 16세 이전에 배운 교육은 모두가 구 교육 제도의 것이었다.

광서 29년 (1903) 장중정 나이 17세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奉化縣으로 가서 신식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학당 이름은 鳳麈이었고 학과목은 예기, 역사, 영문, 산수 등이었다. 2년 뒤(1905) 이어서 寧波에 있는 箭金 학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顧淸廉 선생의 교육에서 깨우침을 가장 많이 받았다. 顧 선생은 일찍이 국부 손문선생의 혁명 운동과 혁명에서 주장한 내용, 런던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 등에 관해 알려 주었다.

광서 32년(1906)봉화 龍津 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당시 저명한 기자이며 대사 걸출한 기독교인인 葦顯光 선생이 이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장중정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顯光 선생은 후에 회고하며 말하기를 그는 배우는 것에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실하여 이미 우리 동료들의 주의를 끌었다라고 했다.

장중정은 龍潭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다. 그해 4월 일본으로 가서 군사학을 배우길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 가서야, 청나라 정부 추천이 없으면, 군사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결국 일본 동경의 淸華學校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일반 학과목을 배우게 되었다. 이 해 겨울 중국 육군 連成 학당에서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귀국하여 그 학교에 응시했다.

하북성 保定에 설립된 육군 연성학교는 후일의 육군대학의 전신으로 응시생의 수가 아주 많아서 1700여 명이 응



장승원 그림

시하여 5차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다. 장중정은 무난히 1차부터 5차까지 통과하여 입학하였다. 1학년 때 청나라 정부에서는 일본에 가서 군사학을 배울 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였는데, 장중정은 순조롭게 합격하여 다음해 (1908)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관의 예비학교인 振武 학교에 입학하였다.

진무학교에서 학습단계를 거치던 중 일본에 거류하는 혁명당원 陳英士를 만났다. 장중정은 陳英士의 소개로 정식으로 동맹회에 가입하였다. 이후에는 쉬는 날마다 동맹회의 혁명 준비사업에 참여하였다. 宣統 2년(1910)에는 陳英士의 소개로 국부 손문 선생을 알게 되었다. 장중정의 군사상의 우수한 재능이 손문의 눈에 띄게 됨으로써 동맹회에 가장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민국 2년 봄(1913) 귀국한 그는 신해혁명 후 다시 정권을 잡은 원세개 제국주의 체제를 토벌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중화혁명당에 참가하여 계속해서 討元 운동을 벌였다. 원세개의 제국주의가 무너지자, 군벌이 다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거할 때 장중정은 국부 손문을 따라 북벌에 나서 중국 전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민국 15년 (1926)에는 정식으로 광주에서 북벌을 결의하였고 계속 파죽지세로 나가 다음해에는 남쪽 양자강 유역을 통일하였다. 이 때 장중정의 나이는 40세였다. 이 해가 바로 그의 업적이 빛나기 시작한 첫해였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宋美齡 여사와 혼인을 맺은 때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해는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다가와 기독교의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한 때였다.

장중정이 기독교를 믿게 되기 까지는 길고도 긴 과정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중국 전통적 배경이 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 王太 부인은 불교에 귀의하며, 평소에 불교 경전을 외우고 정진 결재를 하는 것 외에 시주하는 일도 즐거워하였다. 이런 어머니의 종교신앙은 장중정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후 장중정은 혁명 건국사업에 몸을 바쳐 나랏일에 힘을 다했다.

민국 11년(1922) 장중정은 광주에 있는 손문 선생의 집에서 宋美齡 여사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는 그녀가 곧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이상적인 반려자로 결정하였고, 1년 정도 사귄 후 결혼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송미령 여사의 대답은 아직 뜻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중정은 좌절하지 않고 그 후 5년 동안 송미령 여사와 편지로 왕래함으로써 피차 서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경건한 기독교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송미령 여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장중정에게 정식으로 전도하였다. 이것이 그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국 16년 (1927) 장중정이 이끌었던 북벌 사업은 이미 광서 광주 양지방에서 양자강 일대까지 순조롭게 추진되어 마침내 북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파와 무한에서 북벌군이 분열되고 말았다. 결국 장중정 선생은 영파, 무한 쌍방의 합작을 위해서 북벌군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절강에 있는 雪竇寺에 은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전부터 5년 동안 깊이 사귀어 왔던 송미령 여사는 장중정의 청혼을 승락하였는데 단, 송미령 여사의 가족의 승락을 얻어낸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였다.

장중정, 송미령 두 집안과 깊은 우의관계를 가진 董顯光 박사의 저서에 나오는 장총통의 일생에 관련된 전기 중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민국 16년 (1927) 9월 23일 離山寺를 떠나 따라다니던 사람들 몇 명과 상해로 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여행은 정치와는 무관하며 오직 송미령 여사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 여사 가족들의 동의를 얻

장승원 그림

어내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만약 그 가족과 합의가 잘될 경우에는 상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 말했다."

당시 송미령 여사의 부친 宋耀如 목사는 이미 돌아가신 지 여러 해 되었으므로 결혼의 동의 문제는 어머니 倪太 부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령 여사의 큰언니 靄齡 여사에게도 또한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언니 알령 여사의 동의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나서 장중정은 일본으로 가서 친히 神戶에서 요양중이던 송미령의 어머니 倪太 부인을 찾아 뵙고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구했다.

송미령의 어머니 倪太 부인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종교신앙의 차이 때문에 몇 번이나 고려했었다. 이로 인해 장중정을 만난 후 이 문제를 말하고 장중정에게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장중정 선생은 성의있는 태도로 대답하였다. 그는 "결혼을 위해서 거짓으로 회개하고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말하진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송미령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연구해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솔직하고 성실한 대답은 송미령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마침내 결혼을 승락했다.

민국 16년(1927) 12월 1일 장중정은 송미령 여사와 상해에 있는 송미령 여사의 집에서 기독교 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때부터 장중정 선생은 건국 사업에 있어서 훌륭하게 도와줄 사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더욱 매진하도록 뒷받침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장중정은 결혼 후 장모님께 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다. 처음으로 갖게 된 성경은 아태 부인이 준 것이다. 장중정 선생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였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로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고 특히 구약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그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상해에 있는 장모 倪太 부인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보통 때는 부인과 함께 연구하고 서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하곤 하였다. 장부인은 성경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어 간단한 뜻에서부터 심오한 뜻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장중정은 원래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영적인 일에 잠재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3년 간의 끊임없는 공부

와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함에 가까와졌다.

장중정은 마침내 민국 19년(1930) 10월 23일, 상해 알렌 기념 교회(Allen Memorial Church)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강장천 목사가 주관하는 대로 세례식 전의 교리 문답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강장천 목사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후 장중정의 일생은 참으로 萬顯光 선생이 장중정 전기에 말한 바와 같았다.

"장총통이 일단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정한 후 그는 전심으로 이 새로운 신앙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가 장총통의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일종의 영은(寧恩)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는 매일 한 부분의 시간을 홀로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에 썼다. 그는 아무리 급한 나랏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는 않았다. 장총통은 처음에 기독교가 단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개인 체험의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그가 다스리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비기독교인이지만 그는 결코 기회주의적인 조건을 용납하지 않아 공개적으로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연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신앙은 개인적인 것에 속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중정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점점 견고해졌다. 그는 부인과 함께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매우 경건한 Q.T 생활을 하였다. 이런 매일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가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얻은 믿음과 능력은 이후의 일생에서 각종 환경이 가져다 주는 시련을 극복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국 25년(1936) 12월 4일 전국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장중정은 낙양에서 서안 지역으로 와서 그 지역의 군사장교들과 군사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는 각 부대의 장교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陝西 북부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들을 없애고 점거하도록 독촉했다.

하지만 서북지역의 군대를 책임졌던 張學良과 楊虎城은 12일, 장중정과 그의 수행관리들을 납치 했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서안사변이다. 이 일이 일어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장중정은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는 무사히 남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듬해(1937) 3월 26일 예수의 고난주일에 기독교 美以美會 동아시아 연합회는 특별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중정에게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장중정은 간증문에서 특별히 석달 전에 일어났던 서안 사변을 예로 들면서 서안에서 겪은 믿음의 능력을 간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가는 그 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소를 막론하고 어떤 일도 성취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면 물러서거나 아니면 반쯤 해 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10여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고 성경을 통해 진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엄동설한의 서안에서 사변을 당하였고 일이 급작스럽게 되어 얼마동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2주간 곤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요구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더욱 그 말씀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고 구주되신 예수님의 박애정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활력이 생겼고 악한 세력과 싸울 때 끝내 그것들을 극복하고 정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

라 여겼습니다.

또한 교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응답받을 것이라 느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 동지들 앞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일본과의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정부도 重慶으로 옮기게 되었다. 비록 장중정 부부는 위험과 긴장이 도사리는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줄곧 그들의 믿음과 경건생활을 지켜왔다. 민국 31년(1942)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 친구가 그들이 있는 중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그날 저녁, 공습과 폭격 가운데에서도 이상하리 만큼 침착한 장중정 부부를 보았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장중정은 성경 한 장을 읽고서 그들과 같이 기도를 하였다. 기도 가운데 장중정은 전쟁터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폭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빌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동포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처럼 장중정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한층 더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민국 34년(1945) 8월 15일, 항일전쟁은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때 장중정은 「항전 승리를 전국의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글」에서, 특별히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했다.

"저는 항전기간 중 용감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싸워 주었던 우리 중국 국민들과 군인들 그리고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해 준 동맹국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혁명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오늘 같은 승리의 날을 있게 하신 국부 손문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전세계의 기독교 신도들은 함께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그의 글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산상교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써 동포들을 권면하며, 일본인에게 원한을 은덕으로 갚으라고 말하며 서로가 다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새 중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승리에 뒤따라 온 것들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고군분투하여 폐허가 된 중국을 다시 건설해야 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오랜동안 고난의 시간이 흐른 후 하루 아침에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자, 그저 승리했다는 생각에만 사로 잡혀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 오히려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심각할 정도로 중국은 균형을 잃었으며 보편적인 실망과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은 중국 공산세력에게 좋은 기회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장중정은 이런 혼란의 현상을 깊이 살피고는 근심걱정에 쌓였다. 그래서 민국 36년 성탄절에 특별히 성탄절 방송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사람은 종종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개인적으로 갈고 닦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종종 과거에 범했던 잘못이 다시 생겨나고 과거와 같은 죄악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극복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장중정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신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방황하고 비관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고통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시대의 중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장중정이 동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그 길이 올바르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은 무신론의 붉은 혁명 아래 타격을 입고 결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민국 38년 장중정은 대만으로 거너왔고 믿음을 의지하며 대만에서 새롭게 일어섰다. 그는 참으로 검소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과거와 같았다. 董顯光이 쓴 장 총통의 전기를 인용해서 미국 뉴욕 신문기자가 다음과 같이 기사에 쓴 적이 있다.

"그는 고생을 참으며 소박하게 살면서 일하는 데 모두 몰두했다. 그는 매일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바로 기도와 묵상할 때였다. ••• 장총통은 동틀 무렵이면 일어나 아침 7시쯤에 세면을 마쳤다. 어떤 때는 평상시에 입는 남색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통 군복을 입고 나서 부인과 함께 서재에 들어가 아침기도를 하였다."

민국 39년에서 53년까지(1950~1964) 15년 동안 연이어서 장총통은 고난주일과 부활절 때에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설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룻동안 금식하도록 부탁했다. 금식하면서 얻은 돈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설교중에 거듭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그 중에서 얻게 된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기뻐했다.

매 주일, 장 총통은 부인과 함께 늘 타이페이시의 士林凱歌堂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민국 64년(1975) 4월 5일 밤늦게 장 총통은 주님의 품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는 유언 가운데에서도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진심을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총리의 신도라고 자처하노라."

그는 이 시대 믿음의 영웅이었고, 참으로 시대의 증인이었다. 아마도 그가 사람들에게 남겨 놓은 추억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中國基督敎人物小傳』 중에서)
번역/서울대 중국어성경반」

중국에서 미국까지

李可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에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받았던 무신론적 교육이 줄곧 우리의 사상을 지배한 탓이며,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생의 출발점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내 인생이 또 다른 단계로 이른 표적이었다. 배우는 것마다 생활마다 모두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온 뒤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인생이 변화하는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에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받았던 무신론적 교육이 줄곧 우리의 사상을 지배한 탓이며,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신에서 믿기까지의 과정에서, 처음 접할 때의 반발과 후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탐색 연구하여 결국엔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상적 충격을 경험했다.

미국은 내가 신앙을 찾은 곳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접한 곳은 아니다. 일찍이 고등학교 시절에 나와 사이가 참 좋았던 크리스천 동창이 있었다. 졸업한 뒤 그는 신학교에 갔고, 난 대학으로 들어 갔었다. 우리는 서신을 주고 받았고, 그는 그때마다 내게 복음을 전했으며 편지의 내용은 모두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이었다. 그리고 매번 기도를 넣어서 맨뒤엔 「아멘」까지도 썼다. 그 당시 나로선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고 그의 편지를 읽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었다.

중국에 사는 동안, 정치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진취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동안의 교육으로 무신론과 진화론적 사상이 벌써 나의 뇌리에 못박혀 있는 터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가 유신론 사상을 거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유신론적 기독교는 내 눈엔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반감에서 관심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크리스천 친구를 알게 되었다. 그 또한 귀찮을 정도로 내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진리는 늘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욱 나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말한

장승원 그림

죄의 댓가는 곧 사망이라는 부분이 그 예였다.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웠다. 신기한 것은 비록 난 그가 말한 교리에 감동하진 않았어도, 언젠가 한번 그를 따라간 가정집회에서 만난 한 무리의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이 이끌렸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서로 형제·자매라 칭하면서 각 사람마다 기쁨에 넘쳐 있었다. 그것은 정말 세상에선 보기드문 일이었다. 예전엔,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로서 현실생활을 비관하고 절망하여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찾는 도피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 집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아주 지위가 높은 전문직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의사, 엔지니어 등이 그들의 직업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것이 내가 신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본 계기가 되었다. 난 기독교에 대해 설령 참 神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리는 참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 중국의 공자 학설도 후엔 일종의 宗教로 발전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비록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종교도 말이다. 종교가 어찌 無에서 有가 생기는 것이겠는가? 그 오랜 세기를 전해오는 종교인데 필시 그 원천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 人間이 실존이라면, 그 믿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는 사물이겠지. 나는 또 단지 성경에만 흥미를 느낀 게 아니고 그 밖에 초자연적 현상에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바로 유심(唯心)적인 것과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였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나 영혼 학설 등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나는 다시는 이 세계가 하나의 간단한 물질의 세계이며, 정신, 영혼이 존재치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 人間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는 설법은 너무 이 세계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이 방면의 책을 많이 보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가족 친구들의 체험을 통해 계몽해 갔다. 나의 관념 속에서는 계속해서 세상 속엔 뭔가 아주 신기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을 학적용어로 말한다면 초자연적 사물인데 이것은 인류세계를 초월하여 있고, 그 속에서 아직도 많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 무척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어떤 책자 속에서 초자연 세계와 대화를 갖는 길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중에 「제7감각」이라는 책은 어떤 외국인 학자가 어떻게 초자연 세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나를 논하고 있다. 그 밖에 또다른 방식으로 초자연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유사한 일종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초자연 세계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나로선 그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초보단계에 있었지 결코 어떤 종교를

믿을려고는 하지 않았다.

신앙을 탐색하는 또다른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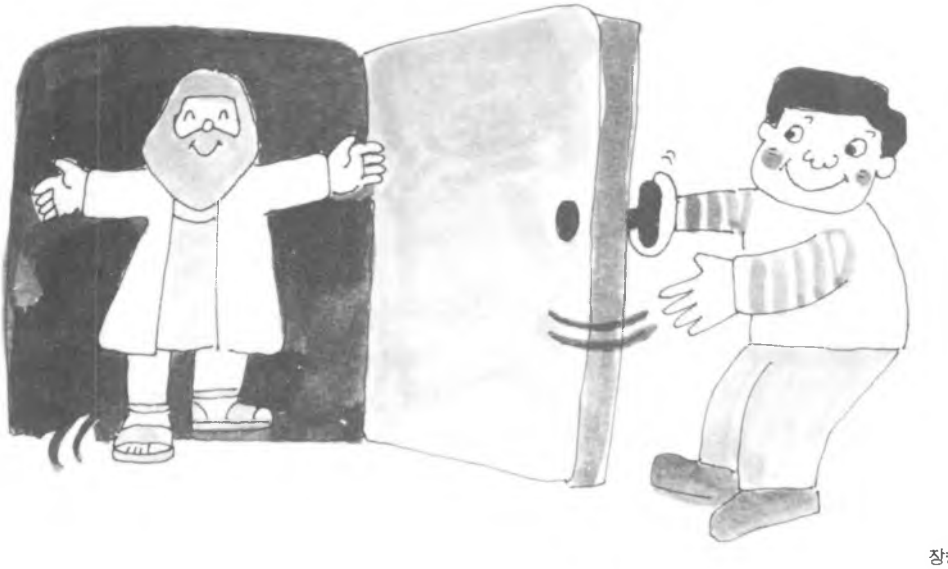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나, 뜻밖에도 미국에 건너온 뒤로부터 나의 인생관과 사물을 보는 것에 많은 변화가 왔고 예전의 많은 생각들은 그냥 무너져버렸다. 공산당은 항상 우리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교육시켰지만, 미국에 와서 많은 열심있는 크리스천을 만났고, 또 그들은 매우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분은 학교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분의 집에 며칠 간 거처하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독교를 깊이 탐구한 건 성경공부에 참석한 뒤로부터였고 이것이 또한 내 신앙의 세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의문에 부딪힐 때에는 성경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와 선생님에게 물어 보곤했다. 그 외에도, 부근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확실히 달랐다. 기쁨이 충만하고 적극적이었으며, 그들의 가정생활도 행복해 보였다.

사실상 난 이때 기독교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졌고 기독교의 조직과 활동 또한 좋다고 여겼다. 성경의 진리도 매우 깊고 오묘하였고 특히 신구약의 신비함은 더욱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모두 다 실현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였다. 누구든지 장래를 알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을 깨어버렸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묘사한 하나님은 필시 아주 훌륭한 神이시며, 그분은 미래를 예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예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스도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룩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십자가의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옛날의 사슬을 끊어 버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이때에 나로선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장승원 그림

문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이렇게 반 년을 지내다가 어떤 중국인 목사님과 형제님 한 분이 나의 집에 심방을 왔다. 주님께서 이번의 심방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드디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들은 중국어로 말씀을 나누었고, 모국어로 대화를 하니 한결 가볍게 느껴지며 그분들에게 좀 더 깊은 문제도 물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엔 목사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목사님은 내게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문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를 알고 싶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걸 원합니까?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목사님은 계속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게끔 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런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으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은 당신과 같이 더불어 먹을 수도 없거니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안되겠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어 그분이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전에 내가 들은 것과는 너무나 달랐고, 나를 半년 동안 헤매게 했던 의문점이 한꺼번에 해결을 받은 것 같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했다. 그리하여 그날 성령의 인도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전에 많은 길을 거쳤는데, 난 그 수많은 길이 어쩌면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한다. 이날 성령의 감동으로 난 마음 속 깊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

예수를 믿은 후로 난 변화됐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을 도와줄땐 서로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에서만 가능했다. 만일 이익 충돌이 있을 땐 거리끼곤 했다. 지금은 무조건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님이 예비 하신 일

주님을 믿은 후로 그분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그분은 나의 여러 생활상의 문제에도 부족함 없게 하셨다.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이 끝없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신실함과 자비로우심을 더욱더 알게 됐다. 해외로 유학간 모든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일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준다. 내가 미국에 유학하러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학비는 모두 면제됐지만, 생활비는 없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는 학교 식당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일을 찾았었다. 예수 믿은 후에, 그 일 때문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난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이런 곤란한 와중에 나는 한 형제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일깨워 주었다. 이때 나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맡기었다.

한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는 일요일 오전엔 교회 나가기로 하고, 오후엔 일하러 가기로 했다. 하나님도 내 길을 열어 주셔서 조금 저렴한 집을 마련해 주셨고 오전에 일을 안 가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리고 사장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잘 이해해 주셨고, 이로써 주일에는 꼭 오전엔 교회, 오후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내게 평일에 나갈 수 있는 일을 찾도록 건의 하였다. 같이 성경공부하는 자매 한 분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만일 주일날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 주님은 당신을 더욱 축복하실 거예요." 나는 이 의견이 참 좋은 생각이라 여겼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우리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겐 식당일 외에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게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고 동시에 기도로 주님께 의탁했다.

처음엔 난 매우 큰 믿음으로 일을 찾았고 몇 가지 일을 신청

하려고 시도했다. 그 일들은 모두 내게 적합했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거라고 느꼈다. 그러나 다 성공하지 못했다. 2주일 후엔 믿음이 흔들리고 매우 실망해 있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던가? 내 믿음은 너무 약해서 심지어는 주님이 내게 적합한 일자리 하나 못 마련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나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성경 구절은 마치 내게 말하는 것 같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 공중의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님을 믿은 뒤로 그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아볼 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반드시 내게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시간과 예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생각엔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분이 즉시 성취해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남겨 주신다. 이처럼 생각을 고쳐먹은 뒤 마음이 확 트여져서 즉시 학교에 돌아가 다섯 장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 한 학교에서 내게 회답이 왔고 이 아르바이트는 매우 이상적이었다. 보수가 높고 시간도 아주 좋고 그리고 내가 배운 전공과 상관이 있었다. 이 일을 얻은 것은 참으로 예상 밖이었고, 참으로 내 생각과 요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저 일자리나 하나 찾았으면 했었고, 그냥 보수가 작은 일이라도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나를 고용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내게 제일 좋은 것을 남겨 주시고 최고의 선택을 내게 주셨다. 그 후론 난 일요일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초신자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 주님을 믿고 나서 지금껏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혹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채 종일 생활에 쫓기고, 돈을 위해 바쁘게 뛰면서 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금의 나로선 중국을 떠나 있는 게 어쩌면 기회 상실인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지금의 중국은 떼돈을 벌 수 있는 황금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온 후 난 최고의 복을 얻었고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생활엔 목적이 생겼다. 난 이제 일생을 어둠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다. 생활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진정한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아들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번역/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수습간사)

野地的花

Flowers of The Field

馬太福音六：26-32

吳文棣 曲
Music By
Winston Wu

主的禱告文

路十40至十一2；太六9－13；約十22－40；

주님의 기도문

(눅10:40-11:2,마6:9-13,요10:22-40)

耶穌探望他的朋友馬利亞，馬大和拉撒路。馬利亞放下工作，專心聽耶穌說話。但馬大却忙着在厨房準備食物。她越作越煩，因爲妹妹馬利亞不幫她忙。她終於向耶穌抱怨。

예수님은 그의 친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방문하였다. 마리아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그의 바쁜 것을 돕지 않자 하던 일이 귀찮아졌다.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원망했다.

耶穌在他們家裡逗留期間，馬大也開始學習尋求上帝。隨後，耶穌離開他在伯大尼的朋友，與門徒會合，往猶大全地佈道。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머무는 기간에 마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배움을 시작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친구를 떠나 제자들과 같이 만나서 유대 전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셨다.

耶穌旅行時，常常停下來祈禱。門徒在耶穌的一生中，看出禱告的能力。有一天，門徒與耶穌談到這件事。

예수님이 여행할 때, 항상 멈추어서 기도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았다. 어느날 제자와 예수님이 이 일을 말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耶穌答道：你們禱告時說： 예수님이 대답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半晌沒有人說話。然後，門徒齊聲說，阿們（誠心所願）。這個簡單的禱告成了日後大家向上帝禱告的典範。此後，耶穌和門徒繼續走遍猶大傳道、治病。耶穌再回到耶路撒冷過節，城中的人都在談論他，猜他是誰。

한참 동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함께 말했다. 아멘(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는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준이 되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유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기를 보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맞춰 보려고 하였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중국교회 발달사

조송천 편저/159쪽/값 3,800원
/북방선교문화원발행

이 책은 북방선교문화원 원장 조송천 목사가 편저한 것이다. 북방선교를 위하여 중국 기독교 발달사, 소요리 문답, 부록으로 규장제도(敎會法)를 발췌하여 엮어놓은 것으로 중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국은 아직까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통제사회이다. 중국선교를 위해 선교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좋은 일이며 권장할 일이지만, 준비 없이 가서 선교라는 미명 아래 실수를 범하는 일은 오히려 선교사역을 제한하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 선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연구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전호진 교수는 "지금 중국선교는 멀리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선교다.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교만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한국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여 이미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수행할 중국선교 사명자들에게 중국삼자교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왕명도 목사편)

브라더 데이빗 저/124쪽/값 2,000원
/도서출판 은석논장

이 책은 「중공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의 저자 브라더 데이빗이 쓴 것이다. 중국교회의 거장 왕명도가 걸어온 인생여정의 고난의 길이 그려져 있다

저자 데이빗 형제는 중국 14억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제 오픈 도오즈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

왕명도는 1955년 그의 아내와 함께 반동이라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15년형을 선고받

았으나 예수를 부인하는 서약을 하고 18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약 2,00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를 배신한 그를 떠났다. 그는 거리를 미친듯이 헤매며 "나는 베드로다"를 계속 외치면서 돌아다녔다고 한다.

드디어 그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말을 취소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0년, 22년 10개월의 징역을 마치고 왕명도는 석방되었다. 그가 감옥을 나왔을 때는 80의 고령으로 겉사람은 쇠퇴하였으나 그의 내적인 삶은 결코 쇠퇴하지 않았다. 1990년 7월 28일 상해 자택에서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왕명도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전쟁

딘 셔만 저/238쪽/값 4,000원/예수전도단

이 책은 국제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 내 기독교대학 학장인 딘 셔만이 쓴 것이다. 국제 예수전도단에서 23년간 사역하면서 시련과 실수를 통해 깨달은 영적원리를 기록한 것이다.

딘 셔만은 영적전쟁은 어느 위대한 영적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교회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며 매일 일어나는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삶에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만 할 세 가지 전략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이 세 곳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은 삶이다. 그것은 진리를 품으면서 원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질책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질책당하지 않는다.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책으로서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알고갑시다 메뉴 읽는 법

중국 요리의 메뉴는 '菜譜(차이푸)' 또는 '菜單(차이딴)"이라고 한다. 어떠한 유명한 요리사라도 주문받지 않으면 요리를 만들 수 없으므로 우리의 도전은 우선 이 "菜譜(차이푸)'를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호텔 레스토랑이라면 대개 영어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충 짐작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Mushroom이 실은 표고버섯인 경우도 있으므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거리의 식당의 경우는 전부 한자일색(漢字一色)이다.

그것도 작은 칠판에 지워질 듯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다. 한자에 약한 사람이라면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는 이 菜譜도 실로 정연한 법칙에 의해 요리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짜임새만 알면 발음은 어쨌든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요리 이름은 재료, 자르는 방법, 조리법 등의 조합어

중국은 한자의 나라이므로 똑같이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외국에 비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확실히 글자를 보면 대강의 뜻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짐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사이에는 역시 큰 차이가 있다. 개중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 글자도 있고, 반대가 되는 글자도 때로는 있으므로 방심할 수는 없다.

메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간장의 '醬(지앙)' 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간장맛인가 생각하지만, 실은 된장이라는 뜻이다. 또 肉(러우)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豚(쭈)를 가르키는데, 이것도 '豚'라고 쓰지 않고 '猪'라고 쓴다. 鷄(지;닭)는 그대로 쓰지만 卵(계란)은 蛋'(딴)'이라고 쓴다.

그렇기 때문에 菜譜(차이푸)를 읽는 방법의 첫째는, 그 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 또는 특수한 재료를 대체로 빠뜨리지 않고 표로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참고로 하기 바란다.

조리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리 방법만 해도 48가지나 되므로 한번에 기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음 9종류로 분류되므로 이것만 알아 두어도 편리할 것이다. 1. 拌菜(빤차이: 초를 친 요리) 2. 炒菜(차오차이: 볶은 요리) 3. 炸菜(짜차이: 튀긴요리) 4. 溜菜(리우차이: 갈분을 넣은 요리) 5. 蒸菜(쩡차이:찐요리) 6. 熩菜(웨이차이: 끓인요리) 7. 烤菜(카오차이: 직접불에 구운 요리) 8. 醃菜(옌차이: 절인요리) 9. 湯菜(탕차이; 수프). 그런데 물론 이 경우의 '菜(요리)'라는 것은 채소잎이 아니라 OO요리라는 의미이다.

菜譜(메뉴)에 있는 요리명에는 지금까지 나열한 것과 같은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자르고, 어떻게 조리하며, 조미·향신료는 무엇을 쓰는가가 들어 있다. 예를

들면 대중적인 것으로 青豆蝦仁(칭떠우시아런; 그린피스와 새우를 볶은 요리)를 예로 들면, 이것은 青豆(칭떠우; 그린피스)와 蝦仁(시아런; 새우)이라는 재료가 요리명이 된 셈이다. 이처럼 요리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와 조리법에, 자르는 방법을 조합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조합되었나를 알면 참으로 간단하게 그 요리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조합은 대부분이 다음 6가지로 한정되므로 이것만 알아두면 식사에 관해서는 마스터하는 셈이 된다.

1. 조리법과 재료명, 자르는 방법으로 조합된 요리명
<예> 拌海蜇(해파리에 초를 친 요리)
炒墨魚(오징어를 볶은 요리)
乾炸鷄塊(닭고기를 크고 두껍게 썰어서 그냥 튀긴 요리)

2. 두 종류의 재료명, 자르는 방법이 조합된 요리명
<예> 腰果鷄丁(캐슈 열매와 닭고기를 각지게 잘라서 볶은 요리)
青椒牛肉絲(피망과 쇠고기를 잘게 썰어서 볶은 요리)
鷄絲豆芽(닭고기를 가늘게 썬 것과 콩나물을 볶은 요리)
鮑魚片湯(전복과 닭고기를 얇게 썬 것이 든 수프)

3. 완성된 느낌에 재료를 조합한 것
<예> 芙蓉蟹(게와 야채를 넣은 달걀부침으로 완성된 모양이 부용 꽃 같다는 요리)
玻璃白菜(유리와 같이 투명한 배추 삶은 요리)

4. 양념과 재료명이 조합된 요리명
<예> 糖醋鯉魚(잉어에 달콤새콤한 갈분을 섞은 요리)
蠔油牛肉(굴 소스로 양념한 쇠고기)

5. 수, 색, 모양을 조리명에 넣은 것
<예> 涼拌三絲(3종의 재료를 가늘게 썰어서 초를 친 요리)
白片肉(짠맛의 술로 찐 고기를 얇게 썬 요리)

6. 인명, 지명이 들어간 조리명
<예> 東坡肉(소동파가 만들어 낸 돼지고기 덩어리를 끓인 요리)
麻婆豆腐(마씨가 고안한 두부 요리)
西湖豆腐(서호의 명물 두부요리, 서호 한쪽에 흰 꽃이 피어있는 듯이 보이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北京烤鴨(북경명물인 오리구이)

(『세계를 간다 - 중국/중앙일보사』 중에서)

도전! 또 도전

양한나

몇주 전부터 리트릿이 있다는 장 총무의 광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막상 토요일이 되고 나니 교회 행사가 겹치고 피곤함이 극도에 달해서 "가기는 가야하겠는데..." 하면서도 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 다 접어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인천 성광교회를 향했다.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매우 추웠지만 거기에 가면 저녁밥이 있음을 알았기에 배고픔도 참고 달려갔다.

길눈이 어두워 물어물어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금방 찾게 해주셨다. 감사했다. 성광교회 안의 선교센타 건물로 들어서자 반갑게도 우리 3기생을 만났다.

선교센타를 어찌나 잘 지었던지 인천 성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한국교회에 선교에 눈뜬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더더욱 중국어문선교회를 알게 하시고 중국선교 비전을 점차로 뚜렷이 확신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

40~50여 명 앉을 수 있는 큰 홀에서 우리 중국선교훈련원 식구들이 모여 앉아 김성곤 간사의 인도로 중국어로 찬양을 드렸다.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샘 솟았고, 잔잔함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넘쳐났다. 김성곤 간사의 유머 덕분에 우리는 오래 전에 교제나눈듯한, 한가족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리"를 부를 때 "찡빠이 예허화, 짠메이 예허화" 중국 발음이 아직 입에 채 익지도 않은 채 부르는 찬송이었지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찬송이 은혜의 도가니에 무르익는가 보다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시간을 가져야 했다. 선배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또한 귀한 시간이었다. 손 형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군 제대를 하자마자 중국선교훈련원에 들어와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과정을 얘기하였다.

또 한 분은 연세가 70을 바라보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당신이 사역하시던 교회를 미리 은퇴한 후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지시고 중국선교훈련원에 들어왔다고 한다. 어찌나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셨는지 중국 현지에서 가서 중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수 있었다고 한다.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열심!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으리라. 이 밤에 그 열심을 도전을 받으러 왔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다. 아니 확실한 도전을 주시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 다음 시간에 있을 줄이야!

갑자기 구수한 냄새가 나길래 두리번 두리번. 아니 웬 통

닭?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튀겨주신 수십 마리의 통닭을 가져왔다. 정작 먹을 사람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러나 앉은 자리에서 두 마리를 거뜬히 해결한 위대하신 장 총무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몸보신을 한 후 더 큰 영적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박애린 선교사님의 "사랑의 집" 사역소개 시간이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과연 얼마나 선교를 할까?하는 선입견과 또 그분의 매서운 눈, 차가운 듯한 목소리에 나는 약간의 거부반응을 느꼈는데...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시간이 갈수록 어찌나 힘이 있었는지, 시간은 벌써 밤 12시가 넘어 잠자야 할 시간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말똥말똥! 반짝반짝!

또한 슬라이드로 사역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도전! 또 도전! 하나님께서 박 선교사님을 통해 귀한 일을 하셨다. 한국에 '사랑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중국교포들과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되어 훈련받고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역사, 돈벌러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서울에 와서 죽어가던 젊은 자매가 "사랑의 집"에 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칼로 위협, 핍박하는데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단다. 도리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 처소로 만들어 노인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는 멀리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 3시간 걸어서 오신단다. 코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제대로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길장로님께서는 골수염으로 고생하고 계신것도 보았다. 중국땅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불길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내몽고까지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가정을 갖고 자녀도 있는 가운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고있는지 박 선교사님이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겸손히 말한다. 나도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

박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담대히 기도했다. 그의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도 감동하셨는지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단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간절한 소망이 용솟음쳤다. 그동안 나는 정말 게을렀고 안일하게 누워만 있던 38년된 중풍병자였음을 회개하였다.

여기에다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을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시간 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계속 기도로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 리트릿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한나/중국선교훈련원 3기생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김마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던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의 동질의식과 사명감을 더하시고자 하나님께서 1박2일의 귀한 시간을 만드셨다.

우리들은 그분의 구체적인 뜻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고차에 몸을 싣고 목적지인 수안보를 향해 떠났다. 가을 빛이 물들어 있는 산과 들, 단단하면서도 조그만 노란감, 붉은 빛을 띤 사과, 갈색을 띤 볏단, 울퉁불퉁 하다가는 편만한 돌과 그속에 어우러진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달리고 또 달렸다.

두어 시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는 거리인데 길을 잘못들어 많은 시간을 봉고차 안에 갇혀있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8시간을 달리던 봉고차는 급기야 고장났고 우리 일행은 차에서 내려 길옆 원두막에 둘러앉아 통성기도를 했다.

우리는 결국 3Km 정도 되는 밤길을 걸어야 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겨우 밤 10시가 넘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의 예배와 교제는 지친 우리들의 육체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을 더 한층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고개를 숙이게 했다.

정교하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고, 서로를 깊이있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지역 의 차를 빌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는 문경새재를 돌아볼 수 있었다. 문경새재를 돌아보며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말을 주고받았다. 삼라만상과 물고기, 개구리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 느꼈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했다.

맛있게 싸온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젓가락(손가락)으로 김치와 깻잎을 먹으니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한 많은 훈련(?)을 받았다. 모세가 광야를 헤매던 그때를 연상케 할 만큼 차안에서의 긴 시간.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욥23:10, 13절)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에 뜻에 순종하리하는 각오를 하게 한, 귀한 체험을 준 수련회였다.

김마리/중국선교훈련원 3기생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흑룡강성 신학원· 남강 교회당 건축

총회 선교부가 보고한 중국 흑룡강성 신학교 설립과 하얼빈시 남강 교회당 건축 추진이 제43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사업의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얼빈 시에 신학교를 시작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동시에 남강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사업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지난 여름 실무를 맡은 중국측 책임자들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기독교보 93.10.9)

● 성결교 神大 中國 요녕대학과 자매결연

성결교신학대학과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요녕대학과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지난 19일(화) 오전 10시 성결교신학대학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조인식에서는 양교의 학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해 방학 중의 단기연수 및 유학생 교류, 교수교환 등 각종 인적자원 교류와 양교에서 발간되는 도서 및 학술연구자료와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교류키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독교보 93.10.30)

● 가정교회가 등록과 폐쇄의 압박을 받다.

정부는 福州의 「小[illegible]」신도로 하여금 정부에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복주교회는 정부의 요구수락 여부에 관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는 이미 그들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사역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문판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은 근래 곤명시에서 사백 개가 넘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 폐쇄됐고 이만 명의 신도가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했음을 보도했다. (<興旺中華福音>,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1993.6)

● 하남교회의 지나친 부담

<天風> 7월호에는 한 신도의 편지를 수록했는데 하남지구에서 교회에 과다한 금액을 부담시킨 현상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들이다.

첫째, 현의 종교국이 1991년 12월 25일 각 교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허가패를 발급할 때, 2원 밖에 안하는 유리판을 40원이나 받은 점.

둘째, 간부들이 한 권에 12원씩 하는 통전잡지를 한 교회에서 두 부씩 구독하도록 강요한 점.

셋째, 현의 지도자급 인사들 중 어떤이는 늘 교회에와 먹고 마시면서 각 교회에 돈을 요구하였는데 가장 많이 내는 교회는 한 달에 백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하는 점.

넷째, 어떤 지역에서 타지역의 장로를 불러 세례를 행하면 그 장로가 가고 난 후 사례금을 현에서 요구하는데 146원에 달하는 점 등이다. (<천풍> 1993.7)

● 대학생 신도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

최근 한 보도는 중국대륙의 대학생들이 복음에 대해 아주 깊은 흥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기독교 신도가 되었다. 6.4사건 이전, 대학생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 탐구하는 단계에 있었고, 6.4사건 이후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흥미를 느껴 복음방송을 듣기 시작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대학생 신도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학내의 기독학생과 교수가 열심으로 전했기 때문이며, 외국 기독교 교사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복음의 불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를 영접한 대학생 중 다수가, 주님에게 자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며, 어떤 학생들은 졸업한 후 곧바로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조건이 비교적 떨어지는 비공식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원한다는 것이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형제자매들도 화동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대학생과 교수가 대략 20, 30여 명 참가했다. (<天風> 1993.9)

한중관계

● 韓, 中 은행지점 認可 12월. 서울, 天津에 開設

우리 나라와 중국이 곧 상대국에 은행지점을 처음으로 설치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한국 외환은행 천진지점의 신설을 각각 내인가하는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를 희망한 중국공상은행에 대해서도 정식인가 신청이 오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간 은행지점 설치합의는 지난 9월 9일 양국이 교환한 「한•중 금융협력에 관한 각서」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93.10.22)

● 韓◦中 첨단분야 科技협력 본격화

우리 나라와 중국간 과학기술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중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오는 4~6일에는 金始中과기처장관과 宋健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韓•中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양국 과기장관은 과학기술자를 상호교류 및 유치파견하는 문제와 과학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93.11.1)

● 中國, 국산車 "최대시장"

對중국 자동차 수출이 對미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對중국 자동차 수출액은 4억 5천6백만 달러를 앞질러 중국이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국민일보 93.11.3)

● "韓, 中 장애인교류 계속돼야"

중국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장남 鄧樸力 중국장애자(殘疾人)연합회 주석(49)을 포함한 중국장애인예술단 대표단 6명이 4일 김포공항을 통해 했다.

鄧 주석은 공항에서 『첫 방한이지만 한국과 중국 장애인 단체의 계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인 등씨가 주석으로 있는 중국장애자연합회는 장애인을 위한 준정부 기관이다. (한국일보 93.11.5)

● 중국교포 입국하면 "잠적"

단체관광, 기술연수 등의 명목으로 한국에 온 중국 교포들이 돌아가지 않고 중도에 잠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자진 신고할 경우 12월15일까지 출국을 유예해 주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5만8천여 명 가운데 잠적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교포는 2만5천여 명(43%)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일보 93.11.1)

● 한국의 대중국 수출- 투자 2배이상 늘어

워싱턴 포스트紙는 13일 「한국이 중국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불과 국교수립 15개월만에 문화-교육-경제적 기반을 중국에 확고히 굳혀 놓았다고 보고했다. 올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고는 24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백43%나 신장했다. 6개월 전 2억 2천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올연말에는 5억 2천만 달러로 늘어난다.
(조선일보 93.11.14)

정치

● 中, 회교도 소요 심각

중국은 15일 서부 회교도 지구인 新疆위구르 自治區와 青海省에서 회교도들의 심각한 소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으며, 회교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新疆자치구의 카사카르시에 병력을 증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新疆자치구와 인접하고 역시 회교도가 많이 살고 있는 青海省의 省都 西寧지역에서 최근 일부 주민들이 회교도를 모욕한 책이 발간된 것을 구실로 회교도들을 선동,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고의로 소요를 야기시켜 지방 공산당과 정부 청사를 공격하고 경찰차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근 新疆지구를 여행한 중국인 및 외국인 여행자들은 重砲를 포함한 軍트럭 수송단의 행렬이 카시카르시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2개월 전에는 「東투르케스탄 黨」이라는 회교분리주의 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부대가 카사카르시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3.10.17)

● 중국 "개화. 개방 계속 추진"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00년 올림픽 유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세계를 향한 확고한 행진」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우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간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3.9.25)

● 中고위층 사상재교육

중국의 국무위원과 省지도자 등 45명이 지난 4일 공산당 간부훈련소에 입소, 최고지도자 鄧小平의 개혁정책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사상재무장 교육을 받았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사상재무장 교육은 중국의 제2선 지도부가 鄧의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한국일보93.10.18)

● 中- 이 영사관 설치합의

李鵬 중국 총리는 11일 중국은 중동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중동평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못박았다.

李鵬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은 방문한 이츠하크라빈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은 중동평화를 위해 기꺼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을 제한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PLO협정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는 이스라엘측의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일보 93.10.12)

● 21세기 중국 진로제시

14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4기3중전회)는 향후 중국의 진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면과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처방과 함께 「21세기의 중국」을 향한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개막됐던 3중전회는 이날 회의를 끝내면서 발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따른 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시장경제 체제 육성발전 △국유기업 경영개편 △농촌경제 개혁 심화 △대외경제무역 체제 개혁확대 △당지도력 강화 △사회보장제도 도입 △정치체재개혁 추진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측면을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국민일보93.11.15)

● 국무원 빈곤해결 대책 제출, 7년내 8천만 명의 빈곤문제 해결

홍콩을 방문하고 있는 국무원 빈곤보급지도실의 부주임 고홍빈(高鴻賓)은 현재 8천만에 달하는 연소득 3백 원 미만 人民幣 인민들이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원이 제출한 「87 빈곤 타파계획」에 의하면 2000년에 이르기전까지 대부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무원은 내년에 제1차 빈곤보조회의를 소개하고 각 부서부문과 각 지방정부의 토론을 거쳐 상응한 계획을 수립 후 빈곤지역내의 산업경제개발, 농공업, 기초설비개선, 위생, 교육 등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明報 93.10.17)

중국대륙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한다고 공언하는 중국 당국의 단죄의 칼이 권력이라는 암초에 걸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경제

● 외국인 中國투자 올 천억弗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같은 외국인 투자 규모는 수개월 전 중국 무역관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백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의 경우, 4만3천6백32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국인 투자액이 이미 5백88억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3.10.17)

● "中國 최대 무역국은 日本"

일본이 홍콩을 처음으로 제치고 중국의 최대무역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미국, 대만, 독일, 러시아에 이어 7위에 그쳤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와 대공보가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2백24억달러의 대중국 무역고를 기록한 홍콩보다 26억달러가 많아 1위로 올라섰다. (중앙일보 93.10.14)

● 中, 전면 市場경제 전환

중국은 北京에서 열릴 공산당 제14기중앙위 제3차전체회의(3中全會)에서 경제과열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온 금융긴축을 해제하고 금융무역재정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전면적인 시장제제제로 이행한다는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日 도쿄신문이 31일 북경發로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긴축정책으로 공업생산과 환율안정 등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북경과 상해 등 도시개혁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종업원을 일시 귀휴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93.11.1)

● 鄧小平, 고도성장 지지

중국 최고 실권자 鄧小平은 최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현재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鄧小平이 『경쟁의 치유와 구조 개혁에 지나치게 집착, 고도 성장이라는 핵심과제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發展才是道理」라는 지시를 최근 하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3.10.27)

● 중국 최신 경제지수 공포, 통화량 연 삼 개월 계속 하락

중국국가통계국은 93.10.19 일자로 경제지표를 발표했는데, 35개 대중도시의 9월분 통화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7% 올랐으며 금년도 평균증가율은 18.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분의 통화량은 8월의 22.2%, 7월의 23.3%에 비하면 삼 개월 동안 근 3%가 하락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이 작년에 공포한 숫자와 비교해 볼 때 금년 1월에서 9월 사이의 중국 평균경제성장율은 작년보다 13.3 % 올랐으나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평균 0.6%내렸음을 알 수 있으며, 동기간의 통화량은 작년보다 12% 올랐으며 대외 무역적자도 7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明報 1993.10.20)

사회

● 어딜가나 잡부금 "홍수"

얼마전 사천성에서 농민들이 데모를 했다. 「잡부금」에 시달리다 못해 소동을 벌인 것이다. 중국의 잡부금은 그만큼 문제다. 그 종류와 실태는 일일이 사례를 들기 어려울 정도다.

행정세 • 토지세 • 공익금 • 공적금 • 관리비 • 교육세 • 계획생육비 • 민병훈련비 • 방송 • 문화 • 교육 • 위생비 등은 그나마 모두 조례규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학교 • 마을 공동시설에 이르기까지 규정 이외에 따로 징수하는 잡부금이 무려 4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잡부금이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경의 교통경찰에게는 벌과금 징수액이 할당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93.11.8)

● 중국 지방관리 부패 횡포 극심

中國의 근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관리들의 횡포가 극을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지방관리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으나 관리들의 부패 양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조직적 이어서 중앙정부는 이렇다 할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방관리들의 횡포는 주로 土皇帝라고 불리는 村長을 중심으로 그물처럼 얽혀 빚어지고 있는데 촌장의 친, 인척들이 대부분인 경찰, 세리, 판사들이 한 통속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93.10.24)

● 朝鮮族 중국 한족보다 교육수준 높아

중국 내 조선족들은 漢族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자녀들의 교육수준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중국 관영 新華통신이 17일 보도.

昆明市에서 개최된 산아제한학회에 제출된 보고에 따르면 총1백10만 명으로 중국 전체 12억 인구 중 1%도 안되는 조선족은 90년도까지 지난 9년 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5%에 그쳤으며 자녀들의 대학 졸업률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비율보다 3배나 높고 고교 졸업률도 한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국민일보 93.10.18)

경제특구 및 대도시지역 중국인들, 특히 지식분자, 기술 관료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부업을 가지고 본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본 직업은 형식적이고 부업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謙卑)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赦)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1. 중국 福州의 소군교회들이 정부의 등록 명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최근 곤명시에서는 4백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고 2만 명의 신도가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한다.

♣ 하나님께서 지역에 따라 아직도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중국 당국자들의 정책과 태도에 변화를 주셔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도우시길.

2. 지난 6.4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대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는 희생을 무릅쓴 결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중국대학생들 사이에 일고 있는 이 <기독교열>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캠퍼스 사역에 힘쓸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잘 훈련받아 중국전역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3. 귀주성 육반수시의 2만3천여 명의 신도 중에 소수민족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워낙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 또한 낮다. 이런 가운데 市 兩會가 육반수市에 기독교 성경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정, 성경의 순수진리와 초급의료 기술을 배양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 육반수시의 성경학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격을 갖춘 많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도록.

4. 항주의 기독교 사등당에서 음악전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 열기를 더했다고 한다.

♣ 주님께서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이를 통하여 중국인들이 거부감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5. 총회의 허락하에 흑룡강성에 신학교 설립이 중국측 책임자들과의 접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또 성결교 신대와 중국 요녕대학과 자매결연이 조인되었다.

♣ 주님께서 중국과의 이런 교류를 통해 복음 전파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도록 도우시고 이 일이 양국에 큰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길.

6. 지난 14기 全會는 향후 중국의 진로를 제시한 중요한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심화」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는 대로 중국의 개혁개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님께서 중국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때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의 배양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7. 중국 내에는 현재 약 8천만에 달하는 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중국 내외의 교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8. 국내 <사랑의 집>을 통하여 수많은 교포들이 결신하고 훈련되어 중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에 더욱 효과적인 중국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중국 내에 현지 <사랑의 집>지부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주님께서 이 일에 길을 열어 주시고 이에 소요되는 물질과 일꾼을 공급해 주시도록 도우시길.

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을 비롯한 많은 중국선교훈련원들이 있다.

♣ 각 선교훈련원들이 훈련생들을 현지 복음 사역자로 세울 수 있게끔 강사진이나 과목 등 훈련의 내실을 기하게 도우시길.

10. 현재 수많은 한족 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체에 취업해 있다.

♣ 한국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우시길.

11. 각 교회의 예산편성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에 있다.

♣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재정을 열어 중국 선교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길.

12. 한국교회의 선교는 국내외적으로 협력선교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 주께서 각 교회의 선교에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협력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알 림

▶ 중국선교훈련생 모집

중국선교에 소명이 있는 예비 선교사, 관심자 및 희망하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 훈련원에서 제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기간은 1994. 2. 19~7. 6(5개월)로서, 접수마감은 94년 1월 15일.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533-5497, 594-8038. (담당: 장희락 총무)

▶ 제8회 모퉁이돌 선교학교

1994년 2월 1일 ~ 2월 4일(3박 4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주제로 선교학교가 개최됩니다(회비: 5만원).

자세한 문의는 ☎ 796-8846 모퉁이돌 선교회 (서울 사무실).

▶ 중국어문선교회 총회 및 4주년 감사예배

1993년 12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이수성결교회에서 중국어문선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및 총회가 개최됩니다.

▶ 전문인선교 훈련생 모집

1994년 3월~1995년 2월, 매주 토요일 오후 3:00~8:00, 사랑의 교회 교육관에서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의 제5기 훈련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 전문인선교사(지역개발, 스포츠인, 의사, 약사, 간호사, 회사원, 교사, 교수, 예술인, 엔지니어 등)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537-2043, 594-3438. FAX. 595-7809으로.

▶ 동아시아 선교 캠프

한국 OMF의 제1회 동아시아 선교캠프가 1994. 1. 10(월)~1. 22(토) 있습니다.

선교정탐여행은 1월 24일(월)부터 2월 5일(토)까지.

장소는 인천성광세계선교센터 입니다. 대상은 동아시아 선교에 관심있는 목회자, 청년, 대학생(50명)이며, 자세한 문의는 ☎ 555-3958, 567-9859. FAX. 563-6950으로.

▶ 중국 투자 안내

현재 중국은 중국 당국의 풀린 돈의 환수로 외국인이 투자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내에 진출하여 투자 기회를 모색하려는 분들은 중국어문선교회의 선교부에 문의바랍니다. ☎ 594-8038(담당: 정선영 전도사)

▶ 해외 단기선교훈련

1994. 1. 18(화)~28(금)(10박 11일), 중국복음선교회의 대만 현지 단기선교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제출서류는 (1) 지원서(중국복음선교회 제공), (2) 여권(여권미비시 신청). 자세한 문의는 ☎ 778-3626, FAX. 773-6278.

선교도서안내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	1,500원
7. 만 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교재

1. 中國語 聖經 (신약+시편+잠언: 주음부호)	7,000원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3. 經文背誦	1,500원
經文背誦 Tape	1,000원
4. 初級中國語 1	3,500원
初級中國語 1 Tape(10개)	6,000원
5. 初級中國語 2	3,500원
初級中國語 2 Tape(10개)	7,000원
6.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7.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0,000원
8. 信仰讀本	5,000원
信仰讀本 Tape	1,6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당: 김성순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사역**: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 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업**: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립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번역 및 출판사업**: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 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방한중국교포사역**: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려 손과 발로 뛸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국선교훈련원

제4기 훈련생 모집

대상

교회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중국선교 관심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평신도.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1994년 2월 19일 ~1994년 7월 16일(5개월)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4년 2월 19일(토), 오후 3시
접수마감: 94년 1월 15일
장 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총20주)

목 표: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전문 중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하도록 합니다.
교육내용:**전반**(10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 선교), 중국어 찬양. **후반**(10주)/ 중국어성경, 耶穌的好消息, 회화(일반, 선교), 중국어 찬양, 信仰讀本, 福音話劇, 예수님의 비유.
일 시:매주 월, 화, 수, 목, 금.
월(오후 1시~4시),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본 과정의 훈련생은 1주간 공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선교 현지답사 실시(94년 8월 중)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2주간 실시합니다
계속 훈련코스
"선교중국어 집중코스"수료자를 위하여 중급 이상 수준의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교육내용:중국어 성경강독, 회화, 중국어 설교, 新生命.
일 시:매주 화.목 오후 7시~ 9시 20분

중국선교 전문강좌 (총20주)

목 표:중국선교상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합니다
일 시:매주 토 오후3시~ 6시 20분
강의주제 및 강사
중국문화개관 (이홍자, 前 전북대 교수)
중국고대사상 (김학주, 서울대 교수)
중국역사 (미정)
동양사상의 이해 (조경현, 철학박사)
중국공산주의연구 (이영순, 선교신학교 교수)
중국소수민족에 대한 개관 (왕쓰웨,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김바울, 총신대 교수)
근대 중국선교사의 선교방법론 (왕쓰웨,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기독교사 (우심화, ACTS교수)
중국 타종교 이해1 - 이슬람교, (권형기, ACTS교수)
중국 타종교 이해2 - 불교, 유교, 도교, 토속신앙(유소충목사, 영등포중화교회)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주지호, 극동방송 중국어담당)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노봉린, ACTS 교수)
중국교회 토착화와 지도자연구 (미정)
전문인 선교 (민요셉,HOPE총무)
세계 선교현황 (문상철, KRIM 연구실장)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방지일,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중국 여행과 생활적응 (미정)
중국 정치인물론 (왕쓰웨,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 지도자론 (우심화, ACTS 교수)
중국의 문화 이해 (義建美, 한성중화교회)
중국인 전도방법론 (이만열, 사이판)
중국 지리 (미정)
중국 비지니스 사역의 실태 (미정)
조선족 현황 - 만주 선교의 역사 (미정)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이요한, 본 선교회 총무)

중국어 기초과정

교육내용:초급중국어1.2, 기초회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편23편.
일　　시:매주 화.목 오후7시~ 9시 20분
등　　록: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3.12.15 ~ 94.1.15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신청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자기소개서 - 1통
참 가 비: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전.후반 각 32만원(공동훈련 경비 별도 6만원)
중국선교 전문강좌　전.후반 각 6만원
계속훈련코스　전.후반 각 12만원
중국어 기초과정　전.후반 각 8만원
선교 현지답사 경비는 별도
등록비 1만원

문의 및 접수처

중국어문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3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 533 - 5497, FAX : 599 -2786

중국선교훈련원(원장 : 박진국 장로)은 선교언어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 5 기 훈련은 94년 9월에 개강합니다.**

중국을 주께로

1993. 11/12. 통권 25호
중국선교 전문지

발행 · 편집인/박성주
편집장/한영혜
편집주간/석은혜
편집디자인/정광숙
컴퓨터/민하은

중국을 주께로
1993.11/12월호 통권25호
발행일: 1993년 11월 20일
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533-5497
팩스/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308호)
전화/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섬기는 사람들

고 문/방지일목사(본부)
김지일장로(훈련원)
대 표/박성주장로
총 무/이요한
행정실/장희락
사무 · 재정간사/임화평
기획간사/전하리
홍보협력간사/김정하
교육부운영위원/김성곤
간 사/김성순
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운영위원/석은혜
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운영위원/한영혜
편집디자인/정광숙
컴퓨터/민하은
훈련원운영위원/장희락
간 사/김바울
전임강사/방주 · 우신화
선교부운영위원/정선영
간 사/기드온
협력간사/이모세
인천지부간 사/주미애
협력간사/김성수
사랑의집운영위원/박애린
간사/이순덕 · 서세은
파송연구원/주안도(싱가폴)
파견간사/김광석 · 윤승일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 · 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 · 강성광(홍콩)
협력선교사/주성지 · 고대위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 (TEL. 533-5497, 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대금은 1부당 2,000원이며(1년 구독은 10,000원), 보내 드린 지로 용지의 '기타'란에 '회지 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을 보증 정수기 — 카타딘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씨스템을 사용하고 고객은 ;Coca-Cola, Pepsi-Co McDonald's, Red-Cross, Lo Swissair, Esso, Shell, Dole, Philips Petroleum, Unionoil, Amoco Norway, Jebsen Dril USSR Shipping lines, India Mitsui, Nedlloyd, Hapag-Llo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업체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업체 1만 리터)
- 5인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업체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씨스템의 제품 종류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
  - 선박용 • 주유회사용 • 비행기
  - Tablets • Spray • Powder
  정수 씨스템의 결실체라고 볼 수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영업과 배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

"오존의" 허위 선전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
하고 있음으로 보사부로부터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

(02)582-450

대리점
개설문의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PEPSI · McDonald's · swissair · Heineken

KATAD
(주) 카타딘
KATADYN KOREA